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第 2 卷

〈1988~1991. 3〉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차 례

▣ 1988年	1 ~ 85
▣ 1989年	87 ~ 193
▣ 1990年	195 ~ 401
▣ 1991年	403 ~ 461

1988年

1988年 主要 提議・主張

☐ 1988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88. 1. 1 盧泰愚 大統領 當選者, 日本 「마이니찌」新 聞 記者會見	〈北韓의 서울올림픽 參加 歡迎〉 ○ 北韓이 KAL機 爆破事件에 介入되었다는 證據가 드러나더라 도 서울올림픽 參加는 歡迎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 1 金日成 新年辭</p>	<p>〈南北連席會議 소집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올해의 朝鮮半島 情勢를 결정적으로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에 有利하게 전환시키려는 念願으로부터 출발하여 올해 안으로 다음과 같은 問題를 시급히 解決할 것을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스포리트 合同軍事演習을 비롯한 大規模的인 軍事演習을 中止할 데 대한 問題 - 多國的 軍縮會談을 마련하는 問題 - 第24次 올림픽競技大會를 北과 南이 共同으로 主催할 데 대한 問題 - 互相 誹謗·中傷을 中止할 데 대한 問題 ○ 以上の 몇가지 當面한 問題 해결을 위해 雙方의 當局者들을 포함한 諸政黨·社會團體 代表들과 各界 人士들이 참가하는 北南連席會議를 소집할 것을 提議함.
<p>1988. 1. 12 北韓 올림픽委員 會 聲明</p>	<p>〈88서울올림픽 不參宣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南朝鮮이 단독으로 強行하려는 올림픽競技에는 參加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現條件에서 제24차 올림픽競技大會 參加申請은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北南連席會議가 열려 올림픽共同主催問題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진다면 그때에 올림픽競技와 관련한 우리의 立場을 再檢討할 수 있을 것임.
<p>1988. 1. 14 南北連席會議 北側準備委員長</p>	<p>〈南北連席會議 소집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 기어이 民族的 和解와 團合의 새 轉機를 마련하려는 本 聯合會議의 결의를 反映하여 당신들에게 北南連席會議를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 15 李雄熙 政府代 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KAL機事件 謝過 및 對話雰圍氣 조성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當局은 南北連席會議 개최를 提議하고 나섰으나 그와 같은 偽裝된 對話提議로 그들이 저지른 反民族的 殺人行爲가 결코 糊塗될 수는 없음. ○ 北韓이 진실로 南北對話를 원한다면 民族的 良心으로 되돌아와 이번 事件의 잘못을 是認하고 公開謝過하는 한편, 責任者를 處罰하는 것이 對話雰圍氣의 造成에 무엇보다도 重要함을 強調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허담, 對南書翰 * 1. 13 中央人 民委, 政務院, 諸政黨·社會團 體 聯合會議 에서 採擇</p> <p>1988. 1. 15 朝鮮中央通信社 聲明</p>	<p>提議하는 이 便紙를 보냄.</p> <p>一 議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 등 대규모 軍事演習 中止問題 • 多國的 軍縮會談 마련 問題 • 第24次 올림픽 共同主催 문제 • 其他 北南사이의 和解·圓合 및 緊張緩和 관련 問題 <p>一 參席範圍 : 北南當局者, 政黨·社會團體 代表, 各界人士</p> <p>一 場所 : 平壤·서울 윤번제 開催</p> <p>一 時期 :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p> <p>○ 同會議 召集을 위한 豫備會議 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構成 : 雙方當局과 諸政黨·社會團體의 委任을 받은 5~7名의 代表 一 代表의 級 : 當局代表는 部長(長官)級, 政黨·社會團體 代表는 副責任者級 一 日時 및 場所 : 1988. 2. 19, 板門店 <p>* 各계인사 49명 앞으로 발송</p> <p>〈KAL機事件 是認·謝過 거부〉</p> <p>○ 우리는 南朝鮮통치배들의 搜查結果 發表니, 聲明이니, 非常軍務會議니 하는 것은 對話否定·和解否定·平和否定的 對決宣言으로 認定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88. 1. 19 朴世直 서울올림픽組織委員會 위원장, 記者 會見	<서울올림픽 北韓參加 門戶開放> ○ 北韓의 서울올림픽 參加問題와 관련, 우리측은 IOC憲章 精神을 살려 계속 門戶를 開放할 것임.
1988. 2. 7 金雲龍 서울올림픽組織委 副 委員長, 記者 會見	<서울올림픽에 北韓參加 促求> ○ 우리는 北韓이 서울올림픽 不參決定(88. 1. 12, 北韓올림픽委 聲明)을 翻覆하기를 希望함. - 北韓 및 일부 同調國家들의 서울올림픽 參加問題는 IOC側에 一任
1988. 2. 12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	<1. 13자 對南書翰 傳達사실 通報> ○ 貴側의 1. 13자 便紙는 우리側 當事者들에게 이미 傳達하였음. ○ 우리 政府代辯人은 지난 1. 15聲明을 통해 政府當局의 立場을 밝힌 바 있으며 그 밖의 回信은 없음.
1988. 2. 15 盧泰愚 大統領 當選者, 日本	<北韓과의 對話 門戶개방> ○ 우리는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해 KAL機 事件에 拘碍됨이 없이 南北對話의 門戶를 開放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2. 9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電通文</p>	<p><1. 13字 對南書翰 전달여부 通報要求></p> <p>○ 우리側의 1. 13부 便紙를 當事者들에게 傳達했는지 與否를 속히 알려주기 要望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2. 20 南北連席會議 北側準備委員會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連席會議 소집提議 호응促求〉</p> <p>○ 南朝鮮當局者들은 이제라도 對話否定的·平和否定的 立場을 버리고 우리의 北南連席會議 소집提議에 지체없이 肯定的인 呼應을 보여야 함.</p> <p>* 1. 14에 提議한 豫備會議개최 日字(2. 19)經過 關聯</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協議會(KNCC) 제 37 회 總會,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韓 國基督教會 宣 言」</p> <p>1988. 3. 1 盧泰愚 大統領, 3.1節 記念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의 재결합 및 자유로운 故鄉訪問 허용 - 家族이나 親戚의 특수한 前歷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폐지 ○ 분단극복을 위한 國民參與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問題관련 정보공개, 統一政策 결정에의 국민들 참여, 統一問題관련 활동 보장 ○ 思想·理念·制度를 초월한 民族的 大團結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理念과 體制를 인정 - 상호 交流·訪問·通信개방 - 언어·역사·지리·스포츠 등의 교류를 통해 民族同質性을 回復 ○ 남북한 緊張緩和와 平和增進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대체 및 不可侵條約체결, 駐韓 美軍撤收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 軍事力減縮·核武器撤去 등 실현 ○ 民族自主性의 실현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의 協商이나 會談에 있어서 民族自主性·主體性을 견지하고, 國際聯合 및 同盟國들과의 協約에 있어 남북한 共同利益을 우선적으로 고려 <p>〈서울올림픽에 北韓同胞 參與歡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에 北韓同胞들이 모든 政治的 主張들을 접어두고 參與하면 같은 同胞·兄弟로서 누구보다 歡迎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3. 8 南北連席會議 北側準備委員長</p>	<p>〈南北連席會議 예비회의 開催促求〉</p> <p>○ 南朝鮮當局의 反對話 · 反平和的인 그릇된 態度로 말미암아 北南</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3. 29 서울大 總學生 會長 立候補者, 「金日成大學 青 年學生들에 보 내는 公開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學生會談 提議〉</p> <p>○ 다음 사항을 推進하기 위해 6.10 板門店이나 第3國(제네바)에서 實務會談을 開催할 것을 제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의 青年學生들이 8.1부터 8.14까지 각각 漢拏山과 白頭山을 出發, 「國土縱斷巡禮大行進」을 벌인 뒤 板門店에서 만나 「大同祭」를 거행 - 9.15와 9.17 사이 서울大와 金日成大중 한 곳에서 「南北韓 青年學生 體育大會」를 개최 <p>* 1988. 4. 19까지 回答要望</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허담, 對南書翰	<p>連席會議 豫備會議가 예정된 날짜에 열리지 못한 것은 遺憾임.</p> <p>○ 南側이 “對話의 門은 언제 어느곳에서나 열려 있고 軍事分界線에서도 和解의 畚을 가져오자”고 한 말이 진심이라면 北南連席會議 提案을 받아들이지 못할 理由가 없음.</p> <p>○ 우리는 北南連席會議를 위한 豫備會議를 3. 28 板門店에서 加질 것을 다시금 提議함.</p> <p>* 各계인사 47명 앞으로 발송</p>		
<p>1988. 3. 30 南北連席會議 北側準備委員會 事務長 談話</p>	<p>〈南北連席會議 예비회의 召集日字 南側에 一任〉</p> <p>○ 南朝鮮當局者들은 北南連席會議 소집을 위한 豫備會議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北南關係를 더욱 惡化시킨데 대하여 應당한 責任을 져야 함.</p> <p>○ 北南連席會議 北側準備委員會는 두번째 豫備會議 提議마저 實現될 수 없게 된 形편에서 豫備會議 소집날짜를 定하는 問題를 南朝鮮側에 一任키로 決定하였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4. 4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中斷된 赤十字會談재개 呼應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의 南北關係狀況으로 볼 때 貴側이 要請한 그와 같은 類의 便紙傳達행위의 되풀이는 健全한 南北關係改善에 하등 無益함. ○ 나는 貴下가 赤十字人道主義 事業과 南北關係 改善에 眞正으로 關心이 있다면 中斷된 赤十字會談 再開에 呼應해 오는 態度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4. 2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電通文</p>	<p>- 南朝鮮의 當局과 諸政黨·社會團體 및 各界人士들이 우리의 이 措置에 시급히 적극적 呼應을 보일 것을 期待</p> <p>〈南北學生會談 관련 便紙전달〉</p> <p>○ 金日成綜合大學 學生委員會와 總長의 要請에 따라 서울大學校 總學生會와 總長에게 보내는 便紙를 傳達하기 위하여 88. 4. 4 午後 3時, 2名의 連絡員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보내니 相應한 措置를 希望함.</p>
<p>1988. 4. 4 金日成綜合大學 學生委員會, 「서울大 總學生 會에 보내는 便 紙」 * 放送公開</p>	<p>〈南北學生會談 찬동, 板門店개최 提議〉</p> <p>○ 金日成綜合大學과 서울大 學生代表間의 6.10 實務會談開催 提議에 全的으로 贊同하며 會談場所는 板門店이 좋음.</p> <p>○ 實務會談에서 다음 問題를 協議하자는데 同意함.</p> <p>- 8. 1~8.14 國土縱斷大行進 進行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에서는 白頭山에서 板門店까지 • 南에서는 漢拏山에서 板門店까지 <p>- 9.15~9.17 두 大學中 한곳에서 體育大會 開催 問題</p> <p>- 必要하다면 其他問題도 함께 協議</p> <p>○ 北側 會談代表團은 金日成綜合大學 學生委員長을 團長으로 하여 10名內외의 男女學生들로 構成할 것을 豫見하고 있음.</p>
<p>1988. 4. 7 朝鮮基督教徒聯 盟 中央委, 「南 朝鮮 基督教人</p>	<p>〈KNCC宣言 支持 및 連帶투쟁 煽動〉</p> <p>○ 南朝鮮의 基督教教會協議會가 2. 29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관한 基督教會 宣言을 採擇·公布한 것은 自主와 民主, 平和와 統一의 거센 潮流를 反映한 愛國宣言이며 救國宣言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4. 21 盧泰愚 大統領, 記者會見</p>	<p>〈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協力時代 開幕 宣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가장 效果的인 方法은 南北韓最高責任者間의 頂上會談을 개최하는 것임. ○ 在任中 南北協力時代를 열어 平和統一의 기틀을 다질 것임을 천명함.
<p>1988. 5. 14 「全國大學生 代表者協議會」 주 최 集會 (高麗大)</p>	<p>〈南北學生 實務會談개최 위한 具體的 방안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의 學生이 板門店에서 만나 다음의 4가지 案件을 論議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學生 國土縱斷巡禮大行進 및 體育大會 開催 - 離散家族의 相互交流 - 南北學生의 相互交流 - 올림픽을 民族和合의 祭典으로 치르는 問題(88올림픽 共同開催) 등 ○ 6. 5가지 地域別로 2名씩 12名으로 代表團을 構成함. ○ 會談日時は 6. 10 午後 3時로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들에게 보내는 호소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같이 北南連席會議 소집을 高唱하며 그 實現을 위해 힘차게 떨쳐 나서자 - 北南學生會談을 가지자는 靑年學生들의 主張에 支持를 表示하고 그들의 의로운 行動을 적극 도와주자 <p>○ 우리는 朝鮮의 平和와 統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힘을 합칠 用意가 있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88. 5. 19 金相浹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 電通文	〈南北學生會談관련 북측便紙 접수연기 通報〉 ○ 貴下의 5. 18字 電通文에 대한 회답은 追後 通報할 것임을 알림.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5. 17 全國大學生聯合大會, 「南朝鮮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便紙」 * 放送公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學生會談 지지·찬동 및 北側準備委員會 구성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오는 6. 10 午後 3時, 板門店에서 北南學生會談을 가지자는 그대들의 提議에 同意하면서 南側 學生代表團의 規模에 상응한 12명의 代表를 파견할 것임. ○ 우리는 또한 北南學生會談에서 國土縱斷大行進과 南北青年學生體育大會 개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青年學生들의 交流, 올림픽共同主權문제를 討議할 데 대한 그대들의 意見도 贊成함. <p style="text-align: center;">* 北南學生會談 北側準備委員會 構成</p>
<p>1988. 5. 18 北韓赤十字會委員長 손성필,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學生會談 북측準備委의 便紙 전달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北南學生會談 北側準備委員會의 要請에 따라 「南朝鮮 大學生들에게 보내는 便紙」를 貴側 해당단체에 傳達하고자 함. ○ 이와 관련 우리側에서는 2名の 連絡員이 5. 20 午前 10時,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나가게 되므로 貴下가 이에 상응한 措置를 책임적으로 취해주기를 希望함.
<p>1988. 5. 20 南北學生會談 北側準備委員會</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學生會談 실현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南朝鮮側이 便紙를 전달해주지 않으려는 조건에서 不得已 放送으로 便紙를 전달하면서 南北의 學生들이 서로 發起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5. 24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中斷된 南北赤十字會談 再開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지난 4. 4日 電通文에서 그러한 便紙 전달행위가 南北關係 改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 ○ 貴側이 南北學生會談과 같은 問題에 關心을 갖기보다는 中斷된 南北赤十字會談 再開와 같은 赤十字 本然의 任務에 應당한 關心을 돌리기를 期待함.
<p>1988. 5. 31 李賢宰 國務總 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書翰전달 위한 連絡官 파견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書翰을 傳達하기 위하여 88. 6. 3 午前 10時, 2名의 連絡官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보낼 것임. - 이 書翰을 받아갈 連絡官 派遣을 要望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6. 2 鄭漢模 政府代 辯人, 記者會見</p>	<p>〈統一論議관련 政府의 立場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問題에 관한 論議를 적극 開放하고 北韓 및 共產圈 關係 資料를 積極적으로 開放·擴大하겠음. ○ 對北提議나 接觸窓口는 國家的 次元에서 政府로 一元化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를 제쳐놓고 직접 北韓側을 상대로 對北提議나 接觸을 하려 는 것은 건전한 統一論議와 실질적 南北關係改善에 無益 ○ 南北間에 政治人·經濟人·言論人·文化藝術人·體育人·學 者 및 學生 등 各界人士들間 人的交流과 함께 物的交流의 實 現을 위해서도 政府는 꾸준히 努力할 것임.
<p>1988. 6. 3 李賢宰 國務總 理, 對北書翰 * 放送公開</p>	<p>〈南北高位當局者會談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平和統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不信을 조속히 제거하면 서 平和統一의 基盤을 다져나가기 위해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의 開催를 正중히 提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談形式: 南北高位當局者會談 - 代表團 構成: 閣僚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5名以內의 代表 - 會談議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올림픽에 南北이 함께 參加하는 問題 • 政治人·經濟人·言論人·宗教人·文化藝術人·體育人· 學者 및 學生 등의 人的交流 實現問題 • 赤十字·經濟·國會會談 등 기존대화 再開周旋 問題 • 그밖에 雙方이 提起하는 問題 - 會談時期: 1988年 6月中(1次會談) - 會談場所: 서울 또는 平壤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6. 2 政務院總理 리 근모, 對南電通 文</p>	<p>〈國務總理의 對北書翰 접수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下가 우리에게 便紙를 보내기에 앞서 우선 北南連席會議 提 案을 담은 우리의 두차례 便紙에 대한 公式的 回信을 보내와 야 함. - 우리側 大學總長과 大學生들의 便紙를 當事者들에게 傳達하 는 責任도 이행 ○ 나는 貴側이 우리側에 보내주어야 할 回答便紙를 보내오고 傳 達해야 할 便紙를 傳達하는 義務를 履行한다면 互相性的 原則 에서 貴下의 便紙를 받을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6. 9 李洪九 國土統 一院長官 聲明</p>	<p>〈南北高位當局者會談에서 學生交流問題 우선적 協議용의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北韓當局이 南北學生交流에 原則적으로 同意하고 있는 점에 留意하여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열어 다음과 같은 問題 들을 우선적으로 協議할 것을 北韓側에 提議함. - 南北學生交流의 內容·方法 - 南北往來節次 - 身邊安全保障 問題 - 各種 便宜提供 問題 ○ 北韓當局이 南北韓 責任있는 當국간의 對話에 조속히 呼應해 나오기를 거듭 促求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6. 6 南北連席會議 北側準備委員會 聲明</p>	<p>〈南北連席會議 豫備會議 형식으로 南北高位當局者會談 考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連席會議가 소집되면 이會議에서 南朝鮮當局者들이 協議 하자고 하는 問題도 다 풀릴 수 있으며, 中斷된 會談 再開문제도 解決될 것이며 人的交流도 저절로 實現될 것임. ○ 問題는 온 民族의 代表들이 參加하는 北南連席會議와 같은 幅 넓은 協商마당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見地에서 南朝鮮當局者들의 提議(南北高位當局者會談)는 北南連席會議 준비의 一環으로서 考慮할 用意가 있음.
<p>1988. 6. 8 南北學生會談 北側準備委員會 聲明</p>	<p>〈南北學生會談 開催 保障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當局者들이 對話할 意思가 있다면 北南學生會談을 妨害할 것이 아니라 成果的 開催를 위해 모든 條件을 保障해 주어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6. 10 崔伉洙 外務部 長官, 第3次 유 엔軍縮特別總會 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軍縮 3단계 接近方案 제시〉</p> <p>○ 韓半島 軍縮을 향한 3段階 接近方案을 提示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南北韓間의 조속한 對話再開와 후속 接觸 및 協力の 擴大를 통하여 相互信賴를 構築하여야 함.(南北韓間의 緊張 緩和) - 둘째, 敵對行爲의 再發을 防止하기 위한 制度的 保障裝置로 서 南北韓은 不可侵協定의 締結에 合意하여야 함.(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이 確保) - 셋째, 그런 다음 南北韓은 韓半島 軍縮이라는 目標을 達成 할 수 있는 具體的 措置에 관하여 協商할 수 있을 것임. <p>○ 本人은 南北韓 責任있는 當局間의 閣僚級會談 開催와 관련한 우리측 國務總理의 6.3字 提議에 北韓이 肯定的으로 호응하기를 強力히 促求함.</p>
<p>1988. 6. 10 「全大協」 등 9 個團體 共同主 權, 「6.10 南北 學生會談 報告 大會 및 共同올 림픽 爭取 汎國 民大會」 (延世大)</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學生會談 8.15 開催 제의〉</p> <p>○ 8.15 午前 10時, 板門店에서 南北學生會談을 開催하여 다음 議題를 토의할 것을 제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和解를 위한 南北 및 海外同胞의 國土巡禮大行進(8.8~8.14) - 統一大討論會 및 大同祭(8.14 午後, 臨津閣) <p>* 올림픽共同開催를 위한 全民衆의 「共同올림픽 爭取本部」를 南과 北, 海外에 設置</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6. 10 南北學生會談 北側代表團長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學生會談 실현위한 鬭爭 선동〉</p> <p>○ 北側學生代表團은 板門店 北南學生會談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鬭爭할 것이며, 南朝鮮 청년학생들과의相逢의 그날을 기어이 爭取할 것임.</p>
<p>1988. 6. 13 全國大學生聯合</p>	<p style="text-align: center;">〈8. 15 南北學生會談에 北側代表團 파견表明〉</p> <p>○ 우리는 오는 8. 8부터 白頭山에서 板門店까지 國土縱斷大行進</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13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文教部長官 書翰 전달 通報〉</p> <p>○ 文教部長官의 書翰을 전달하기 위해 88. 7. 15 午前 10時, 2名의 連絡官을 板門店에 내보낼 것이니 相應한 措置를 바랍.</p>
<p>1988. 7. 13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赤十字 실무회의 開催제의〉</p> <p>○ 나는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시급히 덜어주기 위해 中斷된 南北赤十字會談을 하루속히 開催할 것을 다시한번 促求함.</p> <p>○ 나는 다음과 같은 事業들은 本會談이 아닌 實務的 協議만으로도 可能하리라는 점에서 南北赤十字 實務會議를 貴側이 希望하는 날짜에 開催할 것을 提議함.</p> <p style="text-align: center;">- 議 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11 祖國平和統一委 員會 聲明</p>	<p>〈7.7 特別宣言 비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特別宣言은 永久分裂案인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의 交叉接觸案을 文句와 表現을 바꾸어 脚色한 낯은 文書의 變種에 不過함. ○ 統一問題는 7.4共同聲明의 祖國統一 3大原則에 기초하여 解決 되어야 하며 緊張狀態 解消를 위한 軍縮부터 實現되어야 함. ○ 南朝鮮當局者들이 진심으로 對話와 統一을 원한다면 8.15學 生會談의 條件을 保障해야 함. ○ 우리는 南朝鮮當局者들이 北과 南을 진짜 共同體로 보려 한다면 第24次 올림픽競技를 單獨으로 開催하려 할 것이 아니라 共同으로 主催할 勇斷을 내리는 것으로써 그 眞實性을 보여주 어야 한다고 認定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15 金永植 文敎部 長官, 對北書翰 * 放送公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의 生死·住所 확인通報 • 離散家族의 書信交換 周旋 • 海外居住 離散家族의 生死·住所확인, 書信去來, 相逢周旋 • 第2次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年內) <p>— 時 期 : 1988. 7. 30 以內</p> <p>— 場 所 : 板門店</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學生交流 실현을 위한 南北敎育當局會談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間의 學生交流는 매우 뜻있는 일이며 다른 分野 交流實現의 觸媒劑가 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함. ○ 南北學生交流 推進問題의 協議·解決을 위한 南北敎育當局會談 開催를 提議함. <p>— 時期 및 場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時期 : 7. 30以內 北韓側이 希望하는 날짜 • 場所 :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p>— 代表團 構成 : 雙方 각기 次官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5名의 代表</p> <p>— 議 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14 政務院 教育委 員長 변영립, 對南電通文</p>	<p>〈文教部長官 서한 接受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이 오늘에 와서 우리보고 便紙를 받아가라고 하는 것은 常識에 어긋나는 處事임. ○ 當局이 할 일이란 北과 南의 學生들이 만나 會談도 하고 體育大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便宜·條件을 잘 保障해 주는 것 뿐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16 崔尙洙 外務部 長官 發表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學生 祖國巡禮大行進 추진問題 • 南北學生 親善體育競技大會 交換開催問題 • 南北學生交流 추진과 관련된 問題 <p>〈7.7 特別宣言관련 外交施策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4項：友邦의 對北韓交易 不反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日 等 友邦國의 對北韓 非軍事的 物資交易 不反對 - 友邦과 北韓間의 交易·商談목적 民間人 往來 不反對 - 上記 目的을 위한 友邦의 對北韓 民間人商社 支社·支店 設치에 不反對 ○ 第5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外交對決 終熄] - 北韓의 國際社會에서의 地位인정 및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參與하는 데에 協力 - 北韓과의 外交競爭 止揚 및 北韓의 非同盟 第3世界國家와의 關係正常化에 不反對 - 北韓에 대해 外交舞臺에서의 中傷·誹謗 등 論爭 止揚 促求 - 北韓의 유엔機構 및 政府間 地域協力·開發機構 加入에 協力 - 北韓의 각종 國際行事 參加 歡迎 [國際舞臺에서 相互協力] - 國際會議에서 南北代表의 接觸·對話 및 其他行事에서도 接觸·對話 - 同時 公館設置 國家에서 南北外交官의 接觸·對話 推進 ○ 第6項：北韓의 美·日 등과의 關係改善 協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日 등 友邦의 對北韓 民間交流 不反對 및 協調 用意 • 美·日外交官의 第3國 및 中立的 環境에서 北韓外交官과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16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赤十字 실무회의 開催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赤十字會談은 貴側 當局의 反共對決 政策과 戰爭소동으로 中斷되었음. ○ 우리는 北南連席會議가 조속히 召集되어 赤十字會談의 再開를 가로막는 諸般要因들이 除去되기를 期待함. ○ 貴側이 人道的 問題를 解決할 意思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北南連席會議 召集에 共同의 努力을 傾注하여야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19 大韓赤十字社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의 接觸·對話 不反對</p> <p>— 上記 措置에 상응하게 우리의 北方政策추진에 대한 北韓의 協力 促求</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赤十字會談 再開촉구〉</p> <p>○ 北韓赤十字會側이 北韓當局의 立場만을 代辯하여 南北連席會議 소집 云云한 것은 納得하기 어려움.</p> <p>○ 大韓赤十字社는 北韓赤十字會側이 하루속히 赤十字人道主義 精神과 同胞愛의 立場으로 돌아와 南北赤十字會談을 즉각 再開하 고 1천만 南北離散家族들의 자유왕래와 서신교환 등을 實現시 키는데 呼應해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p>
<p>1988. 7. 19 崔兪洙 外務部 長官 發表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韓방문 海外同胞의 身邊安全保障을 위한 南北韓 關係當局 會談 提議〉</p> <p>○ 南北韓을 訪問하는 海外同胞들의 身邊安全保障에 관하여 南北 韓 關係當局間에 協議할 것을 北韓側에 提議함.</p> <p>○ 우리의 門戶開放 조치와 관련하여 北韓當局도 海外同胞들이 北</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17 政務院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教育當局會談 開催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生交流는 當事者들인 그들이 協議・解決할 問題이지 當局이 말아야 할 性格의 問題가 아님. ○ 當局은 오직 學生들이 自己問題를 성과적으로 解決하도록 필요한 條件이나 保障해주면 되는 것임. ○ 學生交流와 관련하여 提起되는 各種 便宜提供과 身邊安全保障 問題와 관련된 解決을 위해 구태여 따로 會談할 必要가 없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20 文教部 代辯人 論評</p>	<p>韓을 자유로이 訪問할 수 있도록 相應한 開放措置를 취할 것을 促求함.</p> <p>〈南北教育當局會談 수락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側이 굳이 일부 學生들을 相對로 하는 學生會談을 고집하면서 學生交流와는 직접 關係가 없는 問題들을 들고 나오는 것은 學生會談을 政治的 煽動 目的에 利用하려는 處事임. ○ 北韓側이 진심으로 平和統一의 基盤構築을 위한 南北間 人的 交流를 원한다면 南北教育當局會談을 즉시 受諾할 것을 促求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21 最高人民會議, 「大韓民國 國會 에 보내는 便 紙」 * 7. 20字</p>	<p style="text-align: center;">〈不可侵問題 해결위한 南北國會連席會議 개최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北南連席會議가 소집되기 전이라도 北南사이에 不可侵問題를 解決하는 會談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會談으로서 이미 우리側이 提議한 바 있는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妥의를 豫見한 北南國會會談이 가장 適切한 會談임. ○ 北南國會會談은 여러가지 形式으로 할 수 있겠지만 豫備接觸 없이 직접 北의 最高人民會議 代議員과 南의 國會議員들의 連席會議가 合理的임. ○ 北南國會連席會議에서 討議하려는 問題의 重大性으로 보아 이 會議에 다른 政黨·團體代表들과 各界人士들도 參加시키는 것이 좋을 것임. - 討議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과 南의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하는 問題 • 南側이 提起하는 緊張狀態완화 및 平和保障에 有益한 問題 - 運營方式

☑ 1988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되 雙方 國會議長들이 共同議長 ● 平壤 開催時는 最高人民會議 議長, 서울 開催時는 南側 國會議長이 司會 ● 會議에서의 討論은 上程된 問題에 대하여 모든 參席者들이 자유롭게 進行 ● 議決方法은 北側 代議員 數를 南側 國會議員 數와 對等하게 하고 投票·舉手方法을 配合,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 <p>一 開催場所·時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과 서울에서 輪番制 개최 ● 8月中 第1次 北南國會連席會議를 平壤에서 開催 <p>○ 不可侵問題의 討議를 成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協議의 基礎로 될 「北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草案을 同封함.</p> <p>[共同宣言 內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떠한 경우에도 相對方을 反對한 武力 不使用, 武力으로 相對方 不侵害 ② 完全한 統一時까지 相互 意見相異와 紛爭問題들을 對話·協商을 통해 平和的으로 解決 ③ 相對方에 대한 外國의 侵略이나 武裝간섭행위에 不加擔, 不協調 ④ 不可侵의 境界線은 軍事停戰協定에 규정된 軍事分界線 ⑤ 互相 武力을 段階的으로 縮小하며 이와 並行하여 朝鮮半島 駐屯 外軍·核武器 단계적 撤去 ⑥ 現 非武裝地帶를 緩衝地帶로 하고 非武裝地帶에 中立國監視軍 駐屯 ⑦ 北南 不可侵宣言은 각기 他國과 締結한 條約·協定에 制約을 받지 않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8. 1 金在淳 國會議 長, 對北書翰</p>	<p>〈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提議〉</p> <p>○ 南北國會會談을 8월중에 成事시키기 위한 準備接觸을 제의함.</p> <p>— 代表 : 各各 15명</p> <p>— 時期 : 8월 둘째주 중</p> <p>* 日時는 북측에 一任</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7. 26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장 양형섭, 對南書 翰</p>	<p>〈南北國會連席會議에서 올림픽共同主催案 토의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國會가 第24次 올림픽競技大會를 民族的 和解와 團合,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을 위한 契機로 利用하고자 한 것은 多幸스러운 일임. ○ 우리는 이러한 立場으로부터 北南國會連席會議를 올림픽競技大會가 시작되기 전인 8月안으로 召集하고, 여기에서 貴側이 우리를 招請한 問題와 우리의 올림픽共同主催案을 동시에 緊急議題로 討議할 것을 提議함.
<p>1988. 8. 9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장 양형섭, 對南書 翰</p>	<p>〈南北國會連席會議 준비를 위한相逢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國會連席會議를 소집하려는 一念으로부터 남측이 北南國會들 사이에 會談을 가지는데 原則적으로 同意한 사실에 留意하고 다음과 같이 남측과의 連席會議 준비를 위한相逢에 나가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時 : 1988. 8. 17, 10:00 - 場 所 : 板門店 북측지역 「統一閣」 - 代表數 : 3~5명의 國會議員 - 議 題 : 北南國會連席會議 제 1 차회의를 平壤 또는 서울에서 8. 26부터 開催할 데 대한 問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8. 12 金在淳 國會議 長, 對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國會會談 준비를 위한 接觸日字 修正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國會會談의 준비를 위한 南北國會議員들간의 접촉을 다음 과 같이 갖기를 希望함. <li style="padding-left: 2em;">- 日時 : 1988. 8. 19 11:00 <li style="padding-left: 2em;">- 場所 : 板門店 북측지역 「統一閣」 ○ 이 接觸에서 議題, 會談의 형태, 代表團 構成, 會談日時·場 所, 기타 實務節次問題를 協議·決定할 수 있을 것임.
<p>1988. 8. 15 盧泰愚 大統領, 제 43주년 光復 節 慶祝辭</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김일성主席에게 6천만동포의 念願에 따라 民族의 統合 을 실질적으로 推進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時日안에 會談할 것을 제의함. ○ 民族의 將來問題를 허심탄회하게 論議하는 데 있어 場所·議 題·節次 그 어느 것도 障礙要因이 될 수 없을 것임. ○ 이러한 나의 提議에 北韓측이 呼應해음으로써 民族史에 새로 운 章을 열게 되기를 希望함.
<p>1988. 8. 17 金在淳 國會議 長,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團 名單등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首席代表 : 朴浚圭(民主正義黨) ○ 代 表 : 李漢東(民主正義黨) <li style="padding-left: 2em;">代 表 : 金瑋鎬(平和民主黨) <li style="padding-left: 2em;">代 表 : 朴寬用(統一民主黨) <li style="padding-left: 2em;">代 表 : 金龍煥(新民主共和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8. 17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장 형섭, 對南書</p>	<p>〈南北國會連席會議 준비를 위한相逢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의 8. 12부 回答便紙에서 北南連席會議 준비를 위한相逢 날 짜를 우리측이提起한 8. 17 대신 8. 19로 修正提議한 사실에 留意하였음. ○ 北南國會連席會議에서 不可侵問題와 올림픽문제를 討議·解決하 려는 念願으로부터 8. 19 5名의相逢代表와 3名의隨員을 판 문점「統一閣」에 내보내겠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8. 19 南北國會會談 제1차 準備接觸 (판문점 「統一 閣」)</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形式：國會代表會談 ○ 代表團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雙方 각기 代表 20명, 支援人員 40명, 取材記者 50명 - 首席代表는 議長이 지명하는 重鎮議員 ○ 議 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北韓側 選手들의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參加問題 ② 南北間의 人的・物的 交流와 協力을 촉진하는 문제 ③ 南北當局間의 不可侵協定 체결을 勸告하는 문제 ④ 南北赤十字會談・南北經濟會談 再開를 促求하는 문제 ⑤ 南北頂上會談의 개최를 勸告하는 문제 ○ 場所・時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次會談：8월중 平壤 - 2次會談：10월중 서울 ○ 會談運營 節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雙方 5명의 代表로 幹事會議 構成・運營 - 往來節次 등 제반 실무절차 문제는 과거 남북왕래의 선례 準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8. 18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議長 양형섭, 對南電 通文</p>	<p>〈代表團 名單등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 長 : 진금철(조선로동당) ○ 代 表 : 안병수(조선로동당) 代 表 : 리동철(조선로동당) 代 表 : 리주옹(조선사회민주당) 代 表 : 박문찬(천도교청우당)
<p>1988. 8. 19 南北 國會會談 제1차 準備接觸 (판문점 「統一 閣」)</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形式 : 國會連席會議 ○ 代表團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國會議員 전원과 政黨 · 團體代表와 各界人士 50명, 隨 員 20명 - 쌍방 國會議長이 共同議長 ○ 議 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하는 문제 -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 問題 - 그밖에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平和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南側이 제기하는 問題 ○ 場所 · 日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회담 : 8. 26, 平壤 ○ 會談運營 節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3명으로 構成되는 共同資格審査委員會에서 參加者들에 대한 資格審査 - 連席會議의 효율적 運營을 위해 쌍방 5명으로 構成되는 共 同運營委員會 組織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8. 20 南北國會會談 제2차 準備接觸 (판문점「平和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 實務問題를 다루기 위한 쌍방 實務代表 1명 選定</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形式：國會代表會談 ○ 議 題 <p style="text-align: center;">[修正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問題 ② 南北間 人的·物的 交流와 協力問題 ③ 南北不可侵問題 ④ 南北赤十字會談·南北經濟會談 再開問題 ⑤ 南北頂上會談 개최문제 <p style="text-align: center;">*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問題만을 우선적으로 協議·解決 하기 위해 南北國會會談을 8. 29 평양에서 開催할 것을 提議</p>
<p>1988. 8. 22 南北國會會談 제3차 準備接觸 (판문점「統一 閣」)</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形式：國會代表會談 ○ 議 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問題 ② 南北赤十字會談·南北經濟會談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8. 20 南北 國會會談 제2차 準備接觸 (판문점 「平和 의 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討論은 모든 會議參加者들이 자유롭게 하되 토론자 數는 南 北 同數 - 議案 가결은 舉手 또는 投票의 방법으로 하며 過半數 이상 의 贊成으로 決定 - 議決에 참가하는 國會議員 數는 南北 同數로 하며 會議議長 은 表결에 不參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形式：國會連席會議 ○ 議 題 [修正案] ① 北南不可侵 共同宣言 발표문제 ②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에 北側을 초청한 問題와 제24차 올 림픽대회를 共同으로 主催하는 問題 ③ 北南間에 多方位적 協力과 交流를 실현하는 問題 <p>* ③항은 ①·②항議題 受諾條件에서만 討議</p>
<p>1988. 8. 22 南北 國會會談 제3차 準備接觸 (판문점 「統一 關」)</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形式：國會連席會議 ○ 議 題 <p>※ 第2次接觸時와 同一</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8. 26 南北國會會談 제4차 準備接觸 (판문점 「平和 의 집」)</p>	<p>人的·物的 交流와 協力問題</p> <p>③ 南北不可侵 문제</p> <p>④ 南北頂上會談 개최문제</p> <p>〈合意事項〉</p> <p>○ 쌍방 首席代表間 접촉 : 日字는 북측이 追後 통보</p> <p>※ 1988. 8. 24,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쌍방 首席代表間 단독 접촉(판문점 「平和의 집」)</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本會談 形式 : 國會代表會談</p> <p>○ 議 題</p> <p>※ 3차 接觸時와 同一</p>
<p>1988. 8. 28 「韓半島 平和와 統一을 위한 世 界大會 및 汎民 族大會 推進本 部」 聲明 * 8. 8 「추진본 부」결성</p>	<p>〈汎民族大會 開催提議 및 韓半島 平和宣言 채택〉</p> <p>○ 88. 9. 17~10. 2 범민족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다음 과 같이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함.</p> <p>〔韓半島 平和宣言〕</p> <p>① 휴전협정은 남북상호 不可侵宣言에 기초하여 平和協定으로 대치되어야 함.</p> <p>② 駐韓美軍은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8. 26 南北國會會談 제4차 準備接觸 (판문점 「平和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p style="text-align: center;">※ 左 同</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形式：南北國會議員들이 同席하는 合同會議 ○ 議 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修正案] ① 北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발표문제 ②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北과 南이 공동으로 主催하는 問題 와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에 복측 選手團을 招請하는 문제 ③ 北南사이에 多方面적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③ 韓半島 핵무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韓半島는 비핵지대로 되어야 함.</p> <p>④ 남북한 상호간의 減軍과 軍縮을 위한 협상이 즉각 시작되어야 함.</p> <p>⑤ 남북민중간의 자주적 交流와 평화통일 意志의 확인과정은 다원화 되어야 함.</p> <p>⑥ 제24차 올림픽은 국민내부의 和解와 民族大團合의 계기가 되어야 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9. 2 北韓올림픽委員 會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올림픽 不參決定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國會議員들의相逢이 結實을 보지 못하고 10월로 미뤄짐으로써 올림픽共同主權 문제는 討議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破綻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올림픽에 參加할래야 할 수 없게 되었음. ○ 우리에게는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은 民族의 將來運命문제가 더 重要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單獨 強行되는 올림픽競技에 절대로 參加할 수 없는 것임.
<p>1988. 9. 8 金日成, 北韓政 權樹立 40주년 慶祝報告大會 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의 實現조건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最高位級會談에서는 不可侵宣言을 채택하고 북과 남의 두 制度를 그대로 두는 條件에서 統一國家의 聯邦政府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한 「平和統一委員會」같은 것을 創設하는 문제가 協議·解決되어야 함. ○ 이 問題들을 해결하여 祖國統一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意思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平壤에 찾아오는데 대해서는 歡迎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9. 22 「民主·統一民衆運動聯合」등 21개 在野團體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開催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월 「韓半島 평화와 통일을 위한 汎民族大會」의 개최가提起되어 9월 올림픽 기간중에 이大會가 개최될 豫定이었으나 內外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遲延되었는 바 다시한번 汎民族大會의 개최를 促求함. ○ 조속한 時日內에 汎民族大會가 개최될 수 있도록 國民大衆의 同參을 促求하면서 北韓·中國·日本·美國·유럽(독일)·사할린 등지의 동포들이 汎民族大會를 위한 事前準備를 進行시켜 줄 것을 促求함.
<p>1988. 10. 4 盧泰愚 大統領, 제144회 定期國會 國政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수락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南北頂上會談 제의(8. 15)에 대해 9. 8 北韓의 金日成 주석이 反應을 보인 것을 注視하며 北韓側이 좋다면 기꺼이 평양을 訪問하여 金日成주석과 만날 것임. ○ 南北韓 頂上會談에서는 不可侵宣言과 조국의 統一實現문제를 비롯하여 쌍방이提起하는 모든 懸案을 아무런 條件없이 허심탄회하게 論議하는 것이 필요함. ○ 오늘의 現實에서 서로 어떠한 條件을 前置하여 對話를 기피하는 것보다 우선 南北의 最高責任者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民族和解와 통일의 出發點을 여는 轉機가 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 문제는 北南最高位級會談이 實現되어 진정한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條件을 成熟시키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南朝鮮當局者들이 外勢依存에서 벗어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全民族的 운동에 合流해 나서야 할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0. 7 羅雄培 副總理 經濟企劃院 長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韓 民間商社 交易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民間商社가 間接交易 형태로 軍事物資를 제외한 南北物資를 반출·반입하는 것을 許容함. <li style="padding-left: 2em;">- 우리 民間商社가 北韓의 物資를 제 3 國으로 輸出하거나 제 3 國 물자의 對北韓 수출을 中繼하는 것을 許容 ○ 北韓의 商標나 原產地表示가 붙은 物資를 들여올 때 이를 때지 않을 것이며 北韓原產地 物資에 대해서는 內國間去來로 간주, 關稅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음. ○ 南北經濟人間의 상호접촉·訪問을 허용하며 특히 北韓경제인이 訪問할 경우 각종 便宜提供과 身邊保障을 약속함. <li style="padding-left: 2em;">- 北韓 船舶이 물자를 싣고 國內入港을 요청할 경우 許容
<p>1988. 10. 13 南北國會會談 제5차 準備接觸 (판문점 「統一 閣」)</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形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閉會모임 : 南北國會議員 全員참석 合同會議 - 議題討議 : 代表會談 ○ 議 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赤十字會談·經濟會談 再開를 포함한 人的·物的 교류와 협력문제 ② 南北不可侵문제 ③ 南北頂上會談 개최문제 ○ 代表 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閉會모임 : 兩側 國會議員 全員 - 議題討議 : 兩側이 合意하는 適正 數 ○ 會談運營 節次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0. 13 南北國會會談 제5차 準備接觸 (관문점 「統一 關」)</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形式：北南國會議員들이 同席하는 合同會議 ○ 議 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발표문제 ② 北南사이에 다방면적 交流와 協力 實施문제 ○ 代表 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의 1/3(218명), 남측 國會議員 1/2(150명) ○ 會談運營 節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側 各 5명으로 「共同運營委員會」구성, 會談節次 論議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0. 14 祖國平和統一委員會 聲明</p>	<p>〈南北頂上會談 실현 條件·雰圍氣造成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南朝鮮當局者가 頂上會談을 위하여 平壤에 을 意思를 表明한 사실에 留意하면서 이를 歡迎할 만한 일이라고 간주함. ○ 最高位級會談에서는 북과 남이 누구의 拘束이나 保證도 받지않고 不可侵宣言을 채택하고 統一國家의 聯邦政府를 세우거나 그 實現을 위한 「平和統一委員會」 같은 것을 創設하는 문제가 協議·解決되어야 함. ○ 最高位級會談을 개최하자면 먼저 條件과 雰圍氣부터 성숙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 및 北南國會連席會議 개최 - 不可侵問題 해결 - 國家保安法과 反共法規 철폐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여 먼저 武力을 使用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宣 言함.</p> <p>○ 東北亞에 지속적인 平和와 繁榮의 公高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 해 美國과 蘇聯, 中國과 日本, 그리고 南北韓으로 「東北亞 平 和協議會議」를 열 것을 提의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0. 19 外交部 第1 副 部長 강석주, 유엔총회 演說 *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平 和·和解·對 話의 촉진」</p>	<p>〈南北頂上會談 先제조건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南朝鮮의 最高位當局者가 不可侵宣稱을 채택하며 祖國 統一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平壤에 오겠다면 歡迎할 것임. ○ 문제는 北南高位級會談이 실현되어 適當한 成果를 거둘 수 있 도록 條件을 성숙시키는데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에서 대화와 統一에 방해로 되는 法은 取消, 우리를 반대하는 大規模의인 軍事訓練은 中止 - 南朝鮮當局者들이 當장 이와 같은 措置를 취하기 어려우면 北南最高位級會談의 충분한 前提를 마련하기 위한 中間걸음 으로서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개최
<p>1988. 11. 7 中央人民委員會 ·最高人民會議 상설회의·政務 院 聯合會議</p>	<p>〈包括的 平和方案 提議〉</p> <p>[平和保障 4原則]</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統一指向：두개朝鮮 反對 및 統一指向 ② 外軍撤收：外軍撤收(주한미군철수)擔保 ③ 南北軍縮：南北軍縮에 대한 保障 ④ 當事者協商：當事者對話(남북한·미국)로 실현 <p>[包括的 平和方案]</p> <p>1. 단계적 美軍武力 철수와 南北軍縮 方案</p>

1988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出 處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 美軍武力의 단계적 撤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武器 撤收 : 1990年末까지 2단계로 進行 ● 駐韓美軍 兵力撤收 : 1991년까지 3단계로 進行 ● 撤收 核武器 등 일체 武器 · 戰鬥技術機材의 對韓國 不讓渡 <p>(2) 南北武力의 단계적 減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兵力減縮으로 武力均衡유지 : 1991年末까지 3단계로 進行 ● 兵力減縮에 상응한 軍事裝備 단계적 減縮 ● 武力減縮 개시후 6개월내 民間軍事組織 解體 <p>(3) 美軍撤收와 南北武力減縮에 대한 通報와 檢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軍武力 撤收정형에 대해 美國은 북측에 通知하고 南北武力 減縮정형은 南北이 상대측에 通知, 내용公開 ● 「中監委」의 權능을 擴大하여 美軍武力 撤收정형과 南北武力 減縮정형을 위한 檢證 進行 <p>(4) 段階的인 美軍武力 撤收와 南北武力 감축문제 協議 · 解決을 위한 3者會談 進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責任있는 當事者들의 회담으로 南北韓과 美國이 참가하는 3者會談을 進行하며 3者會談 테두리내에서 雙務會談도 가능 ● 3者會談에서는 檢證問題, 「中監委」權能擴大문제의 토의를 위해 「中監委」成員國 代表들이 방청으로 참가 ● 美軍武力撤收와 南北武力감축의 合意에 기초, 이를 美 · 北韓 間의 平和協定과 남북간의 不可侵宣言으로 確認 · 固着 <p>2. 南北間 당면한 政治 · 軍事的 大결상태 緩和方案</p> <p>(1) 政治的 大결상태 緩和</p> <p>① 상호 誹謗 · 中傷 중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指名攻擊 ● 思想과 制度 비방 · 中傷

1988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1. 16 政務院總理 리근모, 對南書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吽라살포 및 休戰線放送 등 ② 상대방을 非難하고 對決을 고취하는 政治行事 중지 및 상대방 體制를 否定하는 法規 철폐 ③ 多방면적 合作·交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黨·團體 및 個別人士들의 쌍무적·다무적 接觸과 자유로운 人士來往 • 資源의 共同開發·利用 및 商品交流 • 敎育·과학기술·문화예술·보건·체육의 協力·交流 • 國際舞臺에서의 對決·競爭止揚과 共同協力 (2) 軍事的 大결상태 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監委」成員國 군사인원으로 조직된 中立國監視軍 配置 ② 大 규모 軍事演習 中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聯合部隊 이상 군사훈련 및 外國軍과의 합동 군사연습 中止 ③ 軍事分界線 일대 陸·海·空에서의 일체의 軍事行動 중지 ④ 偶發的 충돌사건의 擴大防止를 위한 高位軍事當局者間的 직통전화 架設 (3) 北南間 당면한 政治·軍事的 大결상태 緩和를 위한 北南高位級 정치·군사회담 進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지로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實權을 가진 高位級 政治·軍事代表 참가 •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테두리안에서 高位級 政治會談과 軍事會談 별도개최 可能 <p>〈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提議〉</p> <p>○ 北南間 정치·군사적 對決狀態를 완화할 對策을 협의하기 위</p>

☑ 1988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한 북남고위급 政治·軍事會談 개최를 提議함.</p> <p>- 代表團 : 副總理級을 단장, 軍總參謀長級을 부단장으로 하여 7~9명 정도의 實權있는 고위급 政治·軍事代表들로 구성</p> <p>- 時期·場所 : 1988. 12월 중순경, 판문점 북측지역 「統一閣」</p> <p>- 議 題 : 「北南 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 대결상태 緩和方案」</p> <p>(1) 政治的 對決狀態 緩和</p> <p>① 상호 誹謗·中傷 중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指名攻擊 • 思想과 制度 비방·중상 • 毗라살포 및 休戰線放逐 등 <p>② 상대방 非難·對決 고취하는 政治行事 중지</p> <p>③ 다방면적 合作·交流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黨·團體 및 個別人士들의 쌍무적·다무적 接觸과 자유로운 人士來往 • 資源의 共同開發·利用 및 상품교류 • 教育·과학기술·문화예술·보건·체육의 協力·交流 • 國際舞臺에서의 대결·경쟁止揚과 共同協力 <p>(2) 軍事的 對決狀態 緩和</p> <p>① 非武裝地帶의 평화지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監委」成員國 군사인원으로 조직된 中立國監視軍 배치 <p>② 대규모 軍事演習 중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聯合部隊 이상 軍事훈련 및 外國軍과의 합동 군사연습 中止 <p>③ 軍事分界線 일대 陸·海·空에서의 일체의 軍事 行動</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1. 17 南北國會會談 제6차 準備接觸 (판문점 「平和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形式 : 「開會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代表會談」, 「閉會모임」 ○ 代表團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 · 閉會모임 : 양측 國會議員 全員 - 議題討議 대표회담 : 각기 20名 內外 (雙務的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50名으로 잠정합의 ○ 議 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南北赤十字會談 · 南北經濟會談 재개문제를 포함한 南北間의 人的 · 物的 교류와 협력문제 ② 南北不可侵宣言 문제 ③ 南北頂上會談 개최문제 ○ 會談運營 節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會모임 : 準備接觸 합의사항 確認, 代表紹介 및 開會演說, 축하연설 - 代表會談 : 議題討議 및 共同決議文 작성 - 閉會모임 : 共同決議文 確認 · 採擇 ○ 合意方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表會談 : 雙方 합의제 ○ 會談開催 時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會모임 : 準備接觸 종료후 1개월내 平壤개최 - 代表會談 : 開會모임 직후 개최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p>1988. 11. 17 南北國會會談 제6차 準備接觸 (판문점 「平和 의 집」)</p>	<p>중지</p> <p>④ 偶發的 충돌사건의 擴大防止를 위한 高位軍事當局者間的 直通電話 架設</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本會談 形式 : 「開幕회의」, 「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代表會議」, 「閉幕회의」</p> <p>○ 代表團 構成</p> <p>— 開·閉幕會議 : 양측 國會議員 전원</p> <p>— 基本問題 討議 代表會議 : 각기 100名(非雙務的 성격)</p> <p>* 쌍방 50名으로 잠정 합의</p> <p>○ 議 題</p> <p>① 北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발표문제</p> <p>② 北과 南사이의 多방면적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p> <p>○ 會談運營 節次</p> <p>— 開幕會議 : 共同議長制 운영, 司會는 윤번제, 雙方 국회의장 의 開幕演說, 祝賀演說, 상호 合意事項 확인 및 代表團 명단발표</p> <p>— 代表會議 : 基本問題 토의</p> <p>• 執 行 部 : 意見相異 協議·調整, 南北同數로 구성</p> <p>• 共同運營委員會 : 運營節次 協議, 각기 5명 內外로 構成</p> <p>— 閉幕會議 : 共同合意書 確認, 祝賀演說, 國會議長의 閉幕演說</p> <p>○ 合意方式</p> <p>— 代表會議 : 一致합의제</p> <p>— 執 行 部 : 完全합의제</p> <p>○ 會談開催 時期</p>

☐ 1988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 閉會모임 : 代表會談 종료후 1개월이내 서울개최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2. 6 外交部長 김영 남, 술츠 美國 務長官앞 書翰 * 11. 16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幕會議：相逢 終了後 1개월내 平壤개최 - 代表會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차：開幕會議後 1개월내 서울개최 • 제 2 차부터：1個月 週期로 平壤과 서울 輪番開催 - 閉幕會議：代表會議 終了後 1개월내 개최 <p>〈3者會談을 위한 實務代表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現時點이 韓半島에서의 새로운 和解勢圍氣 모색을 위 한 책임있는 當事者間 協商이 가능한 好機로 간주, 南北韓· 美國間 3者會談을 가질 것을 提議함. - 南北韓·美國 外交部 副部長級을 團長으로 하는 實務代表接 觸 제의 - 實務代表接觸 日時 및 場所：1988. 12월중, 제네바 또는 제 3 국
<p>1988. 12. 9 祖國平和統一委 員會, 「汎民族 大會 추진본부」 에 보내는 公開 書翰</p>	<p>〈汎民族大會 소집을 위한 實務代表 豫備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貴本部가 추진하고 있는 汎民族大會 소집 構成이 우리 의 平和努力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救國對策으로 된다고 認定 하면서 그것을 적극 支持·歡迎함. ○ 汎民族大會에는 북과 남의 社會團體와 海外僑胞團體들의 代表 및 個別人士들이 광범히 참가해야 하며, 貴本部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과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促進하는데서 나서 는 문제들이 討議되어야 할 것임. ○ 會議場所는 판문점이나 第3國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會晤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貴側에서 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88. 12. 26 金在淳 國會議 長, 對北電通文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代表 交替通報〉 ○ 우리측 代表團 朴浚圭 首席代表와 李漢東 代表가 다음과 같이 교체되었음을 알림.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2. 20 政務院總理 연 형묵, 對南書翰</p>	<p>미 豫見한대로 89년 1월경에 하여도 무방할 것임.</p> <p>○ 우리는 北과 南, 海外僑胞 실무대표들의 豫備接觸을 시급히 가질 것을 貴側에 정중히 提議하며 會議召集과 관련한 貴本部의 案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람.</p> <p>〈3者會談을 위한 實務代表接觸 제의〉</p> <p>○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政治軍事的 大결상태를 緩和하기 위한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과는 별도로 北과 南, 美國이 참가하는 3者會談을 시급히 가질 것을 貴當局에 제의함.</p> <p>— 각기 外交部 副部長級을 團長으로 하는 3者實務代表接觸 開催</p> <p>— 實務代表接觸 日時 및 場所 : 1988. 12월중 제네바 또는 제 3국</p>
<p>1988. 12. 21 北韓올림픽委員 會 委員長 김유 순, 對南書翰</p>	<p>〈北京아시아경기대회 單一팀構成 위한 南北體育會談 提議〉</p> <p>○ 1990. 9월에 열리게 되는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北과 南이 唯一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會談을 가질 것을 提議함.</p> <p>— 代表團 : 雙方 올림픽위원회 副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5명 의 代表</p> <p>— 日時·場所 : 1989. 2월 下旬경 板門店</p>
<p>1988. 12. 26 朝鮮學生委員會 委員長 김창룡, 對南書翰</p>	<p>〈平壤祝典관련 南北學生會談 제의〉</p> <p>○ 1989. 7. 1~7. 8 平壤에서 「反帝連帶性, 平和, 親善」의 理念 밑에 제13차 世界靑年學生祝典이 열리게 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2. 28 姜英勳 國務總 理, 對北書翰</p>	<p>— 首席代表：蔡汶植(民主正義黨) — 代表：金顯煜(民主正義黨)</p> <p>〈南北高位當局者會談 제의〉</p> <p>○ 南北間에 信賴構築과 緊張緩和 문제를 포괄적으로 協議·解決 해 나가기 위해 南北高位當局者間에 會談을 열 것을 提議함.</p> <p>— 代表團：쌍방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各其 7명의 代表로 構成</p> <p>— 議 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相互 誹謗·中傷 中止문제 • 相互尊重 및 不干涉문제 • 多角的인 交流·協力 實施문제 • 軍事的 信賴構築 문제 • 南北頂上會談 開催문제 • 其他 북측이 提起하는 실효성 있는 信賴構築·緊張緩和 방안 <p>— 場 所：서울·平壤 번갈아 開催</p> <p>— 豫備會談：次官級(부부장급)을 首席代表로 하는 各기 5명 의 代表로 構成, 1989. 2월 초순 판문점 「平和의 집」에서 개최</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에 統一을 갈망하는 남녘의 애국적 青年學生들을 招請함. ○ 이 문제와 관련하여 提起되는 實務的 문제들을 協議하기 위하여 各其 9~11명으로 構成되는 南北學生會談을 1989. 3월 초 順경 板門店에서 가질 것을 희망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2. 29 南北國會會談 제7차 準備接觸 (판문점 「統一 閣」)</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議 題</p> <p>① 南北赤十字會談 · 南北經濟會談의 재개문제를 포함한 南北間의 다각적인 交流 · 協力문제</p> <p>② 南北不可侵宣言 문제</p> <p>③ 南北頂上會談 개최문제</p> <p>○ 本會談 形式</p> <p>- 「開會모임」,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 「閉會모임」 순으로 진행</p> <p>- 「開會모임」과 「閉會모임」은 南北의 國會議員 전원이 참가하는 合同會議 形式</p> <p>- 「代表會談」은 쌍방에서 각기 50명의 代表가 참가하는 雙務會談 形式으로 하며, 각기 5명의 代表로 구성되는 「執行部」와 각기 5명의 代表로 구성되는 「共同運營委員會」를 설치</p> <p>○ 會談運營 節次</p> <p>- 運營原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相互尊重 및 不干涉, 상호 衡平의 原則 등에 따라 相互主義로 운영 <p>- 開會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會모임은 판문점 準備接觸 終了後 1개월내에 平壤에서 개최 • 準備接觸에서 쌍방이 合意한 제안사항 確認, 쌍방代表 소개, 쌍방 國會議長의 開會演說, 各黨을 代表하는 國會議員의 축하연설 <p>- 代表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表會談은 開會모임이후 1개월내 서울에서 제1차 會談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2. 29 南北國會會談 제7차 準備接觸 (판문점 「統一 閣」)</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議 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 中止문제 ②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발표문제 ③ 北南사이의 多방면적 協力과 交流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 *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 中止問題를 첫번째 議題로 상정할 것을 提議 ○ 本會談 形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準備接觸時와 同一 ○ 會談運營 節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準備接觸時와 同一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개최, 그후 1개월내에 平壤에서 제 2 차 會談개최, 제 3 차 會談부터는 1個月을 週期로 서울·平壤 번갈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회담은 雙方합의제로 운영, 表決은 하지 않음. • 「執行部」는 代表會談의 委任에 의해 代表會談에서 제기되는 意見差異를 協議·調整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共同合意文 草案작성 • 「執行部」에서 작성한 共同合意文은 代表會談에서 確認·採擇 • 「共同運營委員會」는 議事日程 작성 등 會談運營과 관련된 實務問題를 취급 <p>— 閉會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表會談 종료후 1개월내에 서울에서 개최 • 代表會談에서 合意·採擇된 공동합의문 確認·公表, 쌍방 國會議長의 閉會연설, 各黨을 代表하는 國會議員의 祝賀演說 <p>— 기타 進行節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폐회모임」은 共同議長制로 하고 司會는 윤번제 • 代表會談과 「執行部」는 쌍방 首席代表가 회담을 共同主宰, 「共同運營委員會」는 쌍방 首席代表가 指名하는 代表가 共同主宰 • 「개·폐회모임」과 代表會談은 公開를 原則, 「執行部」와 「共同運營委員會」의 會議는 非公開도 可能 • 國會會談을 위한 南北往來時 言論의 자유로운 取材活動 보장 • 상대측 滯留期間은 4泊 5日 • 상대측 地域을 방문하는 代表團은 150명 内外의 支援人員과 200명 内外의 記者를 同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8. 12. 30 金宗河 大韓올 림픽委員會 委 員長, 對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體育會談 開催 受諾 및 會談日字 提議〉</p> <p>○ 1990. 9 北京에서 열리는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이 單 一팀을 구성하여 參加하기 위해 南北올림픽委員會간의 會談을 갖자는 귀하의 제의에 同意함.</p> <p>－ 日 時 : 1989. 3. 9 오전 10시</p> <p>－ 場 所 : 판문점 「平和의 집」</p> <p>－ 代 表 : 雙方 올림픽위원회 副委員長을 首席代表로 하여 각기 5명의 代表로 구성</p> <p>－ 議 題 : 아시아 경기대회 南北單一팀 構成問題와 이에 수 반되는 南北體育交流 실현문제</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89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 1 盧泰愚 大統領 新年辭</p>	<p style="text-align: center;">〈새해에 平和統一轉機 이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는 南北韓을 차단하는 對決의 障壁을 허물고 平和統一의 전기를 이룩하는 결정적인 時期가 될 것임. ○ 同胞愛에 바탕한 우리의 前向的인 民族和解와 平和統一政策은 開放과 協力으로 나아가는 세계적 물결속에서 패쇄적인 北韓의 態度를 바꾸게 할 것임. ○ 南北韓間에 和解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往來와 交易이 시작되면 統一은 이 世紀가 가기 전에 우리 눈앞에 다가설 것임.
<p>1989. 1. 12 鄭元植 文敎部 長官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學生交流 추진을 위한 民間協議機構 발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활발하게 論議되고 있는 南北學生交流 문제를 前向的으로 推進해 나가기 위해 大學스포츠위원회, 한국靑少年團體協議會, 한국大學敎育協議會 등 敎育관련 단체와 學生團體들이 포함되는 民間次元의 協議機構를 이달 안에 發足시키겠음. ○ 이 協議機構는 「남북학생祖國巡禮大行進 추진문제」와 「남북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 1 金日成 新年辭</p>	<p>〈南北政治協商會議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聯邦制 統一方案을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平壤에서 北과 南의 各黨·各과·各계各층의 指導級 人士들로 北南政治協商會議를 가질 것을 제의하며 이를 위하여 民主정의당·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總裁들과 金壽煥추기경·文益煥목사·白基玩선생을 招請함. ○ 政治協商會議 테두리안에서 북과 남의 指導級 人士들은 多務的인 회담뿐 아니라 雙務的인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임. ○ 南朝鮮의 指導級 人士들이 建設的인 統一方案을 가지고 平壤을 訪問한다면 환영할 것임.
<p>1989. 1. 9 人民武力部 代 辯人 談話</p>	<p>〈팀스피리트訓練 중지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과 南朝鮮당국이 緊張緩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최소한 올해에는 팀스피리트 軍事演習을 하지 않을 데 대한 態度라도 表示해야 할 것임. ○ 만약 美帝와 南朝鮮이 우리의 거듭되는 要求에도 불구하고 팀스피리트를 벌여 놓는다면 造成된 對話의 분위기를 故意的으로 파괴한 責任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 21 「全國民族民主 運動聯合」 조국 통일위원회, 記 者會見</p>	<p>학생 親善體育競技大會 교환개최문제」는 물론, 「제13차 세계 靑少年學生祝典을 포함하여 南北韓 쌍방이 主催하는 주요 學 生行事に 참가하는 문제」와 기타 定期的인 南北學生交流問題 등을 말아 推進하게 될 것임.</p> <p>〈汎民族大會 豫備實務會談 개최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汎民族大會 개최를 위한 豫備實務會談을 1989. 3. 1 正午 판 문점 「平和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提議함. ○ 豫備實務會談 代表團은 各계각층에서 選定된 10인이내로 구 성, 2. 15까지 名單을 발표하도록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 16 政務院總理 연 형묵, 對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예비회담 일자 提議〉</p> <p>○ 귀측 回信(12. 28자)에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있지만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제의에 原則적으로 同意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이 제의함.</p> <p>－ 代表 團：쌍방 總理를 團長으로 하고 軍實權者 포함, 7명으로 構成</p> <p>－ 議 題</p> <p>• 北南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p> <p>－ 場 所：平壤·서울(윤번개최)</p> <p>－ 豫備會談：副部長級(차관급)을 團長으로 하는 5명으로 代表團 구성, 1989. 2. 8 오전 10시, 판문점 「平和의 집」에서 개최</p> <p>○ 會談券圍氣 조성을 위해 올해에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하지 않도록 貴當局의 努力과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 23 姜英勳 國務總理, 對北書翰</p>	<p>○ 豫備實務會談 議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代表 구성 - 本會談 議題 - 汎民族大會와 관련한 準備 - 南北間 民間차원의 交流준비 <p>〈南北高位當局者會談 예비회담 개최일자 동의〉</p> <p>○ 南北間 상호 信賴構築과 緊張緩和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協議하기 위한 南北高位當局者會談 개최제의에 동의해 나온 것을 기쁘게 생각함.</p> <p>○ 그간 南北間에 오고간 書翰에서 비록 쌍방간에 會談名稱과 議題 등에서 다소의 意見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豫備會談에서 진지하게 協議해 나간다면 쉽게 解決될 수 있을 것임.</p> <p>○ 南北高位當局者會談 개최와 관련한 諸般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2.8 오전 10시, 次官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5명의 代表를 판문점 「平和의 집」에 내보낼 것임.</p>
<p>1989. 1. 24 金相浹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書翰</p>	<p>〈南北赤十字會談 재개촉구〉</p> <p>○ 현시점에서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하루속히 덜어주기 위해서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을 아무런 條件없이 再開할 것을 促求함.</p> <p>○ 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을 오는 3.28 平壤에서 가질 것을 正중히 提議함.</p> <p>※ 이산가족찾기 의뢰인 명부(4,346명) 同封</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 23 北韓올림픽委員 長 김유순, 對 南書翰</p>	<p>〈南北體育會談 開催日字에 同意〉</p> <p>○ 오는 3.9 오전 10시에 우리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團長으로 하는 5名の 代表를 판문점 귀족지역 「平和의 집」에 파견할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2. 4 姜英勳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當局者會談 豫備會談 代表團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首席代表：宋漢虎(國土統一院 次官) ○ 代 表：金三勳(外務部 情報文化局長) <li style="padding-left: 2em;">代 表：龍永一(國防部 合同參謀本部 局長) <li style="padding-left: 2em;">代 表：姜根鐸(青瓦臺 政策補佐官室 秘書官) <li style="padding-left: 2em;">代 表：金保鉉(國務總理 行政調整室 審議官)
<p>1989. 2. 8 南北高位當局者會談 제 1 차 豫備會談 (관문점 「平和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名稱：「南北高位當局者會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折衷案으로 「南北總理會談」 제시 ○ 議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호 誹謗·中傷 중지문제 ② 相互尊重 및 不干涉문제 ③ 다각적인 交流와 協力實施 문제 ④ 군사적 信賴構築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高位軍事當局者間의 直通電話 架設 • 非武裝地帶의 비무장화 및 平和的 利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 30 政治協商會議 준비위원장 허 담, 4黨總裁 및 個別人士 앞 對 南書翰</p>	<p>〈南北政治協商會議 호응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指導級人士들의 政治協商會議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聯邦 制통일방도를 협의할 데 대한 우리측의 새로운 協商提議에 긍 정적인 呼應을 기대함.(4黨總裁) ○ 北南指導級人士들의 政治協商會議가 빨리 召集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함. (金壽煥추기경·文益煥목사·白基玩씨)
<p>1989. 2. 4 政務院總理 연 형묵, 對南電通 文</p>	<p>〈南北高位當局者會談 豫備會談 代表團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 長 : 백남준(정무원 참사) ○ 代 表 : 유성철(정무원 실장) 代 表 : 최우진(외교부 국장) 代 表 : 최성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代 表 :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p>1989. 2. 8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제1차 豫 備會談 (판문점 「平和 의 집」)</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名稱 :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 議題 : 「北과 南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 할 데 대하여」 ○ 時期 : 豫備會談 종료후 1개월이내 開催 ○ 場所 : 서울·平壤에서 번갈아 개최 ○ 代表團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 表 :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여, 軍實權者 2명을 포함하는 7명 - 隨行員 : 20명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2. 9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蔡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人士의 상호교류 • 대규모 訓練의 事前通報 및 參觀招請 ⑤ 南北頂上會談 개최문제 ⑥ 其他 쌍방이提起하는 問題 ○ 時期: 豫備會談 종료후 1개월이내 開催 ○ 場所: 서울·平壤 輪番開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회담 서울, 2차회담 平壤 ○ 代表團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表: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며 軍參謀總長級을 포함하여 7명 - 隨行員: 40명 - 記者團: 50명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호응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側이 진정으로 南北國會會談의 실현과 민족의 화합과 統一을 원한다면 ทัพ스피리트訓練문제를 앞세워 이미 쌍방간에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2. 8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北側 代表團 代辯人 聲明</p>	<p>— 記者團 : 50명</p> <p>〈南北國會會談 제 8차 準備接觸 延期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側이 「팀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을 일방적으로 強行하여 나서는 조건에서 北南國會議員들의 제 8차 相逢은 예정대로 가지기가 어렵게 되었음. ○ 北南國會議員들의 제 8차 相逢은 부득이 팀스피리트 軍事演習이 끝난 후로 延期하지 않을 수 없음. <p>※ 제 7차 준비접촉(88. 12. 29)에서 제 8차 준비접촉을 89. 2. 10에 개최기로 合意</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植 首席代表 聲明	<p>合意된 準備接觸을 延期함으로써 거래를 실망시키지 말고 하루속히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에 呼應해 나올 것을 촉구함.</p>
<p>1989. 3. 2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제2차 豫 備會談</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本會談 명칭 :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2. 15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書翰</p>	<p>〈南北赤十字會談 再開거부〉</p> <p>○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이 強行되고 있는 情狀하에서 적십자 회담을 再開하는 것은 아무런 意義도 없음.</p>
<p>1989. 2. 15 祖國平和統一委 員會 書記局長 안병수, 對南書 翰</p>	<p>〈汎民族大會 개최 위한 實務代表接觸 동의〉</p> <p>○ 汎民族大會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의 時日과 場所問題와 有關한 「全國民族民主運動聯合」 제의에 同意함.</p> <p>－ 日 字 : 1989. 3. 1</p> <p>－ 場 所 : 판문점 「平和의 집」</p> <p>－ 代 表 : 쌍방 각각 5명</p>
<p>1989. 2. 17 朝鮮作家同盟 중앙위원회, 對 南公開書翰</p>	<p>〈南北作家會議 開催用意 표명〉</p> <p>○ 우리는 北과 南 해외동포 作家會議를 개최할 데 대한 貴會의 提案이 시기적절한 發起로 된다고 認定하면서 그에 전적인 贊 意를 表示하는 바임.</p> <p>○ 豫備會議와 本會議의 장소는 日本도 좋고 板門店도 좋다고 봄.</p>
<p>1989. 3. 2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제 2 차 豫 備會談</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本會談 명칭 :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p> <p>○ 議題 : 「北과 南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판문점 「統一 關」) 1989. 3. 4 民族文學作家會 議, 對北公開書 翰	○ 議 題 ① 상호 誹謗 · 中傷 중지 문제 ② 相互尊重 및 不干涉 문제 ③ 다각적인 交流 · 協力 실시 문제 ④ 軍事的 信賴構築 문제 • 南北 高位軍事當局者間의 직통전화 架設 • 非武装地帶의 비무장화 및 平和的 利用 • 軍人士의 상호 교류 • 대규모 訓練의 事前通報 및 參觀招請 ⑤ 南北頂上會談 개최 문제 ⑥ 其他 쌍방이 提起하는 問題 <南北作家會談 예비회담 開催提議> ○ 남북작가회담의 時期 · 場所 · 議題 등을 논의할 예비회담을 3. 27경 板門店이나 日本 등 제3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議 題 — 南北間의 作品交流 — 母國語와 民族情緒의 同質性 보존을 위한 共同作業 — 國文學 연구를 위한 現地踏査班의 교환 — 南北文學人大會 및 祝祭의 정기적 開催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p>(판문점 「統一閣」)</p>	<p>할 데 대하여</p> <p>○ 「팀스피리트 89」 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 3個項의 緊急措置를 취할 것을 남측에 제의</p> <p>[3個項 긴급조치]</p> <p>① 「팀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 中止입장 公式發表</p> <p>② 「팀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에 동원된 戰鬥兵力과 武裝裝備 즉시 復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海外로부터 투입된 戰鬥兵力과 武裝裝備들을 한반도 境外로 撤收 - 海外에서 機動·出動態勢에 있는 美 陸·海·空軍 부대들과 武裝裝備들의 한반도 境內에로의 搬入 즉각 停止 - 南朝鮮내에서 動員된 戰鬥兵力과 武裝裝備를 군사연습 以前狀態로 復歸 <p>③ 軍事訓練時 外軍제외, 規模縮小 및 팀스피리트 訓練의 名稱 變更</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3. 7 金鍾烈 大韓올림픽委員會委員長, 對北電通文</p>	<p>〈南北體育會談 代表團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首席代表：張忠植(大韓올림픽위원회 副委員長) ○ 代 表：李學來(大韓올림픽위원회 常任委員) 代 表：任台淳(大韓올림픽위원회 委員) 代 表：張炳朝(大韓올림픽위원회 委員) 代 表：朴秀蒼(大韓올림픽위원회 委員)
<p>1989. 3. 9 제11회 北京아시아 競技大會 單一팀구성· 참가 위한 제1차 南北體育會談 (板門店 「平和의 집」)</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 : 「남북단일팀」 - 英文 : 「KOREA」 ○ 團旗：흰색바탕에 「녹색」 韓半島地圖와 그 아래에 「KOREA」 表記 ○ 團歌：「아리랑」 ○ 選手團 團長：選拔選手的 比率에 따라 決定 ○ 選手團 團服：전문가의 諮問을 얻어 決定 ○ 選手選拔：선발전을 통한 선수선발, 後 공동훈련 方式 ○ 選手訓練：南北을 往來하며 實施 ○ 身邊安全保障：신변안전보장 覺書 交換 ○ 經費：참가경비는 選手比率에 따라 共同負擔, 훈련경비는 招請側에서 負擔 ○ 推進機構：단일팀共同委員會 구성(산하에 共同事務局 설치) <p>〈意見接近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旗：흰색바탕에 韓半島地圖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3. 7 北韓올림픽 위원장 김유순, 對南電通文</p>	<p>〈南北體育會談 代表團명단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 長 : 김형진(北韓 올림픽위원회 副委員長) ○ 代 表 : 장 응(北韓 올림픽위원회 書記長) 代 表 : 김세진(北韓 올림픽위원회 委員) 代 表 : 허혁필(北韓 올림픽위원회 委員) 代 表 : 김상부(北韓 올림픽위원회 委員)
<p>1989. 3. 9 제11회 北京아 시아競技大會 단일팀구성·참 가 위한 제1차 南北體育會談 (板門店 「平和 의 집」)</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 : 「고려」 - 英文 : 「KORYO」 ○ 깃발 : 흰색바탕에 「황토색」 朝鮮半島地圖와 그아래에 「青色 또 는 赤色」으로 「KORYO」表記 ○ 노래 : 「아리랑」 ○ 選手團 團長 : 共同團長制 ○ 選手團 團服 : 共同事務局에서 決定 ○ 選手選拔 : 先 공동훈련, 後 선수선발 ○ 選手訓練 : 南北을 來往하며 實施 * 1989. 9월부터 시작 ○ 身邊安全保障 : 신분안전보장覺書 交換 ○ 費用 : 참가비용은 共同負擔, 훈련비용은 招請側에서 負擔 ○ 推進機構 구성 : 共同事務局 설치 <p>〈意見接近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깃발 : 흰색바탕에 朝鮮半島地圖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3. 13 鄭鎔碩 南北大 學生交流推進 委員會 委員長, 對北書翰</p>	<p>○ 團歌 : 「아리랑」</p> <p>〈南北大學生 交流會談 제의〉</p> <p>○ 南北大學生交流會談을 귀측에 提議하는 바임.</p> <p>－ 時 期 : 89년 3월말에서 4월초 사이</p> <p>－ 場 所 : 판문점 「平和의 집」</p> <p>－ 代表團 : 쌍방 각기 學生代表 3명과 쌍방 委員會代表 4명, 도합 7명으로 構成</p> <p>－ 議 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 參加問題를 포함하여 雙方이 주 최하는 주요 學生行事 참가문제 • 南北大學生 祖國巡禮大行進 추진문제 • 南北大學生 親善體育競技大會 교환개최 문제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 노래 : 「아리랑」
1989. 3. 15 平壤祝典 朝鮮 準備委員長 최 룡해 · 朝鮮學生 委員長 김창룡, 對南電通文			<p>〈南北大學生交流會談 조건부 推進用意〉</p> <p>○ 3. 16로 約束되어 있는 「全大協」 代表들과의 會談을 예정대로 하는 條件에서 貴 團體(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와의 會談을 3월말이나 4월초에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p> <p>○ 만일 「全大協」과의 會談이 成事되지 못한다면 貴 團體와의 會談도 할 수 없게 될 것임.</p>
1989. 3. 16 朝鮮作家同盟 중앙위원회, 對 南公開書翰			<p>〈南北作家會談 예비회담 受諾〉</p> <p>○ 1989. 3. 27 오전 10시, 판문점 中立國監督委員會 회의실 에 서 각기 5명의 代表들로 豫備接觸을 가질 것을 希望함.</p>

1989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3. 16 天道教青友黨 중앙위원장 崔 德新, 天道教青 友黨 중앙위 제 6기 제14차 全 員會議 演說</p>	<p>〈南北天道教人間 統一問題協議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점에서 北과 南의 天道教인들이 合心한다면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에 의한 祖國統一을 이룩하는 데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바, 北과 南의 天道教인들이 하루속히 만나서 統一問題를 協議할 것을 南朝鮮 天道教人들에게 提議함. ○ 남조선 天道教중앙총부 教領 吳益濟와 指導級 人士들을 平壤에 招請하며, 남조선 天道教인들이 아무때나 平壤에 온다면 그들을 血肉으로 따듯이 歡迎할 것이며 기탄없이 意見을 交換할 것임.
<p>1989. 3. 27 24개 政黨·團體 聯合聲明 * 「북남대화를 다방면적으 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p>	<p>〈民間級對話 추진관련 5個項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統一은 반드시 北과 南사이에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平和的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北南對話를 쌍방 當局사이에도 하고 民間級에서도 폭넓게 하여야 함. ② 北南對話는 평화와 통일과 民族共同利益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北南 사이에 對決과 不信을 조장하거나 두개조선을 위한 對話는 排擊되어야 함. ③ 平和와 統一問題 協議를 위한 民間級의 自律的 對話제의를 장려하고 받아들여 南朝鮮과 海外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여성·종교인·민족자본가 및 그 團體들과의 對話를 적극 추진시킴. - 非政治的 분야에서 民族共同의 利益을 圖謀하는 問題 協議를 위한 民間級의 경제합작·공동개발·공동연구·공동출연·공동대의진출 提案을 獎勵하고 받아들임. ④ 남조선과 海外의 개별적 人士들이 民族共同의 관심사를 協議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3. 28</p> <p>제 2 차 南北體 育會談 (관문점「統一 閣」)</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呼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 : 「南北單一팀」 - 英 文 : 「KOREA」 ○ 團旗 : 흰색바탕에 「황토색」 한반도지도로 하되, 주변을 「녹 색」으로 함. ○ 選手選拔方法 : 合同訓練 → 選手選拔戰 → 強化訓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회담시 北側이 제시한 「共同訓練」을 「合同訓練」으로 受 容 ○ 合同訓練時期 : 1989. 10 ○ 選手團 構成時期 : 1990. 6. 22전까지 完了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3. 28 제 2 차 南北體 育會談 (관문점「統一 閣」)</p>	<p>하기 위하여 아무때나 共和國 北半部를 방문하는 것을 許容하 며 환영함.</p> <p>⑤ 民間級 對話를 원만히 保障하기 위한 對策을 강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間級 對話 提議는 板門店을 통하거나 또는 直接的인 書面 交換, 公開放送을 통하여 확인·실현하며 民間級 對話는 관 문점 및 서울·平壤 그리고 第3國에서 할 수 있음. - 接觸과 對話를 위해 公화국 북반부를 방문하는 정당·단체 대표들과 개별적 人士들의 래왕과 신변안전을 担保하는 措 置를 취하며 모든 편의를 보장함.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名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 : 「고려」 - 英 文 : 「KOREA」 ○ 깃발 : 흰색바탕에 「하늘색」 朝鮮半島地圖 ○ 選手選拔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訓練 → 選手選拔戰 - 記錄種目, 採點種目, 맞붙어 勝負를 가리는 種目으로 區分 ※ 1차會談時와 同一 ○ 共同訓練時期 : 198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會談時와 同一 ○ 選手團 構成時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種目 : 1990. 5월까지 - 個人種目 : 1990. 7월까지 ※ 1차會談時와 同一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3. 29 李洪九 國土統 一院長官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旗(깃발)」에 名稱(로마자)을 表記하지 않도록 함. ○ 「合同訓練」을 통해 選手選拔 ○ 「合同訓練」에 참가할 選手數는 南北 각기 제11회 北京아시아 경기대회 組織委員會가 정하게 될 경기참가 定員數 정도로 하 되, 種目別 특성에 따라 協議·調整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韓 當局間대화를 통해 平和·統一問題 解決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近 북한이 政治協商會議라는 이름하에 우리 在野人士를 불러들여 그들과 統一問題를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政府의 南北對話努力과 統一論議 開放의 참뜻을 歪曲하여 우리 사회의 國論을 分裂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더욱이 북한의 高位當局者가 공공연하게 우리의 在野人士들을 접촉하여 當局間의 접촉을 迂廻하려는 것은 南北關係改善을 방해하고 平和統一의 前途를 威脅하는 행위임을 指摘하고자 함. ○ 6천만겨레의 平和와 統一로 향한 念願이 절실하면 할수록 南北當局間의 정상적인 對話通路를 통해 하루속히 懸案問題와 民族將來問題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合意事項〉</p> <p>※ 左 同</p>		
<p>1989. 3. 31 朝鮮職業總同盟 중앙위원회, 對 南公開書翰</p>	<p>〈南北勞動者代表會談 제의〉</p> <p>○ 남조선의 全國勞動運動團體協議會에 북남 노동자대표들이 참가하는 實務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p> <p>- 日時 및 場所 : 89. 4. 10, 판문점 中監委會議室</p> <p>- 代表 : 각각 5명의 北南勞動者 代表</p>		

1989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4. 2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위원장 허담 · 文益煥牧師, 共同聲明</p>	<p>— 協議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1절에 즈음하여 平壤과 서울에서 北南 勞働者代表들이 參加하는 연환모임 開催 • 平壤행사에는 남측 全國勞動運動團體協議會가 派遣하는 큰 規模의 남조선 勞働者代表들이 參加 • 서울행사에는 朝鮮職業總同盟 중앙위원회가 派遣하는 많은 수의 북측 勞働者代表들이 參加 <p>〈두개 朝鮮政策 反對 및 聯邦制方式 統一 主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쌍방은 7. 4南北共同聲明에서 확인된 自主 · 平和統一 · 民族大 團結의 3大原則에 기초하여 統一問題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 을 再確認함. ②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개朝鮮政策을 反對하고 하나의 民族, 그리고 統一된 나라를 指向해야 한다는 것을 確認함. ③ 쌍방은 政治軍事會談을 추진시켜 北南사이의 政治 · 軍事的 對 決狀態를 해소하는 동시에 離散家族問題와 다방면에 걸친 交 流와 接觸을 실현하도록 적극 努力함. ④ 쌍방은 共存의 原則에서 聯邦制 방식으로 統一하는 것이 必然 的이고 合理的인 統一方途가 된다는 점에 見解의 一致를 보았 음. ⑤ 쌍방은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은 北南對話와 平和 및 統一 의 成就와는 兩立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 ⑥ 文益煥牧師는 交叉承認 · 交叉接觸에 대한 北의 拒否的 立場과 統一意志를 확인하고, 祖國平和統一委員會側은 文益煥牧師가 主張하는 北南交流와 점진적 聯邦制 통일방안이 두개朝鮮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肯定的으로 평가하였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4. 17 金鍾烈 大韓올 림픽위원회 委 員長, 對北電通 文</p>	<p>〈南北體育會談 代表 교체통보〉</p> <p>○ 우리측 代表團의 張炳朝 代表가 曹英承 代表(大韓올림픽위원 회 위원)로 교체되었음을 알림.</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4. 11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예비회담 北側 代表團長 백남준, 對南電 通文</p>	<p>⑦ 雙方은 우리 民族이 굳게 團結해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통감하면서 나라의 統一偉業 實踐을 위해 적극 이바지할 데 대한 共同의 念願을 표시하였음.</p> <p>⑧ 祖國平和統一委員會側은 「全民聯」의 汎民族大會 소집제안을 支持하고 文益煥 牧師는 平壤祝典에 참가하려는 남조선 青年 學生들을 지지함.</p> <p>⑨ 雙方은 이상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合意가 금후 北南사이의 다각적인 公式對話에서 協議의 기초가 될 수 있고 架橋의 役割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實踐對策을 北南當局과 諸政黨·團體들에 건의함.</p> <p>〈제 3차 豫備會談 延期통보〉</p> <p>○ 4월 12일 가지기로 되어 있는 제 3차 豫備會談을 오는 4월 26일에 가지는 것이 適合하다고 보면서 우리측 代表團이 이날에 나갈 것임을 通知하는 바임.</p>
<p>1989. 4. 17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예비회담 北側 代表團長 백남준, 對南電 通文</p>	<p>〈제 3차 豫備會談 再延期통보〉</p> <p>○ 貴側當局은 文益煥牧師를 拘束함으로써 北南關係를 극도로 惡化시키고 北南對話앞에 인위적인 難關을 造成하고 있음.</p> <p>○ 나는 貴側에 의하여 造成된 오늘의 좋지 못한 對話寡圍氣가 하루빨리 가서지기를 期待하면서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위한 제 3차 豫備會談을 7월 12일로 延期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리측의 立場을 通知하는 바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4. 24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南北直通電話 정치적 이용不容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貴側이 남북적십자간의 直通電話를 會談과는 전혀 無關한 다른 目的에 利用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나는 遺憾을 表示하지 않을 수 없음. ○ 나는 南北直通電話가 赤十字人 본래의 使命을 벗어나 南北間에 불필요한 副作用을 초래하거나 政治的 논쟁을 惹起시킬 소지가 있는 便紙나 電話通知文의 전달에 利用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귀하의 協調를 要望함. <p>* 「平壤祝典」 조선준비위원회가 우리측 人士들 앞으로 보내는</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4. 17 南北體育會談 北側代表團長 김형진, 對南電 通文</p>	<p>〈제 3차會談 延期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當局이 文益煥牧師를 不法不當하게 拘束함으로써 全般的인 北南對話의 霧圍氣를 몹시 흐리게 하고 있음. ○ 나는 지금과 같은 좋지 못한 霧圍氣에서는 북과 남이 體育會談을 순조롭게 해 나갈 수 없다고 認定하면서 4월 18일에 가지기로 되어 있는 제 3차 北南體育會談을 부득이 7월 18일로 延期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通知하는 바임.
<p>1989. 4. 22 朝鮮學生委員會, 對南電通文</p>	<p>〈南北學生會談 개최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學生委員會는 貴團體(全大協)가 南北學生會談을 4. 28 오후 3시에 가지자고 한 提議에 全的인 同意를 表示하면서 우리 學生會談代表 11명을 판문점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에 내보내기로 하였다는 것을 通知함. * 北赤委員長 손성필이 金相浹 韓赤總裁에게 同 電通文을 「全大協」에 전달해 줄 것을 要請

☐ 1989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招請書翰 전달관련 4.22자 北側電通文에 대한 회신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4. 28 平壤祝典 朝鮮 준비위원회, 우 리측 인사들 앞 招請書翰 * 放送公開</p>	<p>〈平壤祝典에 남측인사 招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 7. 1~7. 8 平壤에서 열리는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에 귀하를 초청하는 바임. ○ 우리는 귀하가 平壤祝典에 참가하면 동포애의 情으로 맞이 할 것이며 모든 편의를 보장 할 것임. * 우리측 國會議長, 野黨總裁, 在野團體代表 등 55명 앞으로 발송
<p>1989. 5. 4 平壤祝典 朝鮮 準備委員會·社 勞青中央委員會 ·朝鮮學生委員 會, 공동記者會 見</p>	<p>〈平壤祝典관련 南北 6個團體 代表會談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제 3 차 世界青年學生祝典 참가문제를 위하여 北과 南의 6개단체 代表會談을 가질 것을 제의함. - 參加團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 平壤祝典조선준비위·社勞青중앙위·朝鮮學生委 • 南側: 「全大協」, 「全青協」, 南北大學生交流推進委 - 日時 및 場所: 89. 5. 20, 판문점 中監委會議室 - 代表: 各團體에서 3~5명 * 여러명의 高名한 民主人士들로 顧問團 構成 - 議題: 南朝鮮 青年學生들의 平壤祝典 參加問題
<p>1989. 5. 20 平壤祝典 朝鮮 準備委 代表團· 社勞青代表團·</p>	<p>〈平壤祝典관련 南北 6個團體 代表會談 개최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南朝鮮 青年學生들의 平壤祝典 參加問題를 토의하기 위한 南北 6개단체 代表會談을 6. 5 개최할 것을 다시금提起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5. 26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蔡汶 植 首席代表, 對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再開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이 1986년초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準備接觸 자체를 中斷시키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南北關係改善에 대한 귀측의 意志를 의심하게 될 것임. ○ 나는 우리측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代表團을 대표하여 제 8차 準備接觸을 오는 6월중순 판문점 「平和의 집」에서 開催할 것을 正중히 提議하는 바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朝鮮學生委 代 表團, 聯合聲明</p> <p>1989. 5. 24 朝鮮歷史學會會 長 전영률·社會 科學院 원사 김 석형·金日成大 學 教授 박시 형, 對南公開書 翰</p> <p>1989. 5. 31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書翰</p>	<p>〈南北歷史學者會談 제의〉</p> <p>○ 南北에서 각 3~5명의 歷史學者들이 6. 15 판문점 中立國監督 委員會 회의실이나 「統一閣」, 혹은 「平和의 집」에서 만나 美 國의 朝鮮歷史 偽造行爲를 규탄하는 共同抗議文 작성을 비롯, 구체적인 對策을 討議할 것을 제의함.</p> <p>〈제 2차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을 위한 赤十字 實務代 表接觸 提議〉</p> <p>○ 祖國解放 44돌이 되는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南北赤十字團 體들 사이에 제 2차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을 交換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함.</p>

☑ 1989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6. 2 朝鮮宗教人協議會, 對南公開書翰</p>	<p>○ 이와 관련한 實務的인 協議를 進行하기 위하여 오는 6. 16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統一閣」에서 쌍방이 각각 2~3명이 參加하는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가질 것을 貴側에 제의함.</p> <p>〈南北宗教人會談 提議〉</p> <p>○ 조선종교인협의회는 韓國宗教人協會에 北南宗教人會談을 가질 것을 正중히 제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時 : 1989. 6월 하순경 - 場所 :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이나 平壤 또는 서울 - 代表 : 쌍방 宗教人協議會에 망라되어 있는 宗團의 數를 고려하여 각각 7명 정도로 構成 - 協議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 宗教人들 사이의 和解와 團合을 이룩할 데 대한 問題 • 祖國統一을 실현하는데서 北南 宗教團體들과 宗教人들 앞에 나서는 課業에 대한 問題
<p>1989. 6. 6 天道教靑友黨 中央委員長 崔德新, 對南公開書翰</p>	<p>〈韓國天道教 中央總部 吳益濟教령 平壤招請〉</p> <p>○ 道下(吳益濟 教領)와 상면하여 虛心坦懷하게 의견백출을 함으로써 統一의 活路를 열어나가는데 다소나마 寄與하려는 진지한 一念에서 道下를 平壤에 正중히 招請하는 바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6. 12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개최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을 개최하여 議題 5 個項 事業討議와 함께 제 2 차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原則에 合意하고 그 구체적 時期·規模·方法 등 절차 마련을 위한 實務代表接觸을 가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함. ○ 나는 제11차 회담을 平壤에서 개최키로 한 제10차 南北赤十字會談에서의 合意事項과 귀측의 사정을 다같이 고려하여 제 11차 南北赤十字會談을 오는 7. 11 平壤에서 개최할 것을 慎重히 提議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6. 20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北側 代表團長 전금 철, 對南書翰</p>	<p>〈제 8차 準備接觸 開催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이 이번에 쌍방 國會議員들의 판문점相逢을再開할 데 대하여提起한 사실을 北南對話앞에 가로놓인 障礙를 제거하려는 立場의 表示로 간주하고, 특히 北南對話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文益煥牧師의 소망을 고려하여 쌍방 國會議員들의 판문점相逢을 다시 가지기로 하였음. ○ 쌍방 國會議員들의 제 8 차 판문점相逢의 날짜로는 6. 28이 適合할 것임.
<p>1989. 6. 22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書翰</p>	<p>〈제11차 本會談 개최거부 및 赤十字 實務代表接觸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祖國平和統一委와 文益煥牧師間에 合意한 사실을 걸고 드는 것은 무례한 態度이며 人道主義문제는 적십자단체의 獨占物이 될 수 없음. ○ 雙方 적십자 實務代表接觸을 7. 14 오전 10시, 판문점「統一閣」에서 개최하여 제 2 차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問題와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6. 26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蔡汶植 首席代表, 對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차 準備接觸일자 修正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準備接觸이 效率的으로 進전되어 結實을 맺기 위해서는 남북 국회간의 會談進行과는 관련이 없는 問題들을 介入시켜 접촉을 一방적으로 中斷시키거나 接觸再開와 進展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워 難關을 造成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될 것임. ○ 제 8차 準備接觸을 오는 7. 11 오전 10시, 관문점 「平和의 집」에서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p>1989. 7. 6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蔡汶植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차 準備接觸 延期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8. 19 은 겨레의 커다란 關心과 期待속에 南北國會會談 제 1차 準備接觸이 열리던 바로 그날 貴側이 우리 國會議員을 平壤으로 秘密裡에 불러들인 것은 우리 국회의 權威를 損傷시키고 會談成功을 위한 最小限의 信賴를 뒤엎은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이같은 狀況에서는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代表들이 만날 수 있는 霧圍氣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 우리측이 7. 11로 提議한 제 8차 준비접촉 開催日字를 延期하기로 하였음을 通報함.
<p>1989. 7. 7 崔秉烈 文公部 長官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關係改善 위해 지속적 努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7.7宣言」의 정신에 따라 民族和解와 南北關係 改善努力을 인내성있게 持續的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統一推進의 주체는 政府가 되어야 하며, 남북간 對話와 交流는 相互主義原則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고, 모든 對北接觸은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赤十字會談 再開問題를 함께 討議할 것을 다시금 提議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7. 10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예비회담 宋漢虎 首席代 表, 對北電通文</p>	<p>政府의 주선과 許容下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p> <p>〈제 3차 豫備會談 연기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은 두차례나 一方的으로 會談을 延期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對話를 進行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측 特定團體나 개인을 政治工作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내부의 擾亂과 體制를 顛覆시키려고 획책하는 등 결과 속이 다른 이중적 行爲를 취해왔음. ○ 나는 현재와 같은 狀況에서는 제 3차 豫備會談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귀측이 南北關係改善과 緊張緩和를 위한 대화에 진실된 姿勢를 보임으로써 제 3차 豫備會談이 빨리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함.
<p>1989. 7. 12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書翰</p>	<p>〈南北赤十字 本會談 再開 위한 實務代表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近 귀측이 南北赤十字間의 會談과 관련하여 우리 法秩序를 위반한 特定個人과 귀측 非赤十字 단체간의 합의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그동안 쌍방 赤十字團體가 기울여온 努力을 外面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7. 9 祖國平和統一 委員會 委員長 허담, 「海內外 同胞들의 祖國 統一 促進大會」 演說</p>	<p>〈汎民族大會 개최 提議〉</p> <p>○ 1990년대에 들어서는 첫해이며 解放 45돌이 되는 해인 1990. 8. 15에 판문점에서 北과 南, 海外同胞代表들로 汎民族大會를 召集할 것을 정중히 提起하는 바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7. 15 南北體育會談 張忠植 首席代 表, 對北電通文</p>	<p>하는 것은 會談을 다른 목적에 利用하려는 그릇된 行爲라 하지 않을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本會談 개최에 관한 모든 可能性과 機會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立場에서 남북직접자 實務代表接觸을 가지기로 하였음. 實務代表接觸에서는 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의 開催問題를 協議하면 되리라고 생각함. ○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8. 2 오전 10시, 판문점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非公開로 가질 것을 提議하는 바임. 우리측은 3명의 代表가 나갈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제 3차 南北體育會談 연기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은 4. 18로 예정된 제 3차 體育會談을 하루 앞두고 돌연 「對話券囤氣」 운운하면서 우리측에 대한 中傷·誹謗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쌍방간에 이미 合意한 會談日字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延期시키는 놀라운 態度를 보였음. ○ 貴側 當局이 우리 내부를 攪亂·破壞할 목적으로 恣行한 일련의 不純한 策동을 庇護하는가 하면 심지어 貴측의 會談代表가 公公然하게 제 3차 會談의 개최 可能性을 否定하는 등 會談의 成事에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음. ○ 貴側의 이같은 부당한 姿勢가 是正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 3차 南北體育會談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7. 18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北側 代表團 聲明</p>	<p>〈제 8차 準備接觸 개최 促求〉</p> <p>○ 우리는 남측이 對話와 緩和와 統一에 역행하는 부당한 無期延 期措置를 무조건 철회하고 성실한 對話姿勢를 가져야 하며,</p>

1989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7. 20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예비회담 北側代表團 聲 明</p>	<p>우리와 접촉하고 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구속한 各界人士 들과 청년학생들을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p> <p>○ 쌍방 國會議員들의 제 8 차相逢을 오는 8월중순 판문점 남측 지역 「平和의 집」에서 가질 것을 提議함.</p> <p>〈제 3 차 豫備會談 개최 촉구〉</p> <p>○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위한 豫備會談을 7. 12 가질 데 대한 우리측의 提議에 대해 남조선측이 會談을 개최하는 것이 適切치 않다는 回答을 보내온 것은 高位級 政治·軍事 會談의 使命을 망각하고 會談 當事者로서의 責務를 저버린 온 당치 못한 처사임.</p> <p>○ 우리는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위한 제 3 차 豫備會談을 오는 8월말에 이미 合意한 판문점 남측지역 「平和의 집」에서 가질 것을 促求함.</p>
<p>1989. 7. 23 南北體育會談 北側代表團 聲 明</p>	<p>〈제 3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 촉구〉</p> <p>○ 이번에 南側 代表團이 제 3 차 體育會談을 無期限 중단시킨 것 은 對話相對方에 대한 挑戰이며 單一팀구성을 바라는 온 거래 의 期待와 念願에 대한 公同연한 背反임.</p> <p>○ 우리는 제 3 차 北南體育會談을 오는 8. 10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平和의 집」에서 가질 것을 提議함.</p>
<p>1989. 7. 24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p>	<p>〈南北赤十字 實務代表 파견통보〉</p> <p>○ 나는 貴側이 우리의 實務代表接觸 제의에 同意해 나온 사실에 留意하면서 쌍방 사이에 걸려있는 問題들을 기탄없이 協議하</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7. 29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연기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은 中斷된 赤十字本會談 개최문제에 否定的 立場을 취하고 있고 또한 귀측當局이 판문점을 籠城場化하고 政治宣傳場化 함으로써 쌍방 赤十字間의 會談雰圍氣를 흐리게 하고 있음. ○ 나는 이같은 狀況下에서는 쌍방 赤十字間의 實務代表接觸이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接觸을 갖는다하더라도 生産的 成果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부득이 延期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임. ○ 나는 貴 赤十字會가 赤十字 본연의 姿勢로 하루빨리 되돌아 오기를 바랍.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對南書翰	<p>기 위하여 오는 8.2 오전10시에 우리의 代表를 판문점 中立國監督委員會 회의실에 내보낸다는 것을 通知함.</p>
<p>1989. 8. 1 北韓赤十字會 代辯人 聲明</p>	<p>〈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개최촉구〉</p> <p>○ 우리는 북과 남의 赤十字團體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共同의 課題를 시급히 解決하기 위하여 오는 8.12 오전 10시, 판문점 中監委會議室에서 雙方 적십자단체 實務代表들의 接觸을 가질 것을 다시금 제의함.</p>
<p>1989. 8. 8 南北體育會談 北側 代表團長 김형진, 對南電 通文</p>	<p>〈제 3차 南北體育會談 개최일짜 通報〉</p> <p>○ 貴側은 조금이라도 제11차 아세아競技大會에 南北이 유일팀으로 出戰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貴側이 제 3차 北南體育會談 날짜를 조속히 正해 알려줄 것을 希望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8. 9 南北體育會談 張忠植 首席代 表 聲明</p>	<p>〈南北單一팀문제 협의를 위한 霧圍氣造成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이 會談의 成事에 관심이 있다면 政治工作을 正當化하고 庇護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남북단일팀 構成問題를 協議할 수 있도록 분위기 造成에 誠意를 보여야 할 것임.
<p>1989. 8. 11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談 話</p>	<p>〈南北赤十字間 접촉 9월중 실현 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赤十字會가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의 再開 등 離散家族 문제를 協議할 뜻이 있다면 적십자 本然의 자세로 되돌아 오므로써 緊急한 離散家族問題의 해결을 위한 南北間의 接觸이 再開되도록 힘써야 할 것임. ○ 本人은 북한 赤十字會側이 會談姿勢를 是正하고 조속히 會談 霧圍氣를 造成함으로써 늦어도 9월중에는 雙方 적십자간의 接觸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함.
<p>1989. 8. 15 盧泰愚 大統領, 제44주년 光復 節 慶祝辭</p>	<p>〈民族共同體에 입각한 統一構想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된 祖國은 6천만 民族成員 모두가 主人이 되며 각자의 自由와 人權이 보장되는 民主國家여야 함. ○ 統一은 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정신에 따라 自主的으로,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으로, 그리고 民族大團結을 도모하고 民主的으로 실현되어야 함. ○ 남과 북은 統一을 이루는 中間段階로서 우선 서로가 서로를 認定하는 바탕위에서 共存共榮하면서 開放과 交流·協力을 통해서 民族共同體를 回復·發展시켜 나가야 함. ○ 남과 북이 이렇게 하나의 社會的·文化的·經濟的 共同體를 이루어 나가면서 政治的 統合의 여건을 成熟시켜 하나의 나라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를 이루는 統一을 達成해야 할 것임.</p> <p>○ 이 땅에 진정한 平和가 오고 통일 의 길이 열리려면 북한이 南朝鮮 赤化統一路線을 포기하고 일체의 對南挑發 테러행위와 우리에게 대한 顛覆企圖를 중단해야 하며 또한 북한은 北韓同胞에게 自由와 人權을 보장해야 함.</p> <p>○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統一의 課業을 本格的으로 推進해 나가기 위해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를 早速히 취할 것을 促求하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平和統一 興件造成을 위한 획기적 措置를 취할 것임.</p> <p>○ 北韓側은 그동안의 그릇된 對話姿勢를 조속히 是正하고 中斷되어 있는 각종 南北對話를 당장이라도 전면 正常化 할 수 있는 霧圍氣를 造成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임.</p> <p>○ 나는 責任있는 南北當局間의 정상적인 通路를 통한 對話와 合意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 걸친 폭넓은 交流와 關係를 개선하는 多角的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8. 25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北側 代表團長 전금 철,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第 8 次 準備接觸 개최 再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政界人士들과 各계각층 代表들이 서로 來往하고 接觸 하는 것은 민족의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고 統一의 局面을 여 는데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하나도 없음. ○ 北南國會 合同會議을 위한 제 8 차 相逢을 오는 9월 중순경에 가질 것을 제의함.
<p>1989. 8. 26 北韓赤十字會</p>	<p style="text-align: center;">〈赤十字 實務代表接觸 개최 再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오전 10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北南赤十字實務代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9. 5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대표단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實務代表接觸은 순수한 赤十字 人道主義精神에 입각하여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의 개최문제 등을 조속히 협의· 해결 함으로써 南北離散家族 再會問題의 膠着局面을 打開하는 귀중 한 契機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오는 9. 27 오전 10時,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3명의 代表를 내보낼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委員長 손성필, 對南書翰</p> <p>1989. 9. 1</p> <p>南北高位當局者 會談 豫備會談 北側 代表團長 백남준, 對南電 通文</p>	<p>表接觸을 가질 것을 다시금 提議함.</p> <p>○ 代表團은 쌍방 각기 3名の 代表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임.</p> <p>〈第3次 豫備會談 開催 再促求〉</p> <p>○ 오는 9. 18에 이미 합의한 귀족지역 「평화의 집」에서 第3차 豫備會談을 가질 것을 다시금 提議함.</p>
<p>1989. 9. 1</p> <p>南北體育會談 北側 代表團長 김형진, 對南 電通文</p>	<p>〈第3次 南北體育會談 開催 再促求〉</p> <p>○ 第3次 北南體育會談을 오는 9. 13에 가질 것을 다시금 정중 히 제기함.</p>
<p>1989. 9. 5</p> <p>祖國平和統一 委員會, 「전민 련」 앞 書翰 * 放送公開</p>	<p>〈汎民族大會 連絡委員會 構成 提議〉</p> <p>○ 우리는 지난 7월 平壤에서 해내의 동포들의 조국통일 촉진대 회를 가지고 1990. 8. 15 판문점에서 北과 南, 海外同胞들이 참가하는 汎民族大會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음.</p> <p>○ 우리는 汎民族大會는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그 성과적 준비를 위해 하루빨리 북과 남, 해외 동포대표들을 망라한 連絡委員會가 構成·運營되기를 기대함.</p> <p>이로부터 우리는 貴團體(全民聯)가 1990. 8. 15에 열리게 될 판문점 汎民族大會를 준비하기 위한 連絡委員會 業務를 맡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9. 11 盧泰愚 大統領, 第147回 定期國 會 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闡明〉</p> <p>(1) 統一方案 名稱 : 한민족공동체(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 KNC)</p> <p>(2) 統一의 原則</p> <p>〈自主〉: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自主的으로</p> <p>〈平和〉: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으로</p> <p>〈民主〉: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民主的으로</p> <p>(3) 統一의 過程</p> <p>○ 共存共榮의 토대위에서 남과 북이 聯合(南北聯合)하여 單一民族社會 지향 → 單一民族國家(統一民主共和國)建設</p> <p>(4) 過渡的 統一體制</p> <p>〈名稱〉: 南北聯合(The Korean Commonwealth)</p> <p>〈性格〉: 統一國家 실현의 中間過程</p> <p>〈役割〉: 共存共榮, 민족사회의 同質化, 民族共同生活圈 형성</p> <p>〈機構〉</p> <p>○ 南北頂上會議: 最高決定機構</p> <p>○ 南北關係會議</p> <p>— 共同議長(남북쌍방 總理)과 남북 각기 10名내외의 關係級으로 構成</p> <p>— 南北間의 모든 懸案問題와 民族問題에 대한 協議·調整 및 그 실행을 보장</p> <p>— 5개 常任委員會(人道, 政治·外交, 經濟, 軍事, 社會·文化분야)설치</p> <p>• 離散家族 再結合 문제</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불 南側代表 2名을 選定하여 알려 줄 것을 희망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治的 對決狀況 完化문제 • 國際社會에서의 민족역량 浪費防止 및 海外同胞의 權益伸張 문제 • 南北社會 開放과 다각적인 交流·交易·協力 추진 문제 • 民族文化의 暢達問題 • 共同繁榮의 經濟圈 형성 문제 • 軍事的 信賴構築과 軍備統制 문제 • 現 休戰協定體制의 평화체제로의 代替問題 등 <p>○ 南北評議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名 內外로 쌍방을 대표하는 同數의 南北 國會議員 - 南北閣僚會議에 대한 諮問, 統一憲法 起草 및 統一實現 方法和 節次 마련 <p>○ 共同事務處·常駐連絡代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閣僚會議와 南北評議會의 업무지원, 合意事項 이행을 비롯한 實務的 문제 관장 - 서울·平壤에 각각 常駐連絡代表 파견 <p><平和區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武裝地帶 내에 설정 ○ 「南北聯合」機構·施設 등 設置 ○ 「統一平和市」(Unification-Peace City)로 발전 <p>(5) 統一國家 樹立 節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評議會에서 마련한 統一憲法 草案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確定·公布 ○ 統一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 統一國會와 統一政府 구성·수립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9. 12</p> <p>南北體育會談 張忠植 首席代 表, 對北電通文</p>	<p>(6) 統一國家의 未來像</p> <p>○ 民族成員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自由·人權·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國家</p> <p>〈國家形態〉: 單一國家</p> <p>〈國會構成〉: 兩院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上院: 地域代表性 • 下院: 國民代表性 <p>〈政策基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主共和體制: 民族成員 전체의 참여와 機會均等 보장, 자유로운 主義·主張 표현 • 民族成員 모두의 福祉 증진 • 民族의 항구적인 安全保障, 世界平和 기여 • 모든 나라와 善隣友好關係 유지 <p>(7) 民族共同體 憲章 採擇</p> <p>○ 평화와 통일 위한 基本方案, 相互不可侵에 관한 事項, 「南北聯合」기구의 設置·運營 등에 대한 南北間의 포괄적인 合意를 규정</p> <p>○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憲章」 마련 및 公布</p> <p>〈제 3차 南北體育會談 개최제의〉</p> <p>○ 제 3차 會談이 제때에 열리지 못한 것은 貴側이 南北體育會談의 진행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問題를 결부시켜 쌍방간에 合意한 會談 開催日字를 일방적으로 3개월씩이나 延期시켰을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측이 여러차례에 걸쳐 貴側에 姿勢是正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反省이나 誠意表示가 없었기 때문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9. 16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豫備會談 宋漢虎 首席代 表, 對北電通文</p>	<p>○ 제 3 차 南北體育會談을 1989. 10. 20 오전 10시, 板門店 우리 측지역「平和의 집」에서 가질 것을 提議함.</p> <p>〈제 3 차 豫備會談 개최제의〉</p> <p>○ 南北間의 긴장과 대결을 해소하고 平和와 統一을 앞당기려면 하루빨리 남북 쌍방의 책임있는 高位當局者들이 會談을 갖고 쌍방이 제기하고 있는 懸案問題와 民族問題들을 하나하나 協 議·解決해 나가야 할 것임.</p> <p>○ 나는 제 3 차 豫備會談을 오는 10. 12 오전 10시, 板門店 「平 和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p>
<p>1989. 9. 18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蔡汶 植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p>〈제 8 차 準備接觸 개최제의〉</p> <p>○ 나는 9. 17 제147회 國會 會期를 시작한 우리측 國會의 運營日 程 관계로 南北國會會談 제 8 차 準備接觸을 오는 10. 25 오전 10시, 板門店 「평화의 집」에서 갖기를 희망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9. 20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電通文</p>	<p>〈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日字 同意 및 대표단명단 通報〉</p> <p>○ 우리가 제기한 회담날짜를 하루 앞두고 實務接觸을 20일간이 나 뒤로 미루자고 하는 등 貴側의 無誠意한 태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는 27일 오전 10시 3명의 實務代表들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내보낼 것임.</p> <p>[代表團名單]</p> <p>— 團 長 : 박영수(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常務委員) 代 表 : 김광수(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委員) 代 表 : 정덕기(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責任指導員)</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9. 22 金壽煥 世界聖體大會準備委員長, 北韓信者招請 * 정부에 신청</p>	<p>〈서울개최 世界聖體大會에 北韓信者 招請〉</p> <p>○ 북한 天主教 信者の 제44차 世界聖體大會 參席 및 聖地巡禮를 목적으로 10. 1~10. 15까지 北韓 天主教 信者 박경수(55세, 평양 장충성당 신도회장)등 20명을 초청함.</p> <p>※ 1989. 9. 25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 承認</p>
<p>1989. 9. 25 金相浹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대표단명단 通報〉</p> <p>○ 首席代表 : 宋榮大(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겸 代辯人)</p> <p>○ 代 表 : 李峻熙(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p> <p>代 表 : 李柄雄(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p>
<p>1989. 9. 26 徐義玄 韓國佛教宗團協議會會長, 北韓信者招請 * 정부에 신청</p>	<p>〈漢江燃燈祭에 북한 佛教信者 招請〉</p> <p>○ 오는 10. 14에 있을 「漢江燃燈祭」에 北韓 朝鮮佛教徒聯盟 中央委 박태호委員長 등 승려 및 신도 30餘名을 招請함.</p> <p>※ 1989. 9. 29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 承認</p>
<p>1989. 9. 27 제1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板門店 中監委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제11차 本會談 개최일자 및 장소 : 1989. 11. 1, 平壤</p> <p>○ 故鄉訪問團 訪問期間 : 1989. 12. 8 ~ 12. 13(5泊6日)</p> <p>○ 故鄉訪問團 規模 : 남북 各其 總 501명</p> <p>— 團長 : 赤十字 責任者 1명</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9. 27 제 1 차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本會談 開催日字 및 場所 : 1989. 12. 15, 平壤 <li style="padding-left: 2em;">* 제12차 本會談은 1990. 1. 18, 서울 ○ 故郷訪問團 訪問期間 : 1989. 11. 8 ~ 11. 11(3泊4日) ○ 故郷訪問團 規模 : 남북 各其 總 671명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鄉訪問團：300명 - 藝術公演團：50명 - 取材記者：100명 - 支援人員：50명 ○ 故鄉訪問團 構成：남과 북에 故鄉을 둔 離散家族 <li style="padding-left: 2em;">* 확인된 相逢對象者 우선 포함 ○ 故鄉訪問團 訪問地：離散家族의 自己 故鄉 ○ 相逢方法：고향을 직접 방문하여 相逢 및 省墓 ○ 藝術公演團：公演內容, 回數, 時間 등 공연에 따른 諸般事項은 先例準用 ○ 기타：1989. 1. 24 우리側이 전달한 4,346명의 이산가족찾기 의뢰인 명부에 대한 北側의 상응한 措置 促求

出 處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0. 3</p> <p>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 한 當局·政黨 ·團體 連席會 議, 「南朝鮮 當 局과 政黨·團 體들에 보내는 便紙」(9. 28 採 擇)</p> <p>* 放送公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長: 赤十字 副責任者 1명 - 故鄉訪問團: 300명 - 藝術公演團: 300명 - 取材記者: 30명 - 隨行員: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鄉訪問團 構成: 서울·平壤에 고향을 둔 當事者 위주 ○ 故鄉訪問團 訪問地: 서울·平壤 ○ 相逢方法: 家庭的 분위기속에서 個別的相逢(안내원 불참) ○ 藝術公演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演內容은 民族的인 것으로서 相對方 誹謗·刺戟 삼가 * TV·라디오로 實況中繼 - 公演回數: 4회 - 公演時間: 2~3시간 - 事前措置: 先發隊 派遣(10. 30~11. 1, 적십자 2명, 전문일군 3명) <p>〈民族統一協商會議 소집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近 南朝鮮에서는 각 政黨·團體·個人들이 각기 聯邦制를 비롯한 여러가지 統一方案들을 提起하고 있으며, 當局도 늦게나마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내놓았음. ○ 제각기 내놓은 統一方案들을 서로 補充하고 完成하여 민족의 요구와 意思를 반영한 하나의 統一方案으로 정립하는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北과 南의 當局과 各당·各파·各계각층이 參加하는 「民族統一協商會議」를 召集할 것을 正중히 提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參加對象: 北과 南의 當局, 主要政黨·團體 代表 * 國內外 各界人士도 個別的인 參加 可能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0. 5 徐義玄 韓國佛 教宗團協議會會 長, 對北電通文</p>	<p>〈漢江燃燈祭 招請狀 接受人員 派遣要求〉</p> <p>○ 韓國佛教宗團協議會는 今年 10. 14 漢江에서 연등제를 봉행하 는 바 韓民族大和合 祈願 大法會를 봉행, 이 法會 席上에서 貴 下(北韓 佛教徒聯盟委員長 박태호)가 보내온 백자 부처님의 點眼式을 갖고자 함.</p> <p>○ 나는 貴下를 비롯하여 貴側 佛教徒를 이 法會에 招請하기 위해 우리의 全 宗團을 代表하여 招請狀을 보내고자 하니 이 招請狀 을 받아갈 人員을 1989. 10. 7 午前 10時,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에 보내줄 것을 希望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議規模：北과 南 같은 數로 모두 60名 程度 - 討議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과 南의 當局과 政黨·團體들이 내놓은 統一 方案 • 祖國統一 방도에 관한 民族共同聲明 發表問題 • 그밖에 平和統一을 促進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建設的 方案 - 會議場所：平壤과 서울 번갈아 開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會議는 1990. 2. 20 平壤에서 開催 - 會議形式：北과 南 區別없이 모든 代表들이 同等資格으로 參加하는 多務的 圓卓會議 方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協商會談 테두리안에서 北과 南 最高當局者들은 아무때나 만나 統一과 北南關係 關聯되는 諸般問題 協議 可能 - 豫備會議 開催：1989. 11~1990. 1 期間중에 北과 南의 當局·政黨·團體들의 雙務的 또는 多務的 接觸 希望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0. 6 第2次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開催와 訪問團 交換時期：先 本會談 開催, 後 訪問團 交換 ○ 訪問團 規模：故郷訪問團의 數가 藝術公演團 數보다 많아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0. 6 南北高位當局者 豫備會談 北側 代表團長 백남 준, 對南電通文</p>	<p>〈第3차 豫備會談 開催同意〉</p> <p>○ 오는 10. 12 午前 10時, 우리側 豫備會談 代表團이 第3次 豫備會談을 위하여 板門店 貴側 建物로 나갈 것임을 通知하는 바임.</p>
<p>1989. 10. 6 第2次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本會談 開催와 訪問團 交換時期: 先 訪問團 交換 後 本會談 開催</p> <p>○ 訪問團 規模: 藝術公演團과 故鄉訪問團의 數를 同數로 할 것</p>
<p>1989. 10. 7 朝鮮佛教徒聯盟 中央委 代辯人 談話</p>	<p>〈南北佛教徒 代表會談 提議〉</p> <p>○ 우리는 最近 南朝鮮의 佛教宗團協議會가 漢江 燃燈大法會를 契機로 北半部 佛教徒들을 招請할 意思를 表示한 것은 肯定的인 발기라고 認定하면서 歡迎의 뜻을 포함.</p> <p>○ 우리는 이번에 우리 佛教徒聯盟 代表들을 招請하려는 問題들을 포함하여 北南 佛教徒들의 互相交流와 對話問題, 나라의 統一問題를 폭넓게 協議하기 위한 北南佛教徒 代表들의 會談을 빠른 時日안에 板門店에서 가질 것을 정중히 提議함.</p> <p>○ 이 會談에는 共和國 北半部 佛教徒聯盟 代表들과 함께 南朝鮮 佛教界를 總網羅한 各 宗團 團體 代表들이 다같이 參加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0. 8 盧泰愚 大統領, 美議會 兩院合 同會議 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開催 促求〉</p> <p>○ 나는 南北韓 頂上會談의 開催를 北韓에 促求함. - 頂上會談에서는 不可侵宣言, 軍縮을 포함한 모든 懸案을 아 무 前提條件 없이 자유롭게 論議 可能</p>
<p>1989. 10. 11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豫備會談 宋漢虎 首席代 表,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交替 通報〉</p> <p>○ 우리側 代表團의 龍永一 代表와 姜根鐸 代表가 다음과 같이 交替되었음을 알림. - 代表: 朴鍾權(國防部 合同參謀本部 局長) 代表: 廉弘喆(大統領秘書室 政務秘書官)</p>
<p>1989. 10. 12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第3次 豫 備會談 (板門店 「平和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本會談 名稱: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p> <p>○ 本會談 議題</p> <p>① 相互 誹謗中傷 中止問題</p> <p>② 相互尊重 및 不干涉 問題</p> <p>③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實施 問題</p> <p>④ 軍事的 信賴構築 問題</p> <p>⑤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p> <p>⑥ 其他 雙方이 提起하는 問題</p> <p>○ 代表團 構成: 軍參謀總長級 1名을 包含하여 7名</p> <p>○ 第1次 本會談 場所: 서울</p> <p>○ 隨行員: 40名</p> <p>○ 人的往來에 對備한 通行安全保障을 위해 「南北通行・通信에 관한 一般合意書」 締結 提議</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0. 12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第3次 豫 備會談 (板門店 [平和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名稱：「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 本會談 議題：「北과 南사이의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 데 대하여」 ○ 代表團 構成：軍代表 2名을 包含하여 7名 ○ 第1次 本會談 場所：平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로 讓步 用意 ○ 隨行員：30名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0. 13 徐義玄 韓國佛 教宗團協議會 會長, 對北電通 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佛教徒 實務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佛教宗團協議會는 10. 14 漢江에서 봉행하는 燃燈祭에 貴側의 佛教徒를 招請한 바 있음. ○ 우리는 貴側이 10. 7 佛教徒聯盟 代辯人 聲明을 통해 우리의 招請에 대해 參加할 의향을 表明한 것을 歡迎하며 貴側의 參加에 따른 節次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板門店 連絡官 2名과 함께 우리 佛教宗團協議會의 實務接觸 代表 2名을 10. 13 오후 4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派遣하고자 함. ○ 貴側의 相應한 措置와 함께 가능하다면 이번 實務接觸에 「燃燈大法會」에 參加할 貴側 人員의 名單을 함께 보내줄 것을 期待함.
<p>1989. 10. 16 第3차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問團 交換日字 및 本會談 開催日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問團 交換日字 : 1989. 12. 8 - 本會談 開催日字 : 1989. 12. 19 ○ 訪問團 規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鄉訪問團 : 300名 - 藝術公演團 : 50名 ○ 訪問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鄉訪問團 : 直接 自己故鄉까지 방문 - 藝術公演團 : 서울·平壤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0. 13 朝鮮佛教徒聯盟 中央委員會聲明 * 電話通知文 을 통해 전달</p>	<p>〈漢江燃燈大法會 參加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燃燈大法會 參加問題와 關聯한 節次協議는 時間上으로 너무 늦었으며 혹시 실현된다 하여도 내일 하게 될 大法會에 參加한다는 것은 도저히 不可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問題는 接觸과 來往을 하루빨리 實現하기 위하여 北과 南의 佛教徒代表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는데 있으며, 이와같은 立場에서 우리가 提議한 北南 佛教徒代表들의 會談에 呼應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促求함. ○ 會談에서는 相互 招請과 交流問題, 接觸과 對話問題, 나라의 統一問題등을 폭넓게 協議하며 이 會談에서는 우리 佛教徒聯盟代表들과 함께 南朝鮮 佛教宗團協議會와 民族自主統一佛教運動協議會, 民衆佛教運動聯合 代表들을 비롯한 여러 佛教團體 代表들이 參加해야 할 것임.
<p>1989. 10. 16 第3次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問團 交換日字 및 本會談 開催日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問團 交換日字 : 1989. 12. 8 - 本會談 開催日字 : 1989. 12. 15 ○ 訪問團 規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鄉訪問團 : 北側 300名, 南側 300名 - 藝術公演團 : 北側 300명, 南側 50名 ○ 訪問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鄉訪問團 : 平壤·서울 - 藝術公演團 : 平壤·서울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0. 20 第3次 南北體 育會談 (板門店「平和 의 집」)</p>	<p>〈合意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問團 交換日字 및 本會談 開催日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問團 交換日字 : 1989. 12. 8 - 本會談 開催日字 : 1989. 12. 15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呼稱 : 우리말로 「한나라」 英文으로는 「KOREA」 ○ 團旗 : 흰색바탕에 하늘색 韓半島地圖 ○ 選手選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同訓練을 實施하여 選拔戰을 통해 選手選拔 - 選拔戰은 各種目別로 서울・平壤등 雙方이 同意하는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1회이상 實施 - 어느 一方에 特定種目の 選手가 없거나 適合한 選手를 保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選手를 保有하고 있는 側에서 選拔 - 選手選拔方法, 選拔戰 時期, 競技用 기구, 競技規則, 審判選定등 기타 細部の인 事項은 「南北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協議・決定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容
<p>1989. 10. 16</p> <p>南北體育會談 北側代表團長 김형진, 對南電 通文</p>	<p>〈合意事項〉</p> <p>※ 左 同</p>	<p>〈第3次 體育會談 開催同意〉</p>	<p>○ 나는 10. 20 午前 10時, 第3次 北南體育會談을 위하여 우리 代表團이 板門店 南側地域에 나갈 것이라는 것을 通知하는 바 임.</p>
<p>1989. 10. 20</p> <p>第3次 南北體 育會談 (板門店 「平和 의 집」)</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名稱 : 우리말로 「코리아」 英文으로는 「KOREA」</p> <p>○ 깃발 : 흰색바탕에 하늘색 朝鮮半島地圖</p> <p>○ 選手選拔 : 南北選手들이 서로 한데 어울린 共同訓練을 통하여 優秀한 選手選拔</p> <p>* 종목별 選手選拔 方法을 決定하기 위한 實務接觸 提議</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p>○ 團旗：흰색바탕에 하늘색 韓半島地圖</p>
<p>1989. 10. 23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蔡汶 植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 交替通報〉</p> <p>○ 우리側 代表團의 金龍煥 代表가 李煥逸 代表(新民主共和黨)로 交替되었음을 알림.</p>
<p>1989. 10. 25 南北國會會談 第8次 準備 接觸 (板門店「平和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議題</p> <p>①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p> <p>② 南北不可侵宣言 問題</p> <p>③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p>
<p>1989. 11. 8 第4次 南北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訪問團 規模</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0. 21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北側 代表團長 전금 철, 對南電通文</p>	<p>〈合意事項〉</p> <p>○ 깃발 : 흰색바탕에 하늘색 朝鮮半島地圖</p> <p>〈第8次 準備接觸 開催同意〉</p> <p>○ 나는 北南國會議員들의 第8次 相逢을 위하여 우리側 代表들 이 오는 6.25 午前 10時, 板門店 貴側地域으로 나갈 것임을 通知함.</p>
<p>1989. 10. 25 南北國會會談 第8次 準備接觸 (板門店 「平和 의 집」)</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議題</p> <p>① 北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發表 問題</p> <p>② 北과 南 사이의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實施할 데 대한 問題</p> <p>*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中止 問題는 일단 留保(但, 南側의 軍事演習을 하지 않겠다는 擔保를 前提)</p>
<p>1989. 11. 8 第4次 南北赤</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訪問團 規模</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長：赤十字 責任者 1名 - 故鄉訪問團：300名 - 藝術公演團：100名 - 取材記者：30名 - 支援人員：40名 <p>○ 其他問題는 第1次 訪問團 交換時(1985年)合意한 先例대로 一括妥結</p>
<p>1989. 11. 13 제 5 차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訪問團 規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鄉訪問團：300명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長：赤十字 副責任者 1名 - 故鄉訪問團：300名 - 藝術公演團：50名~300名 範圍內에서 相互 便宜主義 - 取材記者：30名 - 隨員：40名 <p>* 藝術公演團 規模를 250名까지 할 수 있다고 修正提議</p> <p>○ 公演內容 中繼問題：TV放送과 소리放送으로 實況中繼</p>
<p>1989. 11. 9 外交部 聲明</p>	<p>〈韓半島 非核·平和地帶化 관련 3者會談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政府는 朝鮮半島에 非核地帶를 창설하며 그 지위를 확고히 担保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當事者들의 協商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 ○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化 문제는 우리와 美國, 南조선의 3者會談을 올해안으로 제네바 또는 서로 합의한 場所에서 열고 南조선에 배치한 核武器 撤收問題를 토의 해결하여야 함. ○ 3者會談에서 美國의 核武器 철수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조선의 북과 남이 會談을 열고 朝鮮半島를 非核地帶로 만들데 대한 共同宣言을 채택해야 함. ○ 북과 남의 會談은 共同宣言과 擔保文件 草案작성을 위한 專門家級 會談과 그의 정식 채택을 위한 當局代表들의 회담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할 것임.
<p>1989. 11. 13 제5차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問團 規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鄉訪問團：300명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板門店 中監委會議室)</p> <p>1989. 11. 15</p> <p>南北高位當局者會談 제 4 차 豫備會談</p> <p>(板門店 「統一閣」)</p>	<p>- 藝術公演團 : 100명</p> <p>* 藝術公演團 120명 折衷案 제시</p> <p>○ 藝術公演 中繼問題 : 藝術團 規模를 쌍방 각기 100명으로 하는 조건에서 예술공연 實況中繼</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本會談 名稱 :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p> <p>○ 本會談 議題 : 「南北間의 多角의인 交流 · 協力과 政治 · 軍事的 對決상태 해소문제」</p> <p>○ 代表團 構成 : 軍參謀總長級 1명을 포함하여 7名</p> <p>○ 隨行員 : 30명 內외</p>
<p>1989. 11. 16</p> <p>제 4 차 南北體育會談</p> <p>(板門店 「統一閣」)</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呼稱 : 우리말로는 「코리아」 英文으로는 「KOREA」</p> <p>* 中國語로는 英語發音대로 表記</p> <p>○ 選手選拔</p> <p>가. 선수선발을 위해 合同訓練 실시, 選拔戰을 통해 選手選拔</p> <p>나. 選拔戰은 各 種目別로 서울 · 平壤에서 번갈아 1회 이상 실시</p> <p>다. 選拔戰은 各 種目別로 특성에 따라 區分하여 실시</p> <p>(1) 記錄種目</p> <p>(가) 기록종목은 陸上 · 競泳 · 力道 · 양궁 · 射擊 · 사이클 · 漕艇 · 카누 · 요트 · 골프</p> <p>(나) 기록종목은 選拔戰의 記錄을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합</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藝術公演團 : 200명</p> <p>* 訪問團 總規模를 支援人員 40명, 隨行記者 30명, 團長 1명 등 71명을 포함한 571명으로 하고, 藝術團·故訪團 規模는 이 범위내에서 각기 편리한대로 하자고 修正提議</p>
<p>1989. 11. 15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제 4 차 豫 備會談 (板門店 「통일 각」)</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本會談 名稱 : 「南北高位級政治·軍事會談」</p> <p>○ 本會談 議題 : 「북과 남 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 대결상 태를 解消할 데 대하여」</p> <p>○ 代表團 構成 : 軍實權者 2명을 포함하여 7名</p> <p>○ 隨行員 : 30명</p>
<p>1989. 11. 16 제 4 차 南北體 育會談 (板門店 「統一 閣」)</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명칭 : 우리말로는 「코리아」 英語로는 「KOREA」</p> <p>○ 選手選拔</p> <p>(1) 選拔競技를 통하여 選手選拔</p> <p>(2) 어느 한쪽에서만 種目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측이 該當種目에 대하여 出戰</p> <p>(3) 선발의 구체적 形式과 方法, 選拔競技 回數와 時期, 競技用 기구와 경기규칙 및 審判選定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북 남유일팀공동위원회」에서 協議</p> <p>○ 訓練</p> <p>(1) 共同訓練(合同訓練)과 綜合訓練(強化訓練)으로 구분하여 進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style="text-align: center;">동훈련 기간중의 評價記錄도 고려</p> <p>(㉔) 사이클·漕艇·카누·요트의 團體競技에 있어서는 팀 위이 크게 요구되는 점을 勘案, 남북선수간의 選拔戰에 서 승리한 팀을 선발</p> <p>(2) 採點種目</p> <p>(㉕) 채점종목은 體操·다이빙·우슈</p> <p>(㉖) 채점종목은 選拔戰의 점수를 위주로 하여 選拔하되 합 동훈련 기간중의 評價點數도 고려</p> <p>(㉗) 細部種目別 出戰選手가 2명 이상인 경우, 남과 북에서 각기 적어도 1명씩은 포함</p> <p>(3) 鬪技種目</p> <p>(㉘) 투기종목은 복싱·柔道·레슬링·펜싱·카바디</p> <p>(㉙) 복싱·柔道·레슬링의 경우, 南北選手間의 選拔戰을 실 시하여 우승을 거둔 選手를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합 동훈련 기간중의 評價內容과 국제대회 戰績도 고려</p> <p>(㉚) 펜싱의 경우, 劍別로 리그전 形式의 選拔戰을 실시하여 勝率順으로 선발</p> <p>(㉛) 카바디의 경우, 球技種目中 蹴球·籠球등의 例에 따름.</p> <p>(4) 球技種目</p> <p>(㉜) 구기종목은 蹴球·籠球·排球·卓球·水球·핸드볼· 소프트볼·하키·세팍타크로·테니스·배드민턴·軟式 庭球·野球</p> <p>(㉝) 蹴球·籠球·排球·水球·핸드볼·소프트볼·하키·세 팍타크로·野球의 경우에는 팀위가 크게 요구되는 점 을 勘案하여 南北選手間의 選拔戰에서 먼저 2승을 거 둔 팀을 위주로 하여 選拔하되 진 팀의 優秀選手도 일</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2) 共同訓練에 참가할 선수와 指導員 數는 제11차 北京아시아 경기대회 組織委가 정한 種目別 競技參加 人員數 정도로 북과 남이 각기 결정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북남유일팀 공동위원회」가 決定</p> <p>(3) 共同訓練期間中 選手交替 可能</p> <p>(4) 共同訓練段階에서 종목별 責任指導員(감독)은 훈련이 진행되는 후에도 말음.</p> <p>(5) 共同訓練은 「북남유일팀공동위원회」가 나온 후 1개월 안으로 시작</p> <p>(6) 共同訓練과 綜合訓練은 북과 남의 既存施設을 이용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제 3의 場所·施設 利用</p> <p>(7) 訓練과 관련한 모든 條件과 便宜는 훈련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보장</p> <p>(8) 訓練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북남유일팀공동위원회」에서 協議·決定</p> <p>○ 選手團 構成</p> <p>(1) 團長은 共同團長制</p> <p>(2) 責任指導員은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種目別 選手들이 많은 측에서 말음.</p> <p>(3) 選手 및 役員(任員)構成은 OCA憲章과 競技大會組織委 技術規程에 준함.</p> <p>(4) 選手團 人員構成은 북남간에 均衡保障</p> <p>(5) 最終選手團 構成은 1990. 6. 22 前으로 完了</p> <p>○ 選手團 費用</p> <p>(1) 訓練과 出戰등에 따르는 비용은 북과 남이 共同으로 부담</p> <p>(2) 유일팀 成員들과 그 關係人員들의 북남래왕과 관련한 모든</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부 포함되도록</p> <p>(ㄷ) 卓球·테니스·배드민턴·軟式庭球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그전 形式의 選拔戰을 실시하여 勝率順으로 선발</p> <p>라. 어느 일방에 特定種目的 選手가 없거나 적합한 選手를 保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選手를 保有하고 있는 측에서 선발</p> <p>마. 選手選拔의 구체적 方法, 選拔戰 時期, 競技用 기구, 競技規則, 審判選定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南北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費用은 초청측에서 부담</p> <p>○ 身邊安全保障</p> <p>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그 關係 成員들에 대한 身邊安全은 북과 남의 關係當局이 身邊安全保障覺書 交換</p> <p>○ 唯一팀 共同機構</p> <p> 쌍방은 유일팀의 훈련과 競技大會 參加와 相關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남유일팀공동위원회」 및 그 執行 機構로서 「북남유일팀공동사무국」 設置·運營</p> <p>(1) 共同委員會와 共同事務局은 본 合意書를 채택한 후 15일 안으로 事業着手</p> <p>(2) 共同委員會는 쌍방 올림픽委員會와 종목별 경기단체 關係者 들로 각각 10명 내외로 構成하며, 共同委員長을 두고 한달 에 1회 이상 平壤·서울에서 번갈아 會議召集</p> <p>(3) 共同委員會 機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選拔 및 訓練에 關한 事項 -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關한 事項 - 유일팀의 來往등 南北間 제기되는 事項 - 競技大會 기간중에 열리는 各級 體育機構會議와 行事參加 및 審判과 相關한 事項 - 國際 및 아시아體育機構, 競技大會組織委와의 關係에서 유일팀을 대표하는 對外的 機能遂行과 相關한 사항 - 기타 다른 諸般事項 <p>(4) 共同委員會 밑에 共同事務局 設置·運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무국은 板門店에 둠. - 공동사무국에는 共同事務局長들과 필요한 部署 및 適正數의 人원을 둠.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1. 21 제 6 차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p>○ 呼稱：우리말 「코리아」 英文 「KOREA」(略字：KOR)</p> <p>* 中國語로는 「高麗」로 表記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訪問團 規模</p> <p>— 故鄉訪問團：350명</p> <p>— 藝術公演團：150명</p> <p>○ 公演回數：3회</p> <p>○ 公演時間：150분 정도</p> <p>○ 團長：赤十字 副責任者級 이상 人士</p> <p>○ 故訪團對象者：남과 북에 故鄉을 둔 離散家族</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p>○ 訪問團 規模</p> <p>— 우리側：故鄉訪問團 350명, 藝術公演團 150명, 取財記者 30명, 支援人員 40명, 引率者 1명(總571명)</p> <p>— 北 側：故鄉訪問團 300명, 藝術公演團 200명, 取材記者 30명, 隨行員 40명, 引率者 1명(總571명)</p> <p>* 總571명 範圍內에서 故訪團 · 藝術團 規模를 각기 편리한 대로 구성</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1. 21 제 6 차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공동사무국은 선수들이 체류하고 있는 북과 남의 모든 장소들과 直通連絡手段 架設·運營</p> <p><合意事項></p> <p>※ 左 同</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訪問團 規模</p> <p>- 故鄉訪問團：300명</p> <p>- 藝術公演團：200명</p> <p>○ 公演回數：4회</p> <p>○ 公演時間：2~3시간</p> <p>○ 團長：赤十字 副責任者</p> <p>○ 故訪團 對象者：서울·平壤에 고향을 둔 當事者 위주</p> <p>○ 公演內容：「꽃파는 처녀」등 革命歌劇</p> <p><合意事項></p> <p>※ 左 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1. 23 盧泰愚 大統領, 헝가리 國會演 說</p>	<p>○ 公演內容原則：民族的인 內容, 健全한 內容,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는 內容 등 「3個原則」</p> <p>〈南北頂上會談 早速 開催 促求〉</p> <p>○ 나는 北韓의 金日成 主席에게 南北韓 頂上會談을 早速히 開催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p> <p>— 頂上會談을 통해 軍縮과 相互不可侵宣言을 포함한 모든 懸 案을 前提條件없이 論議·解決 可能</p> <p>○ 北韓이 開放된 세계로 나와 모든 나라와 協力하고 우리와 합 께 南北間에 和解와 統一의 길을 여는 데 나서 주기를 바랍.</p>
<p>1989. 11. 24 제 5 차 南北體 育會談 (板門店 「평화 의 집」)</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選手選拔戰 實施方法：選拔戰은 合同訓練 마지막 段階에서 남 북선수간에 公開發로 실시</p> <p>○ 選拔戰 場所·回數：選拔戰은 各 種目別로 서울·平壤등 남 북의 地域에서 번갈아 1회이상 실시</p> <p>〈合意 事項〉</p> <p>○ 未合意事項을 討議하기 위한 實務代表接觸 개최</p> <p>— 日時·場所：1989. 12. 1, 板門店 中監委會議室</p>
<p>1989. 11. 27 제 7 차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公演回數：3회</p> <p>○ 公演時間：150분 정도</p> <p>○ 團 長：赤十字 副責任者級 이상 人士</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1. 24 제 5 차 南北體 育 會 談 (板門店 「평화 의 집」)</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選拔戰實施方法 : 남북선수간의 公開的 선발전에 반대 ○ 選拔戰 場所 · 回數 : 選拔戰의 場所 · 回數는 공동위원회에서 協議 · 決定 <p>〈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未合意事項을 토의하기 위한 實務代表接觸 개최 - 日時 · 場所 : 1989. 12. 1,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p>1989. 11. 27 제 7 차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演回數 : 4회 ○ 公演時間 : 3시간 ○ 團 長 : 赤十字 副責任者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板門店 中監委會議室)</p> <p>1989. 11. 29</p> <p>南北國會會談 제 9 차 準備接 觸 (板門店「동일 각」)</p>	<p>○ 訪問團 對象者：남과 북에 故鄉을 든 離散家族</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議題</p> <p>①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p> <p>② 南北不可侵宣言 問題</p> <p>③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p> <p>○ 會談形式：「議題討議를 위한 모임」은 雙務會談 性格인 代表會談</p> <p>〈合意事項〉</p> <p>○ 議題 2 項「南北不可侵宣言 問題」를 議題의 하나로 採擇</p>
<p>1989. 12. 1</p> <p>南北體育會談 제 1 차 實務代 表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選拔戰 實施方法：선발전은 合同訓練 마지막 段階에서 남북 선수간에 公開發적으로 실시</p> <p>○ 採點種目 選拔方法：세부종목별 出戰選手 2명 이상인 경우, 각기 1명씩은 포함</p> <p>○ 團長・副團長：團長은 選手數가 많은 측 副團長은 選手數가 적은 측</p> <p>○ 本部任員：쌍방 選手比率에 따라 구성</p> <p>○ 共同事務局 設置場所：서울・平壤에 설치</p> <p>○ 共同事務局 人員派遣・常駐：適正數의 人원을 共同事務局에 派遣・常駐</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板門店 中監委會議室)</p> <p>1989. 11. 29</p> <p>南北國會會談 제9차 準備接觸 (板門店「통일각」)</p>	<p>○ 故訪團 對象者：서울·平壤에 故鄉을 둔 當事者 위주</p> <p>○ 藝術團 公演內容：「꽃파는 처녀」등 革命歌劇</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議題</p> <p>① 北南不可侵宣言 發表問題</p> <p>② 북과 남 사이의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실시할데 대한 問題</p> <p>○ 會談形式：「基本問題討議를 위한 會議」는 連席會議 性格인 代表會議로 함.</p> <p>〈合意事項〉</p> <p>○ 「南北不可侵宣言 問題」를 議題의 하나로 採擇</p>
<p>1989. 12. 1</p> <p>南北體育會談 제1차 實務代表接觸 (板門店 中監委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選拔戰 實施方法：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p> <p>* 남북 선수간의 公開的 選拔戰 반대</p> <p>○ 採點種目 選拔方法：競技에 참가할 選手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기 1명씩은 포함.</p> <p>○ 團長：共同團長制</p> <p>○ 任員：南北間 均衡保障</p> <p>○ 共同事務局 設置場所：板門店에 설치</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2. 4 南北赤十字 實 務代表接觸 首 席代表 個別接 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赤十字會談 開催問題：쌍방이 合意한 날짜(12. 15)에 개최할 것을 주장 ○ 公演內容 問題：革命歌劇이 아닌 다른 內容으로 變更 主張 ○ 實務會談接觸 繼續問題：追後 直通電話로 연락
<p>1989. 12. 6 南北體育會談 제 2 차 實務代 表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長：選手數가 많은 측이 團長, 적은 측이 副團長
<p>1989. 12. 7 南北赤十字 實 務代表接觸 宋 榮大 首席代表, 對北通電文</p>	<p style="text-align: center;">〈藝術公演內容 變更 및 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開催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 차 訪問團 交換事業이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實現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제 2 차 訪問團 交換事業은 離散家族問題를 해결하여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南北赤十字團體들이 온 겨레 앞에 약속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實現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적한 바와같이 實務代表接觸의 타결을 어렵게 만든 貴側 公演內容에 대한 變更이 先行되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은 쌍방이 合意한대로 12. 15 平壤에서 妥當히 개최되어야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2. 4 南北赤十字 實 務代表接觸 首 席代表 個別接 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차 赤十字會談 開催問題：先 訪問團交換, 後 本會談開催 주장 ○ 公演內容問題：계속 協議할 문제라고 주장 ○ 實務代表接觸 繼續問題：제 8 차 實務代表接觸 1990. 1. 22 개 최 제의
<p>1989. 12. 6 南北體育會談 제 2 차 實務代 表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長：共同團長制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2. 7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訪問團 交換 및 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開催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訪問團 交換의 時期와 訪問地, 藝術公演의 實況中繼 問題에서 뿐만 아니라 訪問團 規模에 있어서도 북한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受容하였음. ○ 그러나 北韓側은 藝術공연에만 치중한 채 우리측의 성의 있는 노력과 離散家族들의 念願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最終合意 段階에서 革命歌劇을 公演해야겠다고 주장했음. ○ 大韓赤十字社는 離散家族들의 輿望이 내년에는 기필코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傾注해 나갈 것임. ○ 아울러 赤十字 本會談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北韓側이 이에 성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바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2. 11 南北赤十字 實 務代表接觸 北 側團長 박영수, 對南電通文</p>	<p>〈藝術公演內容 變更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革命歌劇 「꽃파는 처녀」를 公演種目으로 選擇한 것은 「예술단 교환공연의 內容과 形式에 관한 原則」에 전적으로 符合되는 것으로서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에 아무런 문제로도 될 것이 없으며 더욱이 그것이 赤十字 實務代表들의 接觸을 遲延시키는 구실로 될 수 없음. ○ 제 2 차 赤十字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이 선행되어 성 과적으로 실현된다면 제11차 赤十字 本會談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게 될 것임. ○ 제 8 차 實務代表接觸을 오는 1990. 1. 22에 가질데 대한 우리 側의 提議에 귀측이 호응할 것을 기대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2. 13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對南書翰 接受拒否〉</p> <p>○ 12. 12자 貴側 電通文과 관련, 우리측 政府의 요청에 따라 貴側 편지를 接受하지 않을 것임을 알림.</p>
<p>1989. 12. 15 南北赤十字 實 務代表接觸 宋</p>	<p style="text-align: center;">〈藝術公演內容 變更 再促求〉</p> <p>○ 貴側이 공연내용에 대한 立場을 고집하고 제11차 南北赤十字 會談의 12. 15 개최마저 霧散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2. 12 北韓赤十字會 委員長 손성필, 對南電通文</p>	<p>〈民族統一協商會議 召集관련 書翰傳達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統一協商會議 북측 준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貴側 當局 · 政黨 · 團體들에 보내는 편지를 傳達하기 위해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에 내보낼 것임.
<p>1989. 12. 14 「民族統一協商會議」北側準備委員長 정준기, 「南朝鮮 當局과 政黨 · 團體들에 보내는 편지」(12.7 북측 준비위에서 채택) * 방송공개</p>	<p>〈民族統一協商會議 豫備會談 開催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民族統一協商會議의 첫 會議을 1990. 2. 20 平壤에서 개최할 것을 提議함. ○ 우리는 이 會議을 성과적으로 召集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豫備會談 期間으로 정하고 그동안 북과 남의 當局과 政黨 · 團體들 사이의 雙務的 또는 多務的 接觸을 통해 준비사업을 추진시켜 나갈 것을 提議함. ○ 이와 관련하여 내년 1. 17경 북과 남의 當局과 政黨團體들에서 각각 1~2명 代表들이 참가하여 板門店에서 民族統一協商會議 召集을 위한 豫備會談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바이며, 이에 긍정적 호응이 있기를 기대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榮大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예술 공연단 交換에는 쌍방 公演內容이 赤十字의 原則과 訪問團 交換의 趣旨등에 적합해야 하며 특히 쌍방이 상호 受容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 ○ 이러한 見地에서 實務代表接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貴側 公演內容이 變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쌍방이 마주 앉아 보아야 어떠한 成果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p>1989. 12. 15 南北體育會談 제 3 차 實務代 表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 選拔戰 公開的 實施 ○ 選手團 經費, 選手團 및 關係人員들의 身邊安全保障
<p>1989. 12. 20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제 5 차 豫 備會談 (板門店 「평화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議題: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의 對決狀態 解消問題」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名稱: 「南北高位級會談」 ○ 代表團에 포함되는 軍事代表數: 相互 便宜主義 * 우리측은 1명, 북측은 2명 주장 ○ 隨行員 數: 33명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容
<p>1989. 12. 15 南北體育會談 제 3 차 實務代 表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合意事項〉</p> <p>※ 左 同:</p>		
<p>1989. 12. 20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제 5 차 豫 備會談 (板門店 「평화 의 집」)</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本會談 議題: 「南北間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며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實現할 데 대하여」</p> <p>〈合意事項〉</p> <p>○ 本會談 名稱: 「北南高位級會談」</p> <p>○ 代表團에 포함되는 軍事代表數: 相互 便宜主義</p> <p>○ 隨員數: 33名</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2. 22 第 6 次 南 北 體 育 會 談 (板 門 店 「統 一 閣」)</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一팀 構成・參加와 關聯한 主要爭點인 「單一팀 中國語 呼稱」, 「選手團 團長制」, 「共同事務局 設置場所」등 우리側 提案에 대한 北側의 同意 促求 ○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을 위해 「合意事項의 用語 定義」, 「推進日程의 遵守」, 「體育外의 問題와 의 不連繫」,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問題」등에 合意하고 雙方當局이 이를 保障하 자고 提議 <p>〈合意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一팀 中國語 呼稱 表記 : 「可禮亞」 ○ 選手團 團長制 : 選手數가 많은 측에서 團長, 選手數가 적은 측에서 副團長 ○ 共同事務局 設置場所 : 서울・平壤 ○ 共同委員會 및 共同事務局 構成・運營方法 <p>* 北側도 案을 제시했으나 檢討 및 討議없이 우리측 안에 無</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2. 21 南北赤十字 實 務代表接觸 北 側團長 박영수, 對南電通文</p>	<p>〈藝術公演 內容變更 再次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歌劇 「꽃파는 처녀」로 말하면 그것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 藝術公演內容 및 形式設定原則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서 귀측이 이에 대하여 問題視할 하등의 이유와 근거가 없음. ○ 貴側이 아무런 문제도 될 수 없는 歌劇 「꽃파는 처녀」를 걸고 人道的 問題解決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1990. 1. 22 제 8 차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에 나올 것을 促求함.
<p>1989. 12. 22 제 6 차 南北體 育會談 (板門店 「統一 閣」)</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要爭點인 「單一팀 中國語 呼稱」, 「選手團 團長制」, 「共同事務局 設置場所」등에 대한 南側 提案에 同意 ○ 共同委員會 및 共同事務局 構成 · 運營方案에 대해서도 檢討 및 討議없이 南側案에 無條件 同意 *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問題에 대해서도 原則적으로 同意 <p>〈合意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一팀 中國語 呼稱 表記 : 「可禮亞」 ○ 選手團 團長制 : 選手數가 많은 측에서 團長, 選手數가 적은 측에서 副團長 ○ 共同事務局 設置場所 : 서울 · 平壤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89. 12. 29 南北赤十字 實 務代表接觸 宋 榮大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條件 同意</p> <p style="text-align: center;">〈藝術公演內容 變更時 實務代表接觸 再開表明〉</p> <p>○ 貴側이 藝術公演內容에 대한 調整意思를 表明한다면 언제든지 實務代表接觸을 다시 갖고 제2차 訪問團 交換事業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우리측 立場에 變化가 없음을 알리는 바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0年

1990年 主要 提議・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1 盧泰愚 大統領 新年辭</p>	<p style="text-align: center;">〈90年代는 民族統合의 큰 길을 여는 年代가 되도록 努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世紀的인 變革을 分斷克服의 기회로 삼아 民族統合의 큰 길을 여는 것도 우리가 90년대에 이루어야 할 課業임. ○ 우리는 北方政策을 통해 北韓의 開放을 促進할 것임. ○ 우리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北韓을 포용하는 政策을 더욱 積極的으로 펼쳐 나갈 것임. ○ 우리는 北韓의 어떠한 變化에도 積極的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 추어 나갈 것임.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p>1990. 1. 1 金日成 新年辭</p>	<p>〈南北 當局·政黨 首腦 協商會議 召集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민족의 統一念願과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북과 남 사이의 障壁을 마스고 自由來往을 실현하며 북과 남이 서로 全面開放할 것을 주장함. - 軍事分界線 南側地域에 쌓아놓은 混凝土 障壁부터 허물어 버려야 함. - 북과 남의 勞動者·農民·靑年學生들과 政治人·經濟人·文化人·宗教人을 비롯한 各계各층 人민들이 相對地域을 자유로이 來往하면서 制限없이 접촉하여 活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북과 남은 自由來往을 실현하는데 머물지 말고 政治·經濟·文化를 비롯한 모든 分野를 서로 全面開放하는 길로 나아가야 함. <p>○ 이러한 協商을 위하여 북과 남의 最高位級이 參加하는 當局과 各政黨 首腦들의 協商會議를 召集할 것을 提議함.</p>
<p>1990. 1. 9 政務院總理 연 형묵, 對南電通 文</p>	<p>〈對南書翰 直接傳達 위한 連絡官 서울派遣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聯合會議의 委任에 따라 聯合會議에서 채택된 便紙를 貴側 當局과 各政黨 首腦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名의 連絡員을 板門店을 거쳐 서울에 보내려고 함. ○ 이와 相關한 實務節次問題를 討議하기 위하여 1.12 오전 10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쌍방 實務者들의 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10 盧泰愚 大統領, 年頭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의 早速한 開催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斷 半世紀를 앞둔 이제 南北韓은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對話·交流·協力을 통해 統一의 時代를 함께 열어가야 함. 民族統合을 위한 가장 核心的인 이 문제는 南北當局, 특히 그 最高責任者間의 會談을 통해 解決될 수 있는 것임. ○ 自由往來, 全面開放의 合意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書信交換과 電話通話, 南北離散家族들의 自由로운 往來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北韓側이 성의를 보일 것을 促求하며 通行·通信協定의 締結을 추진할 것임. ○ 北韓이 옹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金강산을 포함한 觀光資源등을 共同開發하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며, 南北韓間의 物資交易도 계속 추진하여 經濟共同體 形成을 위한 실질적인 措處를 해 나갈 것임. ○ 南北對話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우리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올해 팀스피리트 訓練을 縮小하여 실시하기로 韓·美間에 합의하였음. ○ 우리는 防禦目的의 이 훈련을 직접 參觀하도록 北韓과 中國및 中立國監視團 4個國을 초청하며, 이와 함께 北韓이 실시하고 있는 軍事訓練을 우리도 參觀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促求함.
<p>1990. 1. 10 南北體育會談 第4次 實務代 表接觸</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팀 構成·參加와 有關한 「合意事項 이행을 보장 하는 裝置」 및 「親善交換競技·施設踏查班派遣」등 相互 信賴保障방안 講究問題를 基本合意書의 附則으로 提示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10 南北體育會談 第4次 實務代表 接觸</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合意事項 이행보장方案 제시없이 10개 基本事項 및 共同推進 機構 운영세척에 대한 文案討議만을 主張</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	<p>* 4개 附屬合意書(案) 포함</p> <p>[基本 合意書(案)]</p> <p>(1) 呼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로 「코리아」 ○ 英文으로 「KOREA」(略字 : KOR) ○ 中國語로는 「可禮亞」(「高麗」로는 表記하지 않음.) <p>(2) 團旗</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地圖 ○ 地圖에는 韓半島와 濟州島를 상징적으로 그려넣고 기타 섬 들은 省略 <p>(3) 團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0年代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 <p>(4) 選手選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拔戰을 통하여 선발 ○ 選拔戰은 合同訓練期間 마지막단계에서 남북선수간에 公開的으로 實施 ○ 選拔戰은 각 종목별로 서울·평양 등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1회이상 實施 ○ 選拔戰은 각 種目別로 特性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 <p>① 記錄種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陸上·競泳·力道·洋弓·사격·사이클·漕艇·카누·요트·골프 등 10개종목 - 選拔戰의 記錄을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合同訓練 기간 중의 評價記錄도 고려 - 사이클·조정·카누·요트의 團體競技에 있어서는 選拔戰에서 勝利한 팀을 선발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板門店 中監委會會議室)</p>	<p>[基本 合意書(案)]</p> <p>(1) 名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로 「코리아」 ○ 英文으로 「KOREA」(略字: KOR) ○ 中國語로는 「可禮亞」 <p>(2) 깃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地圖 ○ 地圖에는 朝鮮半島와 濟州島를 상징적으로 그려넣고 기타 섬들은 省略 <p>(3) 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0年代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 <p>(4) 選手選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拔戰을 통하여 選拔 ○ 選拔戰은 共同訓練期間 마지막단계에서 北南選手間에 公開的으로 實施 ○ 選拔戰은 각 종목별로 평양·서울 등 北과 南의 地域에서 번갈아 1회이상 實施 ○ 選拔戰은 각 種目別로 特性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 <p>① 記錄種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陸上·해염·역기·활쏘기·사격·자전거·조정·커누·돛배·골프 등 10개종목 - 選拔戰의 기록을 위주로 하여 選拔하되 共同訓練期間중의 評價記錄도 고려 - 자전거·조정·커누·돛배의 團體競技에 있어서는 選拔戰에서 勝利한 팀을 선발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② 採點種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體操·다이빙·우슈 등 3개종목 - 選拔戰의 점수를 위주로 하여 選拔하되 合同訓練기간 중의 評價點數도 고려 <p>③ 鬪技種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싱·유도·레슬링·펜싱·카바디 등 5개종목 - 복싱·유도·레슬링은 選拔戰을 실시하여 優勝한 선수를 위주로 하여 選拔하되 合同訓練期間중의 평가내용과 國際大會의 戰績도 고려 - 펜싱의 경우, 劍別로 리그전 形式의 選拔전을 실시하여 勝率順으로 選拔 - 카바디의 경우, 蹴球·籠球 등의 예에 따름. <p>④ 球技種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蹴球·籠球·排球·卓球·水球·핸드볼·소프트볼·하키·세팍타크로·테니스·배드민턴·軟式庭球·野球등 13개 종목 - 蹴球·籠球·排球·水球·핸드볼·소프트볼·하키·세팍타크로·野球의 경우는 選拔戰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을 위주로 選拔하되 진팀의 優秀選手도 일부 포함 - 卓球·테니스·배드민턴·軟式庭球의 경우, 리그전 形式의 選拔전을 실시하여 勝率順으로 選拔 - 어느 일방에 特定種目的 選手가 없거나 적합한 選手를 保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選手를 保有하고 있는 측에서 選拔 - 選手選拔의 구체적 方法, 選拔戰時期, 競技用기구, 競技規則, 審判選定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單一팀 共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② 採點種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體操·물에 뛰어들기·무술 등 3개종목 - 選拔戰의 點數를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共同訓練期間중의 評價點數도 고려 <p>③ 맞붙는 종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투·유술·레슬링·격검·카바디 등 5개종목 - 권투·유술·레슬링은 選拔戰을 실시하여 優勝한 選手를 위주로 선발하되 共同訓練期間중의 평가내용과 國際大會 戰績도 고려 - 擊劍의 경우, 劍別로 연맹전形式의 選拔戰을 실시하여 勝率 順으로 선발 - 카바디의 경우 蹴球·籠球 등의 예에 따름. <p>④ 球技種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蹴球·籠球·排球·卓球·水球·送球·소프트볼·지상호케이·셰팍따크로·庭球·바드민톤·軟式庭球·野球 등 13개 종목 - 蹴球·排球·籠球·送球·지상호케이·셰팍따크로·野球的 경우에는 選拔戰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을 위주로 選拔하되 진팀의 優秀選手도 일부 포함. - 卓球·庭球·바드민톤·軟式庭球의 경우, 連맹전 形式의 選拔戰을 실시하여 勝率 順으로 選拔 - 어느 일방에 特定種目的 選手가 없거나 적합한 選手를 保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選手를 保有하고 있는 측에서 選拔 - 選手選拔의 구체적 方法, 選拔戰時期, 競技用 器具, 競技規則, 審判選定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일팀공동추진기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style="text-align: center;">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p> <p>(5) 選拔訓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同訓練과 強化訓練으로 구분 ○ 選手 및 任員은 각기 결정하며, 그 人員數는 제 11 회 北京 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가 정하게 될 경기참가 定員數 정도로 하되 종목별 特性에 따라 協議·調整 ○ 合同訓練은 쌍방감독 및 코치가 합의하여 실시하되 相對方의 고유한 訓練方法을 존중 ○ 合同訓練期間중 참가선수는 交替할 수 있음. ○ 合同訓練은 「單一팀共同委員會」가 발족된 후 1개월이내 시작 ○ 強化訓練은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大會參加時까지 實施 ○ 訓練은 종목별로 南北을 상호 往來하면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제 3의 場所·施設 이용 ○ 모든 便宜는 訓練場所를 제공하는 측에서 保障 ○ 기타 細部事項은 「單一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p>(6) 選手團 構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團의 構成은 1990. 6. 22前 完了 ○ 選手·任員構成은 OCA憲章, 해당 國際 및 아시아 競技聯盟 규칙과 제 11 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의 關係規程에 따름. ○ 團長은 선발된 選手數가 많은 측, 副團長은 선수 수가 적은 측 ○ 競技任員은 종목별로 선발된 選手 數가 많은 측이 監督, 적은 측이 코치 ○ 本部任員은 쌍방의 선수비율에 따라 構成

出 處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구」에서 협의·결정</p> <p>(5) 訓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訓練과 綜合訓練으로 구분 ○ 選手 및 役員은 각기 결정하며, 그 人員數는 제 11 차 베이징 아세아경기대회 組織委가 정하게 될 경기참가 定員數 정도로 하되 종목별 特性에 따라 協議·調整 ○ 共同訓練은 쌍방 책임지도원 및 지도원들이 합의하여 실시 하되, 相對方의 고유한 訓練方法을 존중 ○ 共同訓練은 「유일팀공동위원회」가 나온 후 1개월 이내에 시작 ○ 綜合訓練은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競技大會 出戰時까지 실시 ○ 訓練은 종목별로 북과 남을 서로 來往하면서 실시하되 필요 할 때에는 제 3의 場所·施設 이용 ○ 모든 便宜는 訓練場所를 제공하는 측에서 보장 ○ 기타 細部事項은 「유일팀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 <p>(6) 選手團 構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團의 構成은 1990. 6. 22前 완료 ○ 選手·役員 구성은 OCA憲章, 해당 國際 및 아세아 경기연맹규칙과 제 11 차 베이징아세아경기대회 조직위 관계규정에 따름. ○ 團長은 선발된 선수 수가 많은 측, 副團長은 선수 수가 적은 측 ○ 競技役員은 종목별로 선발된 選手 數가 많은 측이 책임지도원, 적은 측이 指導員 ○ 本部役員은 쌍방의 選手比率에 따라 構成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選手團은 가능한 한 均衡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構成</p> <p>(7) 選手團 經費</p> <p>○ 選手 및 任員의 構成比率에 따라 남북이 共同負擔</p> <p>○ 南北往來를 통한 經費는 招請側에서 負擔</p> <p>○ 外國轉地訓練 및 外國선수단 招請競技에 따르는 경비는 남북이 協議·決定</p> <p>(8) 選手團 및 關係人員들의 身邊安全保障</p> <p>○ 南과 北의 關係當局이 「身邊安全保障覺書」를 교환하는 方法으로 保障</p> <p>(9) 單一팀 共同推進機構</p> <p>○ 「共同委員會」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同意가 이루어진 15일이내에 구성</p> <p>○ 「共同委員會」는 각 10명내외로 構成, 南北 各기 共同委員長 1명</p> <p>○ 會議는 매월 서울·平壤에서 번갈아 1회이상 開催</p> <p>○ 「共同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協議·決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 - 選手團構成 및 管理에 관한 사항 - 「아타세」選定에 관한 사항 - 大會開催期間中 競技進行 및 運營과 관련하여 열리는 各種會議 參加 및 大會同伴審判 選定에 관한 사항 - 選手團構成·參加와 관련된 선수 및 關係人員의 南北往來에 관한 사항 - 選手團 團服 및 참가에 따른 裝備에 관한 사항 - 기타 單一팀 構成 및 참가에 따른 諸般事項 <p>○ 「共同委員會」는 選手團 構成이 완료되고 제 11 회 북경아시</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 選手團은 가능한 한 均衡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構成</p> <p>(7) 選手團 費用</p> <p>○ 選手 및 役員의 構成比率에 따라 북과 남이 共同으로 負擔</p> <p>○ 北南來往을 통한 비용은 招請側에서 부담</p> <p>○ 外國轉地訓練 및 外國선수단 招請競技에 따르는 비용은 북과 남이 協議·決定</p> <p>(8) 選手團 및 關係成員들의 身邊安全保障</p> <p>○ 北과 南의 關係當局이 「身邊安全保障覺書」를 交換하는 方法으로 함.</p> <p>(9) 唯一팀 共同機構</p> <p>○ 共同委員會는 유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구성</p> <p>○ 共同委員會는 각 10명내외로 구성, 북과 남이 각기 共同委員會長 1명</p> <p>○ 會議는 每月 平壤·서울에서 번갈아 1회이상 開催</p> <p>○ 共同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審議·決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 - 選手團構成 및 管理에 관한 사항 - 「아따췌」선정에 관한 사항 - 大會開催 期間中 競技進行 및 運營과 관련하여 열리는 각종 會議參加 및 大會同伴 審判 선정에 관한 사항 - 選手團團服 및 參加에 따르는 裝備에 관한 사항 - 기타 유일팀구성 및 參加에 따르는 諸般事項 <p>○ 共同委員會는 選手團構成이 완료되고 제 11 차 베이징 아세아경기대회 組織委員會에 參加申請書を 제출한 이후에는 선수단참가와 相關한 同大會 組織위원회와 各種 連絡 등 대</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아경기대회 組織委員會에 參加申請書를 제출한 이후에는 選手團參加와 관련한 同大會 組織委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機能 遂行</p> <p>○ 「共同委員會」아래 「共同事務局」구성·운영</p> <p>－ 機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委員會의 決定事項 집행 • 共同委員會의 會議召集·運營·記錄 등과 관련한 사항 • 관련된 人員의 南北往來에 따른 支援 및 連絡事項 • 其他 제반 行政事項 <p>－ 서울·평양에 설치, 共同事務局長 각기 1명</p> <p>－ 適正數의 人원을 共同事務局에 각각 파견·상주</p> <p>－ 直通電話 가설·운영</p> <p>(10) 其他</p> <p>○ 단일팀과 관련한 其他事項은 共同委員會에서 협의·결정</p> <p>[合意書(案) 附則]</p> <p>(1) 「코리아選手團」共同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別途作成</p> <p>(2) 10개항 내용 및 부칙의 用語解釋에 관한 합의서는 別途作成</p> <p>(3) 共同委員會 발족이전 親善交換競技 개최 및 施設踏査班 교환 실시</p> <p>(4) 쌍방이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을 合意한 사실과 單一팀 참가 不可能時 個別參加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書翰(쌍방 NOC 위원장 공동명义)을 북경아시아경기대회 組織委와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발송</p> <p>(5) 相對側의 內政·法律制度·軍事訓練 등 體育外的 問題 불연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외적 機能 遂行</p> <p>○ 共同委員會 아래 共同事務局 설치·運營</p> <p>－ 機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委員會의 決定事項 집행 • 共同委員會의 會議召集·運營·記錄 등과 관련된 사항 • 관련된 人員의 北南來往에 따르는 支援 및 連絡事項 • 其他 제반 行政事項 <p>－ 평양·서울에 설치, 共同事務局長 각기 1명</p> <p>－ 適正數의 人員을 共同事務局에 각각 파견·상주</p> <p>－ 直通電話 가설·운영</p> <p>(10) 其他</p> <p>○ 유일팀과 相关的 其他事項은 共同委員會에서 협의·결정</p> <p> </p> <p>[合意書(案) 附則]</p> <p>* 附則條項 없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11 姜英勳 國務總 理, 對北電通文</p>	<p>(6) 南北韓 往來時 자기측 輸送手段 이용</p> <p>(7) 推進日程 준수</p> <p>(8) 合意書 및 附屬合意書의 이행을 보장하는 쌍방당국의 보장각서</p> <p>(9) 제반 合意事項의 불이행시는 合意無效 및 個別팀으로 참가</p> <p>(10) 效力發生 : 1990. 2. 1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附屬 合意書(案)]</p> <p>(1)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合意書</p> <p>(2) 10개항의 내용 및 부칙의 用語解釋에 관한 合意書</p> <p>(3) 親善交換競技 개최 및 施設踏査班 상호교환에 관한 合意書</p> <p>(4) 제 11 회 北京아시아경기대회 組織委員會 및 아시아올림픽 平議會에 보낼 書翰에 관한 合意書</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 履行保障覺書]</p> <p>○ 제 11 회 北京아시아경기대회 南北單一팀 구성·참가 合意履行을 위한 保障覺書</p> <p style="text-align: center;">〈書翰接觸위해 연락관 판문점 파견 通報〉</p> <p>○ 귀하의 1.9字 전화통지문과 관련, 그동안 판문점을 통해 편지를 교환해온 관례에 따라 편지전달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實務接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p> <p>○ 귀측 편지 접수를 위해 1990. 1. 13 오전 10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파견할 것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12 政務院總理 연 형묵, 對南電通 文</p>	<p>[附屬 合意書(案)] (1)북남유일팀 共同推進機構 구성·운영 방안</p> <p>[合意事項 履行保障覺書] * 우리측 案에 동의</p> <p>〈書翰傳達 위한 연락관 판문점파견 通報〉 ○ 귀측이 지금까지의 慣例를 구실로 북남사이의 편지교환을</p>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0. 1. 15 南北體育會談 第5次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主要 提議・主張 內容> ○ 單一팀 構成・參加를 실현시키기 위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 (부칙 및 4개 부속합의서)에 대한 討議 강조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13 政府・政黨代表 들의 聯合會議, 對南書翰 * 1. 9 聯合會 議에서 採擇</p>	<p>板門店地域에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결시대의 낡은 思考方式에서 벗어나지 못한 태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우리의 提議를 거부함으로써 내 왕이요, 개방이요 하는 것이 빈말일 뿐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反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실정에서 부득이 편지전달을 위해 1. 13 오전 10시에 2명의 연락원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내보낼 것임. <p>〈當局・政黨 首腦協商會議 豫備接觸 開催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이 新年辭에서 分裂의 障壁을 허물고 북남사이의 자유로운 來往과 全面開放을 實現할데 대하여 淸명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北南의 最高位級이 참가하는 當局과 各 政黨 首腦들의 協商會議를 召集할 것을 제의하였음. ○ 北南의 最高位級이 참가하는 當局과 各 政黨 首腦들의 協商會議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이 協商會議의 召集을 위하여 1990. 2월 초순에 板門店에서 豫備接觸을 가질 것을 淸중히 제의하는 바임. ○ 豫備接觸에는 북남의 當局과 各 政黨 首腦들의 委任을 받은 代表들이 참가하되, 人員數는 北南에서 각기 5명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봄.
<p>1990. 1. 15 南北體育會談 第5次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則條項의 撤回 要求 ○ 「合意事項 이행을 위한 合意書(案)」과 「제 11 차 베이징아세아경기대회 北南唯一팀 構成 및 參加에 관한 合意履行을 위한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會議室)</p> <p>1990. 1. 17</p> <p>北韓議會그루빠 委員長 양형섭, 對南書翰 *1.15字</p> <p>1990. 1. 18</p> <p>제7차 南北體育 會談 (板門店 「平和 의 집」)</p>	<p>擔保覺書(案)」을 提示</p> <p>〈IPU總會 南北韓單一代表團 構成·參加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U 第 84 次 總會를 平壤에서 개최할 用意가 있으며 北과 南이 單一代表團을 構成·參加하겠다는 희망을 IPU 總書記에게 표시하였음. ○ 北南이 單一代表團을 構成·參加하게 된다면 朝鮮半島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민족의 共同의 努力을 온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임. ○ 이 問題를 토의하기 위한 北南議會그루빠會談을 提議하며 4월 IPU 제 83 차 總會前에 합의보기를 희망함. ○ 회담대표단은 쌍방 각기 議會그루빠 副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5명의 代表로 構成하고 2.7 板門店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음.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則條項 全面 撤回要求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19 金在淳 國會議 長, 記者會見</p>	<p>— 附則(7個項) : ①共同委員會 構成·運營 合意書 별도작성 ②10個項 및 附則 用語解釋 合意書 별도작성 ③北京아시아 競技大會組織委 및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書翰發送 ④推進 日程 遵守 ⑤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保障 ⑥合意無效時 個別팀 參加 ⑦效力發生 時期</p> <p>2. 附屬合意書</p> <p>—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부속 합의서 1)</p> <p>— 10個項 內容의 用語解釋에 관한 合意書(부속합의서 2)</p> <p>— 제 11 회 北京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및 아시아올림픽評 議會에 보낼 書翰에 관한 合意書(부속합의서 3)</p> <p>〈IPU 總會 單一代表團 構成 不必要 表明〉</p> <p>○ 北韓側이 제 84 차 IPU總會를 平壤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우리國會로서는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 오</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18 南北赤十字 實 務代表接觸 北 側團長박영수, 對南電通文</p>	<p>〈實務代表接觸 再開促求〉</p> <p>○ 貴側이 우리가 가극 「꽃파는 처녀」 公演計劃을 철회하지 않는 한 接觸에 응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念願에 배치되는 처사로서 어떤 이유로써도 정당화 될 수 없음.</p> <p>○ 나는 貴側이 接觸過程에서 제기된 問題를 접촉마당에 나와 풀려하지 않고 接觸自體를 回避하는 것은 성실한 對話姿勢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제 8차 실무대표접촉에 하루빨리 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22 南北體育會談 제 6 차 實務代 表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히려 北韓側이 희망한다면 이미 IPU總會를 서울에서 開催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北韓을 지 원할 用意가 있음.</p> <p>○ IPU總會에 南北單一代表團을 構成해 參加시키는 것은 IPU 規約 第3條, 第11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IPU가 政治集會 임을 감안할 때 현실성을 도외시한 宣傳指向 일변도의 提 案임.</p> <p>○ 1988. 8月부터 시작된 國會會談이 지금까지 本會談을 성립시 키지 못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다른 갈래의 國會會談을 거론한 다는 것은 不適切하다고 생각함.</p> <p>○ 지금은 南北쌍방이 현재 進行중인 南北國會會談을 성사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때이며 IPU 單一代表團構成을 위한 별 도의 南北會談은 불필요함.</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合意書 用語解釋問題, 單一팀 構成·參加 推進日程 遵守問題, 單一팀構成 不可時 個別팀 參加保障問題등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保障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合意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22 南北體育會談 제6차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附則條項(7個項) 全面撤回 要求</p>
<p>1990. 1. 23 南北會談 北側 代表團, 聯合聲 明</p>	<p>〈協商會議 呼應促求 및 콘크리트 障壁 撤去 主張〉</p> <p>○ 北南會談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代表들은 對話當事者로서 마땅히 祖國統一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協商方案에 선의를 가지고 對해야 하며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24 南北國會會談 第10次 準備接 觸 (板門店 「平和 의 집」)</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를 議題에 포함 ○ 「議題討議를 위한 모임」의 會談形式 : 代表會談 * 北側은 우리側이 팀스피리트 訓練中止와 관련된 措置를 취 한다는 전제하에 次期會談 日字(2.22)에 同意
<p>1990. 1. 29 제8차 南北體育 會談 (板門店 「統一 閣」)</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開選拔戰의 概念 등 用語定義, 單一팀 構成 · 參加 日程遵 守, 合意事項의 不履行時의 조치(단일팀 不可時 개별팀 참가 보장)등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保障問題 討議를 촉구
<p>1990. 1. 31 南北高位級會談 제6차 豫備會談 (板門店 「統一 閣」)</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南北高位級會談 開催에 관한 合意書(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談名稱 : 南北高位級會談 ○ 會談日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차 會談 : 豫備會談이 終了된 후 1個月 내 - 제 2 차 會談 : 1次會談 날짜 합의시 함께 결정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 24 南北國會會談 第10次 準備接 觸 (板門店 「平和 의 집」)</p>	<p>○ 그런데 南側 會談代表들은 軍事分界線 남측지역에 있는 콩크리트 장벽이 없다느니, 우리의 새로운 방안이 政治宣傳이라느니 하면서 매우 온당치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p> <p>○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세계의 自由化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제손으로 제가 쌓은 장벽을 허물고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실현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함.</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팀스피리트 訓練 中止問題」를 緊急議題로 上程 * 實質問題 討議를 拒否</p>	
<p>1990. 1. 29 제8차 南北體育 會談 (板門店 「統一 閣」)</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保障裝置가 아닌 制動裝置」라고 主張하는 등 履行保障問題 討議拒否 및 附則條項 全面撤回 要求</p>	
<p>1990. 1. 31 南北高位級會談 제6차 豫備會談 (板門店 「統一 閣」)</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콩크리트障壁 撤去 및 當局·政黨 首腦 協商會議 開催</p> <p>○ 「팀스피리트 90」 合同軍事演習 中止問題</p> <p>- 팀스피리트 軍事演習을 당장 中止하는 조치를 취할 것</p> <p>- 팀스피리트 軍事演習을 위해 朝鮮半島 境內에 들어온 美國 軍隊와 軍事作戰 裝備들을 무조건 즉시 撤收시키는 조치를</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 차 會談 : 이후는 매차 쌍방이 合意 ○ 會談場所 : 서울·平壤 번갈아 개최 - 제 1 차 會談은 서울 - 제 2 차 會談은 平壤 ○ 會談議題 :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 會談代表團 構成 : 總理를 首席代表로 7名(장·차관 급), 軍代表는 參謀總長級 1명 포함 2명 以內 ○ 隨行員 및 記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隨行員 : 33명 - 記 者 : 50명 ○ 會談形式 : 雙方會談, 公開 또는 非公開 ○ 合意書 採擇 : 각기 2통씩 文書로 작성, 首席代表 署名後 1통씩 交換 ○ 會談記錄 : 速記·錄音·錄畫 등 各其 便利한대로 함. ○ 會談報道 : 各其 便利한대로 하되, 雙方合意에 따라 共同報道 ○ 會談場 標識 및 施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談場에는 어떠한 標識도 하지 않음. - 자기측에 연락할 수 있는 通信施設 設置 ○ 身邊安全保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理名義 覺書를 會談 7일전 교환 - 會談에 필요한 携帶品 不可侵 保障 ○ 代表團 標識 및 證明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表團은 자기측 總理가 발행한 身分證明書 持參 - 記者는 記者腕章 착용 ○ 板門店 通過節次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 軍事演習을 하는 경우 일체 外國軍隊를 參加시키지 말고 南朝鮮 軍隊만 가지고 하는 조치를 취할 것 * 北側은 實質問題討議를 배제한 채 會談外的 問題를 중심으로 하는 政治宣傳攻勢에 집중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2. 1 姜英勳 國務總 理, 對北書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名單은 會談 3日前 通報 - 板門店 通過地點은 軍事分界線上에 있는 建物 ○ 取材活動: 取材活動 保障, 報道의 正確性和 公正性을 기하도 록 努力 ○ 滯留日程: 3泊4日, 會談 7日前에 相對側에 通知 ○ 便宜提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便宜 提供 - 招請側의 案內와 秩序에 따름. - 1일 2회 行囊運用 ○ 儀典: 雙方 實務者들이 協議·解決 ○ 直通電話: 既存 直通電話線 利用, 필요에 따라 協議·增設 ○ 合意書 發效: 合意書가 교환된 때로부터 有效 * 北側은 우리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를 통보해 줄것을 전 제로 次期會談日字 (3. 7)에 동의 <p>〈南北當局·政黨首腦 協商會議 拒否 및 南北頂上會談 開催 呼應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大韓民國 政府가 「7.7宣言」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南北自由往來와 社會開放問題에 대 해 貴側이 관심을 표명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함. ○ 그러나 貴側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會談方式으로 非現實的인 「協商會議」를 다시 제기하였고 특히 우리측에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콘크리트 障壁에 대해 언급하면서 自由往 來와 全面開放의 장애가 마치 우리측에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움. ○ 지금 南北間에 便紙 한통, 電話 한통화 주고 받지 못하며 離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2. 7 제9차 南北體育 會談 (板門店 「平和 의 집」)</p>	<p>散家族의 故鄉訪問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狀況에서 自由往來와 全面開放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의 책임있는 當局間에 최소한 동포들의 자유로운 通行·通信 그리고 經濟交流와 協力を 보장하는 原則的인 問題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p> <p>○ 우리는 이번에 貴側이 제기한 「協商會議」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남북의 當局 및 政黨 首腦들이 참가하는 會議體라 할지라도 본질상 貴側이 종래 주장해온 政治協商會議나 南北連席會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p> <p>○ 그럼에도 불구하고 貴側이 각기의 고유한 權能과 責任을 度外視하면서 無原則하게 하나의 協商마당에서 혼합시키려는 것은 南北間의 제반문제를 合理的이고 正常的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로 보기 어려움.</p> <p>○ 이러한 見地에서 나는 貴側이 진심으로 自由往來와 全面開放을 바란다면 既存對話에 성실해야함은 물론 南北頂上會談 개최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와야 하리라고 생각함.</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다음과 같은 合意事項 履行保障 裝置에 대해 北韓側의 호응을 촉구하고, 北韓側의 입장변화를 종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書 用語解釋 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雙方間에 爭點으로 飛火될 수 있는 用語에 대해서 그 定義를 정확히 규정 -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조치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를 明文化 - 單一팀 構成·參加關聯 推進日程의 遵守問題

出 處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2. 7 제9차 南北體育 會談 (板門店 「平和 의 집」)</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北韓側은 「3가지 原則的 문제」들을 提示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더 이상 會談을 繼續할 需要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p> <p>① 제11회 아세아競技大會에 絶대로 別個팀으로 가지 않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唯一팀으로 出戰한다는데 合意하고 内外에 선포</p> <p>② 會談遲延 責任을 是認하고 附則條項을 撤回</p> <p>③ 別個팀으로 가겠다고 한 體育責任者의 發言을 取消</p>

出 處	韓 國 提 議 內 容
<p>1990. 2. 8 金鍾烈 大韓올 림픽委員長 聲 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京아시아競技大會까지의 時日이 限定되어 있으므로 相互 協議下에 推進日程을 확실히 결정 * 態度變化時 直通전화로 通報해 줄 것을 요망 <p>〈南北體育會談에 대한 北韓側의 誠意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側은 南北單一팀 構成의 결실을 앞둔 제 9 차會談에서 “雙方이 어떠한 경우에도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個別팀으로 參加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合意·宣布해야 한다는 등 3個項의 부당한 前提條件을 내세워 우리側이 이를 수용치 않으면 더 이상 會談을 할 必要가 없다며 南北體育會談을 끝내 決裂시키고 말았음. ○ 北韓側이 어떠한 場合에도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個別팀으로 는 參加하지 않을 것을 內外에 宣稱하는 것을 모든 문제에 앞서 同意하라고 要求한 것은 애당초 北韓側이 單一팀 構成에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大韓民國의 個別팀 參加를 막아보자는데 그 眞意가 있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임. ○ 이번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를 위한 體育會談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렬된 책임은 南北間의 體育交流를 회피하고 體育會談을 政治宣傳 次元에서 이용하려 한 北韓側에게 全的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임. ○ 우리는 北韓側이 過去의 先例를 되풀이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리고 우리 體育人들이 南北關係 改善과 平和統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南北體育交流에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2. 8 南北會談 北側 代表團, 聯合聲 明</p>	<p style="text-align: center;">〈타임스피리트 期間中·南北對話 中斷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會談에 參加하고 있는 北側 代表團들은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타임스피리트 90」 合同軍事演習이 進行되는 全期間 板門店 會談場所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聲明한. ○ 여러갈래의 北南對話들이 또다시 中斷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責任은 전적으로 美國과 함께 對話否定的인 대규모 戰爭演習을 벌여놓고 情세를 故意的으로 긴장시키며 對話氛圈氣를 파괴한 南朝鮮當局에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2. 9 國土統一院 代 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側의 성실한 對話姿勢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側은 어제(2.8) 南北會談 北側代表團 聯合會議를 열어 현재 南北間에 진행중인 모든 對話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聯合聲明을 발표한 바 있음. ○ 北韓側이 南北對話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나오기는 커녕, 합의된 會談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責任을 相對方에게 轉嫁하려는 것은 本末을 顛倒시키는 무례한 처사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正當化될 수 없는 것임. ○ 北韓側은 對話의 상대방을 무시하고 內部問題를 간섭하는 등 남북대화를 政治的 目的에 利用함으로써 남북관계를 惡化시키는 그릇된 태도를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우리는 北韓側이 하루속히 對話否定的 姿勢에서 벗어나 예정된 南北對話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促求함.
<p>1990. 2. 11 李洪九 統一院 長官 · 李御寧 文化部長官, 共同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文化交流 5原則 提示〉</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分斷以前 民族 傳統文化의 優先交流 ② 南北相互間의 勝負 및 競爭的 分野의 交流 排除 ③ 傳統文化의 原形을 變形 · 毀損한 表現方式 止揚 ④ 쉽고 작은 分野에서부터 시작 ⑤ 共同實行 위해 持續的 노력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2. 12 南北體育會談 北側 代表團長 김형진, 對南電 通文</p>	<p>〈3個 前提條件 수락促求〉</p> <p>○ 지난 제9차 會談에서 우리側은 제11차 아세아競技大會에 唯一팀으로 出戰하는데서 나서는 3가지 原則的 문제들을 貴側에 제기한 바 있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2. 14 南北體育會談 張忠植 首席代 表,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3個 前提條件 撤回 및 履行保障方案에 同意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이 제 11 회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實踐意志가 있다면 合意事項 履行保障에 호응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貴側은 제 11 회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南北單一팀 構成·參加를 推進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側 選手團의 同大會 參加를 妨害하기 위한 수단으로 會談을 이용해 왔으며, 그같은 기도의 실현이 어렵게 되자 會談을 파탄시키고 그 責任을 相對方에 轉嫁하려하고 있음이 이미 세상에 露出된 바 있음. ○ 나는 이제라도 貴側이 부당한 要求條件을 즉각 撤回하고 2. 20까지 우리측이 제시한 合意事項 履行保障方案에 同意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2. 15 政府・政黨 代 表들의 聯合會 議, 對南書翰 * 2. 14 2차聯 合會議에서 採擇</p>	<p>○ 우리側이 提起한 3가지 原則的 要求에 대한 태도는 唯一팀 構 成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試金石으로 됨.</p> <p>○ 우리는 貴側이 어떤 形態로든 하루빨리 우리측이 提起한 세가 지 原則的 要求를 받아들인다는 立場을 명백히 밝히고 제 10 차 會談에 나오기를 促求하는 바임.</p> <p>〈南北當局・政黨 首腦級 協商會議 開催 促求〉</p> <p>○ 하루빨리 北南이 最高位級이 참가하는 當局과 各 政黨 首腦들 의 協商會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當面對 策을 천명하는 바임.</p> <p>(1) 民族分裂과 北南對決의 상징인 콘크리트障壁을 허물어버릴 용의를 지체없이 表示하여야 할 것임.</p> <p>(2) 協商會議 테두리 안에서 쌍방 最高位級의 상봉을 별도로 마</p>

▣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2. 19 南北體育會談 北側 代表團長 김형진, 對南電 通文</p>	<p>런할 수 있을 것이라는 立場을 밝히는 바임.</p> <p>(3) 貴側 當局과 현존 野黨은 물론 앞으로 創黨될 어떤 政黨에도 항상 協商의 문을 열어 놓을 것임.</p> <p>(4)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90」 合同 軍事演習을 빠른 時日안에 중지하여야 할 것임.</p> <p>〈3個 前提條件 受諾 再促求〉</p> <p>○ 우리는 지난 9次 本會談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1 차 아세아競技大會에 別個의 팀으로 가지 않 고 唯一팀으로 참가한다는 것을 쌍방이 확인하고 內外에 宣布할데 대한 문제 - 貴側이 會談外的 問題이거나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하기로 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 唯一팀 구성을 지연시킨 사실을 是認 하고 附則을 완전히 철회할데 대한 문제 - 제 11 차 아세아競技大會에 別個의 팀으로 가겠다고 한 貴 側의 책임적인 體育關係者들의 發言을 取消할데 대한 문 제 등 <p>3가지 요구를 제기하였음.</p> <p>○ 우리는 貴側이 이제라도 심사숙고하고 우리의 原則的 要求에 응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促求함.</p>
<p>1990. 2. 19 祖國平和統一委 員會 書記局長 안병수, 對南電 通文</p>	<p>〈콘크리트障壁 關聯資料 傳達 通報〉</p> <p>○ 콘크리트 障壁의 존재여부를 객관적으로 確認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障壁이 實在한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는 영화필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2. 21 南北國會會談準備接觸 蔡汶植 首席代表, 對北</p>	<p>〈第 11 次 準備接觸 無산관련 遺憾表明〉</p> <p>○ កិច្ចការជំនុំជំរះដែល ទៅ 2.22 ត្រូវបាន ព្រមព្រៀង ទៅ 11 គ្រា គ្រប់គ្រង ទំនាក់ទំនង មិនប្រយោជន៍ ទៅ ខ្លួនខ្លួន ត្រូវបាន គ្រប់គ្រង ទៅ ព្រមព្រៀង ទៅ ព្រមព្រៀង ទៅ ព្រមព្រៀ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과 녹화테이프, 사진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음. 우리는 이것을 오는 2.22 오후3시, 板門店에서 貴側에 넘겨주려고 함.</p> <p>- 콘크리트 障壁이 허물어지는 경우 自由來往의 當事者로 될 南北勞動者·農民·青年學生들을 비롯한 各界各層 人민들이 콘크리트 障壁 有無를 직접 確認하도록 參觀團을 組織하는 것임.</p> <p>○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는 2.26 貴側의 大學生들과 農民들을 각각 100명 정도씩 먼저 板門店을 거쳐 우리側에 보내 주기를 希望하며 우리側도 같은 時期에 大學生들과 農民들을 내보낼 것임.</p>
<p>1990. 2. 20 民族統一協商會議 北側準備委員會 聲明</p>	<p>〈民族統一協商會議 開催促求〉</p> <p>○ 지난해 9월 共和國 政府·團體 連席會議에서는 民族共同의 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해 北과 南의 當局과 政黨·團體 代表들의 民族統一協商會議를 소집할 것을 발기하면서 올해 2.20 平壤에서 첫 회의를 가질 것을 南側에 提議하였으나 끝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였음.</p> <p>○ 올해 안으로 北南의 自由來往과 全面開放 實現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北南 最高位級이 參加하는 當局과 各 政黨 首腦들의 協商會議가 소집되어야 하며, 동시에 民族統一協商會議를 마련하여 民族共同의 統一方途를 確定하여야 함.</p>
<p>1990. 2. 21 南北體育會談 北側代表團 聲明</p>	<p>〈3個 前提條件 受諾 再促求 및 會談決裂에 대한 責任轉嫁〉</p> <p>○ 會談이 決裂危機에 빠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南朝鮮當局의 두 개 朝鮮政策에 기인하고 있으며 南側이 體育에 불순한 政治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電通文</p> <p>1990. 2. 21</p> <p>國土統一院 代 辦人 聲明</p>	<p>게 생각함.</p> <p>○ 귀축이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會談과 결부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是正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 11 차 準備接觸에 호응해 나올 것을 促求함.</p> <p>〈콘크리트 障壁관련 政治宣傳行爲 中止 促求〉</p> <p>○ 南北間 自由往來의 기초가 되는 北韓社會 內部的 自由往來마저 원천봉쇄 되고 있는 條件에서 北韓側이 自由往來 운운하고 있음은 가당치도 않은 하나의 虛構에 지나지 않음.</p> <p>○ 北韓側이 새삼스럽게 콘크리트 障壁이라는 架空的 문제를 들고 나와 南北關係를 惡化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對南赤化革命이라는 환상에 묶여 있다는 事實을 반증하는 것임.</p> <p>○ 40여년간 緊張과 對決의 관계를 지속해온 南과 北이 自由往來를 실현하는데 있어 진정한 障碍는 北韓側의 非妥協的이고 敵對的인 자세로부터 비롯된 政治的 障壁일 뿐임.</p> <p>○ 우리는 北韓側이 政治宣傳 行爲를 즉각 中止하고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우리側의 努力에 성실하게 호응해 나올 것을 促求함.</p>

出 處

提 議 內 容

目的을 介人시킨데 있음.

- 南側은 이제라도 부당한 立場을 撤回하고 우리의 原則的 要求를 받아들여야 함.

1990. 2. 26

<콘크리트障壁 關係資料 傳達提議 拒否 非難>

祖國平和統一委員會 代辯人聲明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書記局長은 2. 19 콘크리트障壁과 關聯한 資料傳達과 장벽의 存在 與否를 확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要求하는 電話通知文을 보낸바 있음.
- 南朝鮮當局은 이에 대한 回答은 고사하고 統一院 代辯人을 내세워 우리가 콘크리트 障壁 問題를 가지고 政治宣傳을 한다느니 하면서 提議를 拒否하였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權能까지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3. 1 盧泰愚 大統領, 3. 1절 慶祝辭</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早速 開催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當局의 最高責任者에게 政治軍事問題를 포함한 南北間의 모든 懸案을 制限없이 論議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南北韓 頂上會談을 열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 우리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物資의 交易이나 供與, 觀光 및 國土開發과 公廠의 建設등 經濟協力을 실현하기 위해 南北韓 關係者間의 협의를 당장에라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음. ○ 南北韓間에 진정한 和解와 協力の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相互 信賴의 구축이 先決問題이며, 北韓은 무엇보다도 武力이나 階級革命으로 赤化統一을 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하며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임.
<p>1990. 3. 3 李相薰 國防部 長官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倭用 제4땅굴發見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江原道 楊口郡 동면 팔랑리 동북쪽 30km지역 軍事分界線 남쪽 1km지점 非武裝地帶에서 北韓의 남침용 땅굴이 새로 發見됐음. <p style="text-align: center;">[제4땅굴 諸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양구 - 크기 : 높이 2m, 폭 2m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문제시하는 불순한 태도를 취하였음.</p> <p>○ 우리는 南朝鮮當局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北과 南의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실현하고 그들이 事實을 인정하고 콩크리트 장벽을 허물어 버릴때 까지 인내성있게 노력할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3. 5 國土統一院 代 辯人 聲明 * 제 4땅굴 발 견관련</p>	<p>- 깊이 : 지하 145m - 총길이 : 2km</p> <p>〈對南 武力赤化革命路線 拋棄 促求〉</p> <p>○ 우리 政府가 南北間의 和解와 協力의 時代를 열기위해 온갖 성의있는 努力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休戰線 全域에 걸쳐 南 侵 挑發 목적의 땅굴이 계속 發見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음.</p> <p>○ 제 4 땅굴은 北韓이 아직도 對南赤化路線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反證이며 그동안 여러갈래의 南北對話에서 北韓側이 갖가지 虛構的 論理를 내세워 成事를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한 對話姿勢를 보여온 것과 無關하지 않음.</p> <p>○ 北韓의 對南挑發 기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크리트障壁이라는 허구적 宣傳論理와 韓美合同軍事訓練등을 구실로 삼아 進行중인 모든 南北對話를 중단시킨 것은 더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지닐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南北間의 信賴回復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 임.</p> <p>○ 우리는 北韓이 진정으로 平和와 統一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對南武力赤化革命路線을 포기하고 이를 實踐行動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p>
<p>1990. 3. 6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宋漢</p>	<p>〈제 7차 豫備會談 開催促求〉</p> <p>○ 南北 쌍방은 제 7차 豫備會談을 3.7에 개최하기로 合意한 바</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3. 6 人民武力部 代 辯人 聲明</p>	<p>〈제 4 땅굴을 虛構的 날조품이라 비난〉 ○ 南朝鮮은 최근 美帝와 공모하여 이른바 제 4땅굴 사건이라는</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3. 23 政府・政黨 代 表協議會, 對南 書翰 * 3. 22字</p>	<p>것을 造作하고 우리 共和國을 반대하는 일대소동을 벌임으로 써 나라의 情勢를 더욱 침예하게 만들고 있음.</p> <p>○ 제 4땅굴 사건이라는 것은 이전의 모든 땅굴과 마찬가지로 우 리 共和國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허구적인 날조품이며 땅굴 관통이라는 것은 순전히 그들이 불순한 政治的 目的으로부터 꾸며낸 政治謀略劇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님.</p> <p>○ 美帝와 南朝鮮은 이번에 발표한 제 4땅굴이라는 것이 이전의 모든 땅굴과 마찬가지로 저들이 파놓은 北侵略땅굴이라는 것 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民族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땅굴 굴 설공사를 당장 中止하고 다시는 이러한 挑發的인 侵略策動을 하지 않을데 대하여 확약하여야 함.</p> <p>〈콘크리트障壁 共同調査 提議〉</p> <p>○ 귀당국이 콘크리트장벽을 그냥 두고 「通行・通信協定」을 締 結하여 來往과 開放을 실현하자는 것은 당국의 철저한 統制와 監視 밑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협소한 범위의 交流나 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나라와 나라사이에 맺는 國際協約方式의 協定을 같은 民族內部에서 체결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민족적 견지에서 보나 統一의 견지에서 보나 천만부당한 것임.</p> <p>○ 특히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貴側이 요즘 이른</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3. 28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書翰</p>	<p>〈韓弼聖氏 便紙傳達 要請 및 老母와의 相逢실현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봉한 韓弼聖氏의 편지를 貴 赤十字會가 韓弼花氏에게 傳達해 줄 것을 정중히 要請하는 바임. ○ 貴 赤十字會가 韓弼聖·韓弼花 사이에 人道의 架橋를 놓는 숭고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韓弼聖씨가 간절히 所望하고 있는 老母와의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라는 바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3. 28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 文</p>	<p>바 「땅굴문제」라는 것을 또다시 들고 나와 南北關係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있는 사실임.</p> <p>○ 지난 3. 14 進行된 제455차 軍事停戰委員會에서 美軍側이 우리의 共同調査 提議를 회피하여 나선 사실은 이번의 「제 4 땅굴」이라는 것도 貴側이 계획적으로 조작한 날조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확증하여 주고 있음.</p> <p>○ 우리는 貴側이 아직 甬크리트障壁의 存在自體를 認定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否認하고 있는 조건에서 北과 南의 當局과 政黨 代表들을 망라하는 共同調査團을 무어 현지에서 共同調査를 進行할 것을 귀측에 提議함.</p> <p>— 共同調査日時 : 1990. 3. 30, 오전 10시</p> <p>— 共同調査團 構成 : 당국·정당대표 10여명, 군사전문가, 기자 등 100여명으로 편성</p> <p>— 調査方法 : 북측 헬리콥터로 서부에서 동부로</p> <p>— 實務接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時 : 1990. 3. 28 오전 10시 • 場 所 : 板門店 中監委會議室 • 代 表 : 當局·政黨이 파견하는 3명 정도의 實務者 <p>〈全民聯에 보내는 書翰傳達 通報〉</p> <p>○ 汎民族大會 北側準備委員會의 要請에 따라 南朝鮮의 「全民聯」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3. 29 오후 3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2명의 連絡員을 파견할 것임.</p> <p>* 우리측은 3. 29 對北電通文을 통해 同 書翰 接受拒否 通報</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4. 7 姜英勳 國務總 理, 對北書翰</p>	<p>〈南北高位級會談의 조속한 성사 促求〉</p> <p>○ 貴側은 그간 南北間에 進行되어온 정상적인 각종 南北會談을 성사시켜 南北關係를 進展시킬 생각보다는 南北 현실에 맞지도 않는 「南北當局·政黨 首腦 協商會議」를 되풀이 주장함으</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3. 29</p> <p>汎民族大會 北側 準備委員會, 對南書翰</p> <p>* 방송공개</p>	<p>〈汎民族大會 連絡委員會 召集 決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과 海外側은 汎民族大會 召集과 관련한 일련의 실무적 문제를 토의하여야 할 필요성을 다같이 認定하고 오는 4.6~4.7에 베를린에서 連絡委員會를 가지기로 결정하였음. ○ 우리는 汎民族大會 發起者인 귀단체(全民聯)대표들이 응당 이번 連絡委員會에 참가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며 아울러「全勞協」과 「全大協」등 다른 단체들에서도 대표를 派遣하여 오면 환영할 것임. ○ 이번 連絡委員會에서는 8.15 汎民族大會에 거대한 意義를 再確認하고 대회에 상정할 문건들, 大會參加 자격과 대회일정등 일련의 중요한 實務的 問題들을 협의하게 될 것임. 		
<p>1990. 4. 4</p> <p>北韓올림픽위원회 代辯人 談話</p>	<p>〈北京 아시안게임 參加申請書 提出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 올림픽위원회가 제 11 차 아시아競技大會에 單獨으로 參加하는 신청서를 提出했는데, 이로써 北과 南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문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 유일팀 構成이 성사되지 못한 責任은 전적으로 南朝鮮側에 있는 바, 나는 유일팀 구성을 破탄에로 몰아넣은 南側의 처사를 反民族的 犯罪行爲로, 우리에게 대한 背信行爲로 인정하면서 준열히 규탄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로써 7천만 은 거래의 期待를 저버리고 있음.</p> <p>○ 더구나 여러차례에 걸쳐 内外信 記者들에 의해 公開確認된 우리측의 對戰車 防禦用 軍事施設物까지도 귀측이 調査해야 하겠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事理에 맞지 않음.</p> <p>○ 對戰車 構造物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과거와 같은 同族相殘을 防止하기 위한 平和保障의 施設物로서, 攻擊型 軍事力을 前方에 集中配置하고 있는 貴側이 이를 철거하라는 것은 우리측의 武裝解除를 要求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임.</p> <p>○ 貴側이 진정으로 南北間의 自由往來와 社會開放을 바란다면 南北高位級會談을 하루빨리 성사시켜 동포들의 자유로운 通行·通信을 보장하고 軍事的 緊張을 완화하기 위한 實踐措置들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p> <p>○ 아울러 나는 제 4 南侵用 땅굴 發見과 관련하여 貴側이 이를 承認·謝罪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측의 모략극이라고 둘러대며 사실을 隱蔽하려하고 있는데 대해서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p> <p>○ 나는 貴下가 辨明과 責任轉嫁로 時日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南北高位級會談을 열어 쌍방 總理間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일 것을 期待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4. 19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書翰</p>	<p>〈韓弼花 편지전달 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弼花·韓弼聖 남매간에 편지를 주고받게 하고 서로 상봉하도록 하는 것은 응당 北南赤十字會談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解決되어야 할 성격의 問題임. ○ 그렇지만 우리는 韓弼花·韓弼聖 남매간의 문제를 赤十字會談과는 관계없이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 親友들 모두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4. 27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宋漢 虎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p>〈제 7 차 豫備會談 5월 開催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7 개최기로 合意했던 제 7 차 豫備會談이 貴側의 일방적인 會談不參 宣言으로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中斷狀態에 놓여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1990년대를 맞이한 우리 民族의 간절한 所望은 南北間에 다각적인 交流·協力을 실시하고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함으로써 民族的 信賴와 和解를 통해 平和統一을 이루는 것임. ○ 나는 南北高位級會談 제 7 차 豫備會談을 오는 5.22 오전 10시, 板門店 우리측 지역 「平和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貴側에 제의하는 바임.
<p>1990. 4. 30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p>	<p>〈韓弼聖씨 부부 平壤訪問 계획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弼聖씨는 그의 처를 동반하고 板門店을 통해 1990. 5. 15~ 5. 22까지 平壤을 訪問하여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상봉하고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4. 20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 文</p>			<p>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특례로 삼고 별도로 대하는 것 임.</p> <p>〈韓弼聖氏 平壤訪問時 身邊安全 保障〉</p> <p>○ 나는 共和國 해당기관에서 南朝鮮에 있는 韓弼聖과 그의 家族 들이 어머님과 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 平壤을 방문하는 경우 그를 환영할 것이며 그들의 身邊安全을 擔保하고 필요한 모든 편의를 提供할 것임을 通知하는 바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對北電通文</p> <p>1990. 5. 7</p> <p>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書翰</p>	<p>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음.</p> <p>○ 나는 貴 赤十字會가 貴側 當局과 韓弼花씨에게 연락하여 韓弼聖씨의 친족상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과 또한 韓弼聖씨 夫婦가 平壤에서 그들의 친족들과 상봉하고 예정대로 5.22 서울로 무사히 歸還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임.</p> <p>〈제 11차 南北赤十字會談 6월 중순 開催提議〉</p> <p>○ 작년에 있었던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에서 제 11차 赤十字會談 開催日字와 함께 제 2차 離散家族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교환日字에 合意해 놓고도 이것들이 實現되지 못하였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p> <p>○ 제 2차 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團 交換事業이 하루빨리 成事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立場에는 변함이 없으며 公演種目과 관련하여 貴側이 무리한 要求를 하지 않는다면 이 事業은 언제라도 實現이 가능하게 될 것임.</p> <p>○ 더이상 赤十字本會談이 中斷된 채 재개되지 못하고 離散家族 問題 解決이 지연된다면 이는 人道主義를 生命으로 하는 赤十字 本然의 使命과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p> <p>○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平壤에서 열기로 合意되어 있는 제 11차 南北赤十字會談을 오는 6월 중순에 개최할 것을 提議하는 바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5. 7 祖國平和統一委員會書記局長 안병수, 對南電 通文</p>	<p>〈콘크리트障壁 問題를 對話再開 前提條件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연히 存在하는 콘크리트障壁을 있지도 않는 것이며 허구적인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것이나, 軍事專門家가 아니라도 누구나 識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전차방어용 시설물이라고 변명하는 것이나, 더욱이 적반하장격으로 그것을 허무는 것이 자기측을 武裝解除시키는 것이라고 까지 力說하는 것은 國政을 맡고 있는 總理로서 무책임하고 경솔한 태도임. ○ 貴側은 말로만 來往과 開放을 환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장벽의 존재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할 용의를 表明함으로써 진정한 개방의지, 통일의를 보여주어야 함. ○ 70년대에 시작된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을 오늘날에 와서도 계속 강행하면서 情勢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성숙되어가는 對話를 中斷狀態에 몰아 넣는 것도 불사하며 땅굴사건이라는 상투적인 造作劇까지 꾸며내어 南北對決을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는 귀측의 反對話·反統一 姿勢는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할 수 없음. ○ 統一問題는 결코 집권자들 사이에 限한 문제가 아니라 全民族的인 문제이며 이 問題의 성과적인 解決을 위하여서는 當局과 各黨·各派, 各界各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들의

☑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5. 9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 文</p>	<p>意思가 충분히 고려되고 수용되어야 함.</p> <p>〈韓弼聖씨 歸還保障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弼聖 先生의 老母는 아들이 이번 기회에 일가족을 모두 데리고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貴側이 이를 외면하고 韓弼聖 先生 夫婦만을 보내려 하는데는 또다른 불순한 기도가 있는가 하는 疑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우리측으로서는 韓弼聖 先生과 그의 가족들의 平壤訪問기간 身邊安全을 해당기관에서 철저히 담보하도록 하겠지만 그들이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는 問題는 어머니와 韓弼聖 先生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결정할 問題라는 것을 지적해 두는 바임.
<p>1990. 5. 14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北側 代表團長 백남 준, 對南電通文</p>	<p>〈會談결렬 責任轉嫁 및 豫備會談날짜 추후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조롭게 진행되던 會談이 中斷된 것은 전적으로 貴측이 時代 錯誤的인 對決과 勝共의 망상에 사로잡혀 美國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극히 도발적인 「팀스피리트90」 合同軍事演習을 강행해 나선데 있음. ○ 제 7차 豫備會談 날짜와 관련하여서는 차후에 우리측으로서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날짜를 가급적으로 빨리 貴側에 通知할 것임.
<p>1990. 5. 16 祖國平和統一委 員會 代辯人, 記者會見</p>	<p>〈金剛山 共同開發에 관한 經濟合作契約 無效宣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월 現代그룹 名譽會長 鄭周永이 고향방문차 共和國 北半部に 찾아 왔을 때 우리 해당部門과 그와의 사이에는 金剛山을 共同開發할데 대한 經濟合作契約을 맺은 바 있으며,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5. 17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 文</p>	<p>그때 정주영은 고향방문을 기념하여 몇가지 건설기계를 선물로 기증하겠다고 말했다.</p> <p>○ 그런데 善意와 誠意만이 깃들여 있어야 할 선물에 無償供與라는 명색을 붙여 생색을 내려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어느 누가 받아들일수 있겠는가. 우리는 南朝鮮 當局이 搬出을 허가하였다는 이른바 供與裝備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임.</p> <p>○ 金剛山 共同開發에 관한 經濟合作契約은 南朝鮮 當局者들의 妨害策動으로 인하여 이미 無效로 되었다고 인정함. 北南 사이에 처음으로 모처럼 맺어졌던 經濟合作契約이 수포로 돌아간 책임은 전적으로 北南對決을 추구하면서 그 실현을 가로막아 나선 南朝鮮 當局者들에게 있음.</p> <p>〈제 11차 赤十字 本會談 開催拒否〉</p> <p>○ 귀측이 진심으로 赤十字 本會談 再開에 관심이 있다면 쌍방이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을 赤十字 本會談에 앞세우고자 승意한 조건에서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 事業을 성사시키기 위한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에 응해 나와야 할 것임.</p> <p>○ 實務代表接觸이 다시 열려 제 2차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事業이 순조롭게 실현되면 제 11차 赤十字 本會談은 자연히 재개될 것임.</p> <p>○ 貴側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 藝術公演 種目を 걸고 實務代表接觸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革命歌劇「꽃파는 처녀」를 받아들일 용단을 내리고 實務代表接觸에 응해 나와야 함.</p>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p>1990. 5. 24 金日成, 最高人民會議 제9기 제1차회의 施政演說</p>	<p>〈祖國統一課業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課題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統一을 위한 平和的 環境을 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不可侵宣言 채택 - 美·北韓 平和協定 締結 - 南北軍縮 및 駐韓美軍철수(단계적 철수 포함) ○ 둘째, 分斷障壁을 撤去하고 南北 自由往來·全面開放을 實現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쪽 人士의 訪北 歡迎 및 身邊安全保障 - 북쪽 주민의 남쪽 방문 積極 保障 - 이를 위해 콩크리트 장벽철거·惡法廢止 등 實際的 措置를 講究 ○ 셋째, 統一에 유리한 국제적 環境을 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舞臺에서의 對決止揚, 民族共同利益 수호 - 美國은 韓半島 問題에 責任있는 당사자로서 統一에 肯定的 役割 擔當 - 統一實現 이전 단계에서는 南北이 하나의 議席으로 유엔同時加入 ○ 넷째, 平和統一을 위해서 南北對話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當局·特定階層만을 위한 대화가 아닌 모든 政黨·社會團體·各界各層의 意思를 반영하는 全民族的 對話가 되어야 함. - 중단된 南北對話가 再開되어 좋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며 對話를 여러가지 형태로 擴大·發展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 ○ 다섯째, 全民族的 統一戰線을 形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 및 海外의 모든 政黨·社會團體·各界各層 人士를 망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5. 31 李秀正 青瓦臺 代辯人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盧泰愚 大統領 · 고르바초프 소련 大統領 會談開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盧泰愚 大統領은 오는 6. 4 미국 샌프란시스코市에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韓 · 蘇頂上會談을 갖기로 했음. ○ 역사상 처음 열리는 韓 · 蘇頂上會談에서는 世界의 變化와 동북아시아 情勢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南北韓 關係改善을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安定과 平和에 관한 問題를 논의하게 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5. 31 南北會談 北側 代表團(南北國 會會談 준비집 측·南北高位級 會談 예비회담· 南北赤十字 실 무대표접촉), 共 同聲明</p>	<p>라하는 統一戰線 形成</p> <p>〈南北對話의 조속한 再開 意思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對話를 進行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當局이나 特定階層의 의사만을 대변하는 대화가 아니라 모든 政黨·社會團體들과 各界各層 人민들의 意思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全民族的인 對話로 발전시키는 것임. ○ 北南對話들이 마련되고 그것이 統一問題 解決에서 실질적인 進展을 가져오는 對話가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南朝鮮側의 態度여하에 달려 있음. ○ 南朝鮮 當局者들은 더이상 分裂을 위한 對話와 對話를 독점하려는 閉鎖政策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이와함께 對話雰圍氣를 흐리게 하거나 대화 앞에 難關을 造成하는 大規模 戰爭演習과 反共對決 騷動을 중지해야 함.
<p>1990. 5. 31 中央人民委員會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政務 院 聯合會議</p>	<p>〈韓半島 平和 위한 軍縮提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軍事訓練과 軍事演習의 制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外國軍隊와의 모든 合同軍事演習과 軍事訓練 中止 ② 師團級 이상 규모의 軍事訓練과 軍事演習 禁止 ③ 軍事分界線 일대에서의 일체의 軍事演習 禁止 ④ 자기 領內에서 外國軍隊의 軍事演習 不許 2. 軍事分界線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非武裝地帶안에 配置된 모든 軍事人員들과 軍事裝備 撤收 ② 非武裝地帶에 설치한 모든 軍事施設物의 解體 ③ 非武裝地帶를 民間人들에게 開放하며 平和的 目的에 利用

☐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3. 偶發的 衝突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安全措置 講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高位軍事當局者間의 直通電話 設置·運營 ② 軍事分界線 일대에서의 軍事的 挑發行爲 禁止 <p>4. 武力의 段階的 減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兵力減縮은 쌍방간에 軍縮案이 合意된 때로부터 3~4년 동안에 3段階로 나누어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각각 30만명 • 2단계 → 각각 20만명 • 3단계 → 각각 10만명 이하 ② 段階別 兵力減縮에 상응하게 軍事裝備 縮小·廢棄 ③ 正規武力 減縮 첫 단계에서 모든 民間軍事組織과 民間武力 解體 <p>5. 軍事裝備의 質的 更新 中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새로운 軍事技術 裝備의 도입과 武裝裝備 開發中止 ②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軍事技術과 武裝裝備 不搬入 <p>6. 軍縮정형의 相互通報 및 검증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武力減縮 정형을 相互通知 ② 상대측 지역에 대한 상호 현지시찰을 통해 軍縮合意의 이행 정형을 검증 <p>7. 韓半島의 非核地帶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南朝鮮에 배치된 모든 核武器의 즉시 撤收를 위한 공동노력 경주 ② 核武器 生産·購入 禁止 ③ 核武器積載 外國 飛行機·艦船의 韓半島境內로의 出入과 通 過 禁止 <p>8. 韓半島에서의 일체의 外國軍隊를 철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p>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6. 1 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노력</p> <p>① 南朝鮮駐屯 美軍과 그 裝備들이 南北 武力減縮에 상응하게 段階的으로 完進철수</p> <p>② 美軍撤收에 상응하게 南韓에 설치된 美軍事基地들도 단계적 으로 撤廢</p> <p>9. 軍縮과 그 이후의 平和保障을 위한 措置講究</p> <p>① 軍事分界線 非武裝地帶에 中立國監視軍 배치</p> <p>② 軍備統制 및 南北間의 軍事的 紛爭問題들을 協議·解決하기 위해 쌍방 軍總參謀長級을 責任者로 하는 軍事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p> <p>10. 協商을 통한 不可侵宣言 採擇 및 대폭적인 감축에 合意</p> <p>〈韓·蘇頂上會談 開催反對 立場表明〉</p> <p>○ 우리는 우리의 同盟關係에 있는 蘇聯의 大統領이 朝鮮半島의 分裂만을 추구하는 남조선大統領을 단남으로써 심각한 政治的 影響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충분히 分析判斷하리라고 믿음.</p> <p>○ 소련·남조선간 頂上會談이 실현된다면 이것은 朝鮮半島의 分裂을 고착시키는 문제와 관련되는 심각한 政治적 問題로 발전할 것임.</p> <p>○ 그 어떤 조건에서도 朝鮮半島 統一에 방해되는 행동은 贊成 또는 同意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원칙적 立場임.</p> <p>○ 蘇聯은 우리의 統一政策을 지금까지 존중해왔음. 우리는 蘇聯이 「두개조선」을 인정함으로써 朝鮮半島와 아세아·태평양 地域情勢를 더 악화시키는 이같은 行動을 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함.</p>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6. 2~3 祖國의 平和와 統一을 위한 汎民族大會 實務會談, 合意書 (서베를린)</p>	<p>〈汎民族大會 實務會談 (豫備會談), 合意書 採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目的: 自主·平和統一·民族大團結의 3대原則에 基礎, 朝鮮半島의 平和와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촉진하는 데 있음. ○ 名稱: 조국의 平和와 統一을 위한 汎民族大會 ○ 主題: 「朝鮮半島의 平和를 보장하며 조국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촉진하기 위하여」 ○ 日時: 1990. 8. 13~17(5일간) ○ 場所: 本大會는 板門店, 관련행사는 서울·평양 및 기타지역 ○ 參加規模: 北과 南, 海外에서 각 지역별로 50~200명 정도 ○ 參加資格: 北과 南, 海外의 政黨·團體代表, 個別人士, 北과 南 當局代表 ○ 採擇文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會名義 決議文 - 北과 南, 海外同胞들에게 보내는 呼訴文 - 北南當局과 美國 및 유엔에 보내는 편지 ○ 大會 運營節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과 南, 海外側에서 각각 1명씩 共同議長團 構成, 번갈아 進行 - 北과 南, 海外에서 각기 3명으로 大會運營委員會 構成 - 北과 南, 海外에서 각기 2명씩으로 大會文件作成委 構成 - 主題에 대한 報告는 北과 南, 海外에서 각각 발표, 討論은 모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되 각 지역별 均衡保障 ○ 大會行事: 研究討論會, 文化의 밤 및 體育行事 등 ○ 統一運動 活性化사업: 각 지역에서 쉼기대회, 汎民族大會 축하 편지 이어달리기 등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0. 6. 4 盧泰愚 大統領 ·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 會 談 (샌프란시스코)	<p>〈韓·蘇 조속한 수교 및 韓半島 平和·經協增進 共同努力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盧泰愚 大統領과 고르바초프 大統領은 韓·蘇간의 關係正常化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완전한 修交關係를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合意했음. ○ 盧大統領과 고르바초프 大統領은 한반도 문제는 南北對話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각분야에 걸쳐 交流와 協力이 진전돼 나가야 한다는데 意見을 같이했음. ○ 盧大統領은 고르바초프 大統領이 南北關係改善을 위해 어떤 寄與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은데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金日成主席이 南北頂上會談을 수락하여 모든 問題를 對話로 풀어가도록 蘇聯이 중용해 줄 것 - 北韓이 開放과 改革으로 나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모든 나라와 友好協力關係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해 줄 것 - 南北韓間의 모든 問題를 武力에 依存하지 않고 平和의으로 이루고 한반도에 平和가 定着되도록 蘇聯이 지원해 줄 것을 희망 ○ 盧大統領과 고르바초프 大統領은 韓·蘇 兩國의 지리적 근접성과 經濟構造의 상호보완적인 關係를 바탕으로 交易과 經濟協力을 적극적으로 증진해 나가기로 合意했음.
1990. 6. 6 盧泰愚 大統領 · 부시 美大統 領 會談 (워싱턴)	<p>〈美, 韓·蘇修交 및 北韓開放化 적극협조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國 大統領은 韓·蘇關係 增進이 韓半島 緊張緩和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美國이 韓·蘇間의 國交正常化 등 關係改善을 적극 지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6. 4 諸政黨·社會團體聯合會議 운기북報告</p>	<p>〈民族統一準備委員會 構成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話를 진전시키자면 統一問題를 實제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대화로 되어야 하며 當局이나 特정한 階層의 의사만을 대변하는 對話가 아니라 모든 政黨·社會團體들과 各계各층 人民들의 意思를 民主主義적으로 반영하는 全民族的인 對話로 되게 해야함. ○ 조국통일이 절박하고 公동의 통일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絶실하면 韓수륙 민족公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북과 남의 폭넓은 協商이 지체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우리는 北과 南, 海外의 모든 政黨·社會團體와 여러조직원들 各界各層 人士들을 망라하는 全民족적인 統一戰線 組織으로서 民族統一準備委員會를 시급히 내을 것을 主張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또한 兩國 大統領은 북한의 核安全協定 加入問題와 관련, 이 문제는 韓·美兩國은 물론 蘇聯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北韓의 開放化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데 認識을 같이 했음.</p> <p>○ 특히 盧大統領은 미국이 北韓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있어 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南北對話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 核安全協定에 가입,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서 책임성 을 보이 는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p>○ 이에 대해 부시 大統領은 그것은 바로 미국의 對北韓 기본입 장이라며 전적으로 同感을 표시했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6. 13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北側 代表團長 전금 철·南北高位級 會談 豫備會談 北側代表團長 백남준, 共同名 義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韓·蘇頂上會談 비난 및 중단된 南北對話 再開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貴側 當局者가 누구를 改革과 開放에로 誘導해 달라느니, 南北頂上會談과 유엔 단독가입을 성사시켜 달라느니 한 것은 주체적인 統一努力과 배치되는 것임. ○ 民族內部問題를 남에게 의존하여 어느 한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民族의 將來를 위태롭게 하는 事大行爲이며, 동족사이의 對話를 안중에 두지 않는 反民族的 分裂行爲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귀측 當局者의 行爲가 再開를 앞둔 北南對話와 나라의 평화통일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遺憾을 표시하면서 현 시점에서 貴側 代表들이 우선 조성된 사태에 대한 자기의 명백한 태도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認定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6. 15 在野人士(312명), 「韓半島의 軍縮과 平和統一을 위한 宣言」採擇</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의 軍縮 및 平和協定締結 促求〉</p> <p>○ 우리는 민족의 살길은 오로지 현재의 南北關係를 조속히 平和體制로 전환시키고 서로간의 信賴와 和解를 이룩하며 自主·平和·民主的 統一을 실현하는데 있음을 천명하고자 하며, 民族的 良心과 平和統一의 의지를 지닌 각계의 목소리들을 모아 南北韓當局과 美國政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함.</p> <p>[南韓 政府當局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제기한 軍縮案 검토 및 韓半島 平和實現方案과 日程을 조속히 마련 - 南北高位當局者會談·頂上會談·政治軍事會談 추진 및 韓國 戰爭 當事國·한반도와 동북아의 平和를 구축하기 위한 인접 국가들과의 會談과 協商의 즉각적인 전개 - 當局의 北韓開放 촉구 및 國家保安法 廢止 <p>[北韓 政府當局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武器開發 즉시 중지 및 核安全協定 調印 - 平和協定締結 및 이를 위한 3者會談과 南北當局者會談 수용 - 南北離散家族의 交換訪問, 經濟的 交流協力과 合作 적극추진 <p>[美國 政府當局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半島의 分斷과 分斷體制지속에 대한 責任을 痛感하고 分斷과 戰爭狀態를 종식시키는 對韓半島 政策 즉각 강구 - 核武器撤去, 平和協定締結, 作戰權移讓 및 駐韓美軍의 철수 - 韓美合同軍事訓練·環太平洋軍事訓練 中止 및 對韓 軍事裝備 販賣計劃 是正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6. 25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宋漢 虎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차 豫備會談 開催일자 修正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高位級會談 제 7 차 예비회담을 오는 6. 28에 개최하고자 하는 6. 20자 귀하의 電話通知文을 받았음. ○ 귀측이 금년초 이래 중단상태에 놓여있던 南北對話의再開에 呼應해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함. ○ 우리측의 平和와 統一을 향한 正當한 外交活動을 귀측이 대화와 연관시키면서 非難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음. ○ 제 7 차 豫備會談을 오는 7. 3 오전 10시, 板門店 「平和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提議함. <p>* 북측, 6. 26 對南電通文을 통해 우리측 提議에 同意</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6. 20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北側 代表團長 전금 철·南北高位級 會談 豫備會談 北側代表團長 백남준, 共同名 義 對南電通文</p>	<p>〈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및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再開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은 이미 우리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또다시 外勢와 야합하여 우리를 攻擊하는 「팀스피리트90」合同軍事演習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한두번만 더 마주앉으면 本會談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우리의 豫備接觸들이 일시에 中斷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음. ○ 우리는 對話와 統一問題에 대한 貴側의 根本立場과 姿勢에 아직은 문제가 있지만 對話를 통하여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問題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귀측에 의해 중단된 對話를 再開하기로 하였음. ○ 오는 6. 28에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위한 제 7 차 예비 회담을 가질 것과 이어 7. 12에 北南國會議員들의 제 11 차 판 문점 상봉을 가질 것을 귀측에 提議하는 바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6. 29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宋漢 虎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p>〈代表 交替通報〉</p> <p>○ 우리측 代表團의 廉弘喆 대표와 金三勳 대표가 다음과 같이 교체되었음을 알리는 바임.</p> <p>一 代 表 : 崔善義(대통령비서실 秘書官)</p> <p>代 表 : 辛成梧(외무부 局長)</p>
<p>1990. 7. 3 南北高位級會談 제7차 豫備會談 (板門店 「平和 의 집」)</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議題表記 순서가 討議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北側 主張을 수용, 合意書(案)제시</p> <p>[南北高位級會談 開催에 관한 합의서(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會談名稱 南北高位級會談 2. 會談日時 - 1차會談은 豫備會談이 종료된 후 1개월안에 開催 - 1차會談 날짜를 정할 때 2차회담 날짜도 함께 정함. - 그 다음 會談부터는 매차 쌍방이 合意하여 정함. 3. 會談場所 -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 - 제1차 회담은 서울, 2차회담은 平壤 4. 會談議題 南北間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와 다각적인 交流協力 실 시문제 5. 會談代表團 構成 -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는 長 · 次官級 으로 구성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3 南北高位級會談 제7차 豫備會談 (板門店 「平和 의 집」)</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회담중단 책임을 우리측에게 轉嫁하고 유엔가입문제를 高位級 會談에서 우선 토의할 것을 주장, 합의서(초안) 제시</p> <p>[北南高位級會談 개최에 관한 合意書(초안)]</p> <p>1. 會談名稱 北南高位級會談</p> <p>2. 會談時日 - 제 1 차 會談은 豫備會談이 終了된 후 1개월안에 開催 - 제 1 차 會談날짜를 定할 때 제 2 차 會談날짜도 함께 定함. - 그 다음 會談날짜는 매차 회담때 쌍방이 合意하여 定함.</p> <p>3. 會談場所 -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開催 - 제 1 차 회담은 서울, 제 2 차 회담은 平壤</p> <p>4. 會談議程 「北南 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며 다방면적인 協 力과 交流를 實現할데 대하여」</p> <p>5. 會談代表團 構成 - 總理를 團長으로 하여 각기 7명으로 하되 代表는 部長 · 副 部長級으로 구성</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代表는 參謀總長級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함. 6. 隨行員 및 記者數 隨行員 33명, 記者 50명 7. 會談形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雙方會談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本會談 테두리 안에서 總理 單獨會談과 部門別 會談도 할 수 있음. - 會談은 公開 또는 非公開 8. 合意書 採擇 合意內容은 각기 2통씩 文書로 작성하여 代表團 首席代表가 署名한 다음 1통씩 교환 9. 會談記錄 速記·錄音·錄畫등 각기 편리한대로 함. 10. 會談報道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合意에 따라 合意內容을 共同으로 作成하여 발표 11. 會談場 標識 및 施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談場에는 어떠한 標識도 하지 않음. - 초청측은 會談場에서 상대측 代表團과 記者團이 자기측에 신속히 連絡할 수 있도록 通信施設을 설치 12. 身邊安全保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會談을 위하여 상대측을 往來하는 人員들의 身邊安全을 보장하는 總理名義로 된 兪書를 회담 7일전에 板門店에서 교환 - 초청측은 상대측 人員들의 文書·通信·事務用機材·寫眞·필름·錄音 및 녹화테이프·取材手帖·報道資料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携帶品에 대한 不可侵을 보장 13. 標識 및 證明書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 軍代表는 總參謀長級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함.</p> <p>6. 회담 隨員과 取材記者 隨員 33명, 取材記者 50명</p> <p>7. 會談形式</p> <p>- 代表團 會談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本會談 테두리안에서 雙方 總理單獨會談과 部門別 會談도 할 수 있음.</p> <p>- 會談은 公開 또는 非公開</p> <p>8. 合意書 採擇 合意內容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代表團 團長이 署名한 다음 1통씩 교환</p> <p>9. 會談記錄</p> <p>- 速記·錄音·錄畫등 각기 편리한대로 함.</p> <p>- 초청측은 상대측에 錄音中繼線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전 錄畫記錄을 위해 超短波를 상대측에 쏘아줌.</p> <p>10. 會談報道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合意된 내용은 필요하면 쌍방 合意에 따라 共同으로 作成하여 발표</p> <p>11. 會談場 標識 및 施設</p> <p>- 會談場에는 어떠한 標識도 하지 않음.</p> <p>- 초청측은 회담장에 會談에 필요한 시설의 다른 시설들을 設置하지 않음.</p> <p>- 초청측은 會談場과 行事場(숙소포함)에서 상대측 代表團과 記者團이 자기측에 신속히 連絡할 수 있도록 通信施設을 설치 보장</p> <p>12. 身邊安全保障 - 초청측은 자기측 地域에 오는 상대측 인원들의 身邊安全을 보장하는 總理名義로 된 身邊安全擔保覺書를 회담 5일전에</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代表團은 자기측 總理가 발행한 身分證明書를 지참 - 기자는 記者腕章을 착용 <p>14. 板門店 通過節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人員들의 名單을 회담 3일 전에 넘겨줌. - 名單에는 姓名·性別·代表團職位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 - 名單을 넘겨준 후 변동 사항은 直通電話로 통지하고 板門店을 통하여 이를 문서로 전달 - 代表團과 記者團의 闖문점 통과지점은 軍事分界線上에 있는 건물로 함. -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名單에 따라 신분을 對照確認하고 상대측 人員들을 接受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方法으로 확인 <p>15. 記者의 取材活動</p> <p>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取材活動을 보장하며 南北間의 信賴와 理解增進에 기여하는 方向에서 보도의 正確性和 公正性을 기하도록 함.</p> <p>16. 滯留日程</p> <p>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日程은 3박 4일로 하며 쌍방이 合意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초청측은 滯留日程을 회담 7일전에 상대측에 通知</p> <p>17. 便宜提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측은 滯留期間 상대측 人員들의 宿食·交通·通信·醫療·報道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提供 -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동안 초청측의 案內와 秩序에 따름. - 초청측은 상대측 代表團의 자기측지역 滯留期間중 1일2회 行낭운반을 保障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板門店에서 상대측에 넘겨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文書·通信·事務用 機材·사진 필름·녹음 및 녹화테이프·取材手帖·報道資料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不可侵을 보장 <p>13. 代表團 標識 및 證明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代表團은 자기측 總理가 발행한 身分證明書を 지참 - 쌍방은 자기측 人員들을 표시할 수 있는 標識를 각기 편리한대로 함. - 記者는 記者腕章을 김. <p>14. 北南來往節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人員들의 名單을 5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줌. - 명단에는 姓名·性別·代表團職位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 - 명단을 넘겨준후 變動되는 사항은 먼저 直通電話로 통지하고 板門店을 통하여 문서로 전달 - 來往수단은 飛行機·自動車·汽車로 함. 飛行機는 각기 자기측 飛行機를 이용하며 平壤(순안비행장)-서울(김포비행장)사이를 직행 - 회담을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陸路로 來往할 때 통과지점은 板門店으로 하며 초청측 지역에서 초청측의 自動車 또는 기차를 이용 -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名單에 따라 身分을 對照確認하고 상대측 人員들을 接受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 <p>15. 取材活動</p> <p>쌍방은 滯留期間 상대측 기자들의 取材活動을 보장함. 取材活動은 和解와 團合, 統一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상대방을 誹謗中傷하는 偏頗報道를 일체 하지 않도록 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8. 儀典 체류기간 儀典問題는 쌍방 실무자들 사이에 協議하여 해결</p> <p>19. 直通電話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平壤사이의 直通電話線을 이용하 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協議하여 增設</p> <p>20. 合意書 發效 合意書는 교환된 때로부터 유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3 政府·政黨·社會團體聯合會議, 共同聲明</p>	<p>16. 滯留日程 상대측에 滯留하는 일정은 3박4일로 하며 쌍방이 合意하여 조절할 수 있으며 滯留日程은 회담 5일전에 상대측에 통지하며 이를 쌍방이 합의하여 확정</p> <p>17. 便宜提供 - 초청측은 滯留期間 상대측 인원들이 宿食·交通·通信·醫療 및 기타 필요한 모든 便宜를 제공 - 쌍방은 상대측에 滯留하는 동안 초청측의 案內와 秩序에 따름. - 초청측은 상대측 代表團의 자기측지역 滯留期間중 1일2회 行낭운반을 保障</p> <p>18. 直通電話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사이의 直通電話線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合意하여 증설</p> <p>19. 合意書 發效 합의서는 쌍방이 署名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效力을 가지며 合意事項에 대한 廢棄 및 修正은 쌍방이 合意하여 할 수 있음.</p> <p>〈民族統一協商會議 소집 및 軍縮提案 수락 촉구〉</p> <p>○ 祖國統一은 두 제도의 우열을 가리거나 힘을 겨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南朝鮮當局은 민족적 입장에 서서 勝共統一의 환상에 사로잡혀 미제의 식민지 통치제도를 북에까지 연장하려 하지말고 북과 남이 하나의 統一國家에서 공존할 수 있는 聯邦制 통일방안에 응해야 함.</p> <p>○ 南朝鮮當局이 나라의 平和統一에 관심이 있다면 不可侵條約에 대하여 운운할 것이 아니라 緊張緩和와 平和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우리의 不可侵宣言과 軍縮에 관한 提案을 받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5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蔡汶 植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p>〈제11차 準備接觸日字 修正提議〉</p> <p>○ 현재 開會中인 우리측의 제150회 國會 會期가 7. 17까지인 점 을 고려하여 南北國會會談 제11차 準備接觸을 7. 19 오전10 시, 板門店 「統一閣」에서 가질 것을 提議함.</p> <p>* 북한측, 7. 7자 對南電通文을 통해 우리측 제안에 동의</p>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p>1990. 7. 5 祖國平和統一委 員會 聲明</p>	<p>들여야함.</p> <p>○ 祖國統一방도를 비롯하여 나라의 統一과 관련된 基本問題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北과 南의 當局과 政黨·團體代表들의 民族統一協商會議를 시급히 召集할 것을 주장함.</p> <p><8.15 期해 板門店 북측지역 開放宣言></p> <p>○ 北과 南 사이의 接觸과 來往은 統一問題의 해결과 밀접히 결부되어 進行되어야 함.</p> <p>- 南朝鮮과 해외의 政黨·團體·各界各層 人민들이 北을 방문하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며, 北의 政黨·團體·各界各層 人민들을 초청할 경우 場所·時日에 구애됨이 없이 기꺼이 呼應</p> <p>○ 北南 사이의 接觸과 來往에는 사상과 이념, 정견을 달리하는 政黨·團體·各界各層 人민들이 차별없이 다같이 동등하게 參加하여야 함.</p> <p>- 우리와의 接觸을 제기하였거나 희망한 남조선의 모든 政黨·團體 및 개별적 人士들이 사상과 정견상 문제로 하여 차별을 받지않는 조건에서 가까운 時日안에 平壤을 방문하는 것을 支持·歡迎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招請에 어느때든지 응할 것임.</p> <p>○ 北과 南 사이의 接觸과 來往 교류는 그 어떤 법률적 및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하며 拘束당하지 말아야 함.</p> <p>- 國家保安法을 비롯한 모든 惡法이 撤廢되어야 하며 상대방을 非難·攻擊하는 일체 社會·政治的 行事중지를</p> <p>○ 北南 接觸과 來往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板門店 우리</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6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第1 次 實務代表接 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南北高位級會談 개최에 관한 合意書(案)제시</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p>○ 會談날짜, 會談議題 表記를 제외한 17개항에 대해 합의</p>
<p>1990. 7. 12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第2 次 實務代表接 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p>○ 會談날짜</p> <p style="margin-left: 2em;">- 제 1 차 會談은 1990. 9. 4~9. 7까지</p> <p style="margin-left: 2em;">- 제 2 차 會談은 1990. 10. 16~10. 19까지</p> <p style="margin-left: 2em;">- 다음 會談날짜는 매차 회담때 쌍방이 合意하여 결정</p> <p>○ 會談議題: 「南北間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와 다각적인 交流協力 實施問題」</p> <p style="margin-left: 2em;">* 의제표기는 각기 편의주의로 함.</p>
<p>1990. 7. 16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蔡汶 植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 交替通報〉</p> <p>○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우리측 대표단의 金瑋鎬代表와 李煥逸 代表가 다음과 같이 交替되었음을 알리는 바임.</p> <p style="margin-left: 2em;">- 代表: 趙世衡(國會議員, 平和民主黨)</p> <p style="margin-left: 2em;">代表: 金鎔采(國會議員, 民主自由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6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第1次 實務代表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측 지역을 1990. 8. 15부터 開放할 것이며, 남측도 이에 상응 한 措置를 취할 것을 希望함.</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南北高位級會談 개최에 관한 合意書(초안)제시</p> <p><合意事項></p> <p>※ 左 同</p>
<p>1990. 7. 12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제 2 차 實務代表接 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合意事項></p> <p>○ 會談날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차 會談은 1990. 9. 14부터 9. 17까지 - 제 2 차 會談은 1990. 10. 16부터 10. 19까지 - 다음 會談날짜는 매차 회담때 쌍방이 合意하여 결정 <p>○ 會談議題: 「北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며 다방 면적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 데 대하여」</p> <p>* 의제표기는 각기 편의주의로 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18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蔡汶 植 首席代表, 對北電通文</p>	<p>〈제11차 準備接觸 呼應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 代表團이 오는 7.19에 갖기로 쌍방이 合意한 제11차 準備接觸을 일방적으로 無期延期할 것을 通報해온 데 대해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음. ○ 귀측이 우리 國內政治問題를 두고 이를 터무니 없이 歪曲·誹謗하면서 對話延期的 구실로 내세운 것은 語不成說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귀측의 底意를 의심케 하고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17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北側 代表團長 전금 철, 對南電通文</p>	<p>〈代表 交替通報〉</p> <p>○ 北南國會議員들의 板門店相逢 우리측 안병수대표 대신에 最高人民會議 남순희 대의원이 대표로 나가게 됨을 알리는 바임.</p>
<p>1990. 7. 17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北側 代表團長 전금 철, 對南電通文</p>	<p>〈제11차 準備接觸 無期延期 通報〉</p> <p>○ 貴國會에서 감행된 與黨의 횡포는 지금 南朝鮮에서 광범한 사회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어 野黨議員들의 議員職 전면 辭退라는 심각한 危機局面을 빚어내고 있음.</p> <p>○ 우리로서는 貴國會의 危機狀況을 앞에두고 北南國會 議員들 사이의 정상적인 相逢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못하다고 認定함.</p> <p>○ 7. 19로 예정된 제11차 板門店相逢을 부득이 당분간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바임.</p> <p>○ 우리는 앞으로 한달정도 期限을 두고 貴國會事態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時期에 다음번 상봉날짜를 通知할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0 盧泰愚 大統領, 「南北間의 民族 大交流」를 위한 特別發表</p>	<p>○ 貴側 內部에 어떤 사정이 없다면 合意된 會談日字를 일방적으로 破棄하고 그 責任을 상대방에게 돌리려는 姿勢를 버리고 하루속히 제11차 準備接觸에 호응해 나올 것을 促求하는 바 임.</p>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大交流 期間 宣布〉</p> <p>○ 解放 45周年을 맞는 올해 8·15를 전후한 5일간(8.13~8.17)을 「民族大交流의 期間」으로 선포하며, 이기간 동안 북한동포들이 원하는 남쪽의 어느지역도 자유로이 訪問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원하는 사람 누구라도 만날수 있도록 할 것임.</p> <p>○ 남쪽을 訪問하는 모든 북한동포들에게 가능한 모든 便宜를 提供하겠으며, 필요하다면 宿食도 지원하고 또한 이들의 身邊安全과 無事歸還을 보장할 것임.</p> <p>○ 나는 북한이 板門店 북측지역뿐 아니라 北韓의 어느곳이라도 자유로이 가볼 수 있도록 전지역을 開放하고 北韓訪問을 원하는 남쪽동포들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랍.</p> <p>○ 북한측이 아무 조건을 붙이지 말고 光復節 民族大交流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며 北韓側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相互交流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북한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全面開放을 일방적으로 실천할 것임.</p>
<p>1990. 7. 20 姜英勳 國務總 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大交流 節次問題 협의위한 쌍방 當局間 實務接觸 제의〉</p> <p>○ 盧泰愚 大統領이 1990. 7. 20, 해방 45주년을 맞는 올해 8·15를 전후한 5일간을 「民族大交流」의 기간으로 선포한 것은</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0 祖國平和統一委員會 聲明</p>	<p>〈民族大交流 提議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 當局者가 들고나온 특별발표는 판문점 汎民族大會를 파탄시키고 콩크리트장벽 해체와 北南사이의 自由來往·全面開放을 요구하는 內外 輿論을 무마하며 民自黨의 횡포로 빚어진 國會事態에 끌리고 있는 南朝鮮人民들의 이목을 단테로 돌리고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적인 宣傳廣告에 불과함. ○ 오는 8. 1~8. 12까지의 사이에 南側에서는 콩크리트장벽을 허물고 北側에서는 철조망을 제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共同機構로서 分斷障壁解體 北南共同推進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제의함. ○ 南朝鮮 當局은 「全民聯」과 「全大協」을 비롯한 南朝鮮의 모든 民主團體들과 民主人士들이 8. 15에 汎民族大會에 참가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汎民族大會召集을 방해하지 말며, 범민족대회 대표들의 祖國統一促進大行進隊列이 백두산을 출발하여 판문점을 거쳐 한라산까지 나가는 것을 保障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확약하는 공식 태도를 表明하여야 할 것임. ○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南朝鮮當局者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비록 制限性은 있으나 오는 8. 15부터 시일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板門店을 통한 部分的인 來往을 實現할 것임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3 洪性澈 國土統一院長官, 記者會見</p>	<p>開放과 交流·協力の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세계적 조류속에서 南北間에도 自由往來의 길이 트이기를 고대하고 있는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조치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大交流」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90. 7. 30 오전 10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雙方 당국 간의 實務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 ○ 쌍방의 實務代表는 次官級을 首席代表로 하여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임. <p>〈7. 26 汎民族大會 豫備會談 참가위한 北韓代表 訪韓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條件없는 民族의 大交流를 북한측에 提議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성명을 통해 콘크리트 장벽 철거, 國家保安法 撤廢, 拘束者釋放, 「8·15汎民族大會」 개최등을 南北往來의 전제조건화 함으로써 사실상 이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汎民族大會」에 관해서는 오는 7. 26의 汎民族大會 豫備會談 참가를 위해 北韓代表들과 海外同胞들이 우리측지역 방문을 申請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임. 또 이 대회와 관련하여 오는 8·15이전 우리측 인사들의 北韓訪問도 허가할 방침임. ○ 政府는 8·15 板門店에서 개최되는 汎民族大會에 우리측 참가도 許容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판문점 이외의 더 편리한 場所를 提供할 용의도 있음. ○ 우리는 汎民族大會 참가자들이 祖國統一促進大行進을 위해 백두산을 출발, 판문점을 거쳐 한라산까지 가는 것을 歡迎하며 아울러 우리측 人士들이 한라산을 출발하여 판문점을 거쳐 백두산까지 가는 것도 許容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3 政務院總理 연 형묵, 大統領 및 國務總理 앞 書翰 * 7. 21자</p>	<p>천명함.</p> <p><當局·政黨首腦協商會議 소집위한 실무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미 貴側에 오는 8. 1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남측지 역의 콘크리트장벽과 북측지역의 철조망을 동시에 제거하며 이를 위한 共同機構로서 分斷障壁解體 北南共同推進委員會를 구성할 것을 提議한 바 있음. ○ 우리는 이 問題를 포함하여 북과 남 사이의 自由來往과 全面 開放問題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이미 北과 南의 最高 位級이 참가하는 當局과 各 政黨首腦들의 協商會議를 시급히 召集할 것을 貴측에 촉구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안에 北南當局과 各 政黨代表들의 實 務接觸을 가질 것을 貴측에 정중히 제의하면서 오는 7. 27 오 전 10시 共和國 當局과 政黨들의 위임을 받은 4명의 대표들 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내보낼 것임. <p>* 平民黨·民主黨 總裁앞으로도 同一한 內容의 서한 발송</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3 李相蕪 國防部 長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障壁 共同調査 위한 南北軍事當局者 實務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우리가 전방지역에 방어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對戰車 障礙物을 人員遮斷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南北對話와 연계시켜 오다가 이번에는 南北民族大交流에 대해서 까지 前提條件의 하나로 있지도 않은 障壁撤去를 주장하고 있음. ○ 韓半島 休戰線上에는 베를린과 같은 도시도 없고 休戰協定上 상호인원의 자유출입이 금지된 폭 4km의 非武裝地帶가 설치 되어 있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人員往來를 차단하기 위한 장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임. ○ 우리가 설치한 對戰車障礙物 지역은 총 휴전선 250km(155마일)중에서 30km에 불과하며, 반면에 북한은 우리의 2배가 넘는 70여km의 對戰車障礙物을 설치해 놓고 있을뿐만 아니라 境界철조망도 우리는 2중으로 설치하였으나 北韓은 고압전기 철조망을 포함, 5~6중으로 설치하여 북한의 주민과 장병들의 歸順을 차단하고 있음. ○ 우리는 「南北 民族大交流」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염원에 따라 北側의 共同調査 提議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음. ○ 共同調査는 북측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 어느곳이든지 와서 調査하는 대신에 衡平의 原則에 따라 우리도 북한지역을 자유로이 調査活動을 할 수 있도록 북측은 保障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북한이 남한에서 掘鑿했다고 主張하는 땅굴까지도 확대, 공개적으로 調査할 것을 제외함. ○ 이를 위해 相互 軍事要員 3명으로 구성된 實務接觸을 1990. 7. 27 오전10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가질 것을 제외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3 徐義玄 韓國佛 教宗團協議會 회장 聲明</p>	<p>〈南北佛教徒會談 開催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중 서울이나 平壤에서 南北佛教徒會談 개최를 제의함. ○ 북한의 佛教文化財 發掘·補修에 필요한 일체의 技術·財政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 ○ 10월로 예정된 世界佛教徒大會와 漢江燃燈祭 大法會에 北韓 佛教徒 代表를 초청함.
<p>1990. 7. 24 姜英勳 國務總 理, 對北電通文</p>	<p>〈軍事·法務當局者 실무접촉 및 民族大交流 節次協議 위한 實務接觸 受諾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7.23 오전 9시 3部長官의 記者會見을 통해 南北軍事當局者 實務接觸과 南北法務當局者 實務接觸을 오는 7.27 오전 10시, 板門店에서 각각 가질 것을 귀측에 提議한 바 있음. ○ 南北間의 자유왕래와 개방문제는 책임과 권능을 가진 쌍방當局間에 協議·解決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귀측이 當局·政黨 首腦級 協商會議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왕래와 개방문제를 政治的 목적에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음. ○ 南北軍事當局者 實務接觸에서는 귀측이 주장하는 「콘크리트장벽」 共同調査問題와 관련하여 쌍방의 對戰車障礙物과 땅굴에 대한 共同調査問題를 협의하며, 共同調査를 위해 귀측은 우리 측 지역 어느 곳이든지 와서 調査하고 또한 우리는 귀측지역을 자유로이 調査활동을 할 수 있도록 相互 保障하여야 할 것임. - 南北軍事當局者 實務接觸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각기 3명의 軍事要員이 참가하며,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갖는 것

出 處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4 祖國平和統一委 員會 代辯人 聲 明</p>	<p>〈南北法務當局者會談・南北軍事當局者會談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에게는 南朝鮮에 國家保安法과 같이 동족을 반대하며 동족과의 어떠한 接觸과 交流도 범죄시하는 그러한 법이 없으며 체포 투옥된 統一愛國人士도 없음. 따라서 南朝鮮當局자들이 만들어낸 國家保安法을 저들이 폐지하고 구속한 방북인사들을 그들 스스로가 釋放하면 되는 것이지 그 무슨 南北法務當局者會談과 같은 것은 애당초 필요치도 않은 것임. ○ 國防部長官이 이번에 또다시 콩크리트장벽의 存在를 부정하고 우리측에도 障壁이 있는 것처럼 생트짐을 잡는 것은 더욱 황당무계한 것으로 우리측 지역에는 그 무엇을 調査하고 확인할 아무것도 없음. 문제는 남측이 엄연히 存在하는 콩크리트 장벽을 스스로 허물면 되는 것이지 共同調査나 하자고 接觸을 가질 필요는 없음. ○ 우리는 콩크리트 장벽문제와 관련하여서도 南朝鮮當局의 提議를 함께 論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이를 위하여 남측이 우리가 제기한대로 北南最高位級이 참가하는 當局과 各政黨 首腦들의 協商會議를 마련하기 위한 7.27의 實務接觸에 나올 것을 희망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4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이 좋을 것임.</p> <p>○ 南北法務當局者 實務接觸에서는 南北法務當局者會談의 준비절차문제를 협의하며, 南北法務當局者會談이 열리면 우리의 國家保安法 및 구속자 문제와 귀측의 安全關係刑事法과 思想犯問題등 남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法的·制度的 改善問題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임.</p> <p>— 南北法務當局者 實務接觸은 局長級을 首席代表로 각기 3명의 법무실무자가 참가하며, 「統一閣」이나 「平和의 집」중 귀측이 원하는 場所에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p> <p>○ 아울러 7. 30의 民族大交流 實現節次 協議를 위한 쌍방 당국 간 實務接觸에 동의해 나올 것을 촉구함.</p> <p>〈汎民族大會 北側準備委의 편지접수 위한 赤十字連絡官 板門店 파견통보〉</p> <p>○ 그동안 南北間의 모든 연락업무는 쌍방 赤十字社가 담당·수행해 왔음.</p> <p>○ 나는 귀측의 汎民族大會 準備委員會가 우리측 「全民聯」앞으로 보내오는 便紙를 접수하기 위하여 2명의 赤十字連絡官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로 보낼 것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4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 文</p>	<p>〈全民聯대표가 便紙接受할 것을 요구〉</p> <p>○ 나는 귀측이 汎民族大會를 催방하려는 意圖가 없다면 이미 우 리가 通知한대로 「全民聯」代表가 관문점에서 우리의 편지를 접수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p>
<p>1990. 7. 24 汎民族大會 北側準備委員 會, 「全民聯」앞 書翰(7. 23자) * 방송공개</p>	<p>〈汎民族大會 제 2차 豫備會談에 북측代表團 派遣 통보〉</p> <p>○ 나는 自主·平和統一·民族大團結의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民族의 굳은 신념을 내외에 보여주게 될 汎民族大會 제 2차 豫備會議(7. 26, 서울)에 5명의 우리측 代 表들을 보낼 것임을 알림.</p>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5 政務院總理 연 형묵, 對南電通 文</p>	<p>〈當局·政黨首腦 協商會議을 위한 實務接觸 개최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의 最高位級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수뇌들의 協商會議는 콩크리트장벽을 제거하고 북남사이의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실현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협의하면서 귀측이 제기한 콩크리트장벽 共同調査問題를 포함하며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폭넓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協商會議를 마련하기 위한 實務接觸이 이루어지면 貴側이 제기하는 여러갈래의 實務接觸을 구태여 따로할 필요가 없다고 認定하면서 이미 제의한대로 귀측에서 7.27 實務接觸에 4명의 대표를 내보내 줄 것을 희망함.
<p>1990. 7. 25 政務院總理 연 형묵, 對南電通 文</p>	<p>〈汎民族大會 豫備會談 北側代表團 서울방문 관련 實務節次 討議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6 서울에서 열리는 汎民族大會 제2차 豫備接觸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측 대표단이 서울에 가는것과 관련한 實務節次를 討議하기 위하여 7.26 오전 7시30분, 2명의 연락원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로 내보낼 것임.
<p>1990. 7. 25 汎民族大會 北 側 準備委員會 委員長 윤기복, 對南電通文</p>	<p>〈汎民族大會 豫備會談 대표단 名單透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豫備會議에 참가할 汎民族大會 北側準備委員會 代表團을 5명으로 구성하고 이에 取材記者를 10명 同行시키려고 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5 姜英勳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豫備會談 참가할 北側代表團 身邊安全保障 登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우리政府의 방침에 따라 귀측 實務代表들이 任務遂行을 마치고 무사히 歸還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身邊安全을 保障할 것임을 확약함. ○ 貴側 인원 15명이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 오는데 따른 實務的인 문제를 協議하기 위하여 7. 26 오전 7시30분, 板門店 中監委會會議室에 우리측 連絡官 2명을 내보낼 것임. ○ 8. 15 汎民族大會의 원만한 開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귀측이 7. 30의 民族大交流 實現節次 協議를 위한 雙方 當局間 實務接觸에 同意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p>1990. 7. 26 南北高位級會談 제8차 豫備會談 (板門店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개최에 관한 合意書]</p> <p>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남측대표단과 북측대표단은 1989. 2. 8 부터 1990. 7. 26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8차례의 豫備會談과 2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지고 雙方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 開催問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會談名稱 會談名稱은 「南北高位級會談」으로 함. 2. 會談날짜 제 1 차 會談은 1990. 9. 4부터 9. 7까지 하며 제 2 차 會談은 1990. 10. 16부터 10. 19까지 함. 다음 會談날짜는 매차 회담 때 쌍방이 合意하여 정함. 3. 會談場所 회담은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되 제 1 차 會談은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5 汎民族大會 北 側 準備委員會 委員長 윤기복, 對南電通文</p>	<p>〈汎民族大會 豫備會談 代表團 身邊安全保障 및 便宜提供 要 請〉</p> <p>○ 7. 26 서울에서 개최하는 8. 15 汎民族大會와 관련한 제 2 차 豫備會議에 5명의 實務代表들을 파견하기로 하였음.</p> <p>○ 우리측 實務代表들이 부과된 任務를 원만히 遂行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便宜를 保障하며 身邊安全을 擔保해 주리라는 희망을 표시함.</p>
<p>1990. 7. 26 南北高位級會談 제8차 豫備會談 (板門店 「통일 각」)</p>	<p>〈合意事項〉</p> <p>[北南高位級會談 개최에 관한 合意書]</p> <p>北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북측대표단과 남측대표단은 1989. 2. 8 부터 1990. 7. 26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8차례의 豫備會談과 2 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지고 雙方 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北南 高位級會談 開催問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음.</p> <p>1. 會談名稱 會談名稱은 「北南高位級會談」으로 함.</p> <p>2. 會談날짜 제 1 차 會談은 1990. 9. 4부터 9. 7까지 하며 제 2 차 會談은 1990. 10. 16부터 10. 19까지 함. 다음 會談날짜는 매차 회담 때 쌍방이 合意하여 정함.</p> <p>3. 會談場所 회담은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되 제 1 차 會談은</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서울에서, 제 2 차 會談은 平壤에서 함.</p> <p>4. 會談議題 회담의제는 「南北間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와 다각적인 交流協力 實施問題」로 함.</p> <p>5. 會談代表團 構成 會談代表團은 總理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는 長·次官級으로 구성함. 회담대표단의 軍代表는 參謀總長級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數는 각기 편리한대로 함.</p> <p>6. 會談隨行員과 取材記者 會談隨行員은 33명으로 하며 取材記者는 50명으로 함.</p> <p>7. 會談形式 회담은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함. 회담은 쌍방 代表團會談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本會談 테두리안에서 總理單獨會談과 部門別會談도 할 수 있음.</p> <p>8. 合意書 採擇 合意內容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代表團 首席代表가 署名한 다음 1통씩 교환함.</p> <p>9. 會談記錄 會談記錄은 速記·錄音·錄畫등 각기 편리한대로 함. 초청측은 상대측에 錄音中繼線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전 녹화기록을 위해 超短波를 상대측 지역에 보내줌.</p> <p>10. 會談報道 會談報道는 각기 편리한대로 함. 會談에서 合意된 내용은 필요하면 쌍방 合意에 따라 공동으로 作成하여 발표할 수 있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서울에서, 제 2 차 會談은 平壤에서 함.</p> <p>4. 會談議題 會談議題는 「北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며 다 방면적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데 대하여」로 함.</p> <p>5. 會談代表團 構成 會談代表團은 總理를 단장으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는 部 長·副部長級으로 구성함. 회담대표단의 軍代表는 總參謀長級을 포함하여 2명이내로 하 며 그 數는 각기 편리한대로 함.</p> <p>6. 會談隨員과 取材記者 會談隨員은 33명으로 하며 取材記者는 50명으로 함.</p> <p>7. 會談形式 회담은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함. 회담은 쌍방 代表團會談을 基本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本會談 테두리안에서 總理單獨會談과 部門別會談도 할 수 있음.</p> <p>8. 合意書 採擇 合意內容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代表團 團長이 署名 한 다음 1통씩 교환함.</p> <p>9. 會談記錄 會談記錄은 速記·錄音·錄畫등 각기 편리한대로 함. 초청측 은 상대측에 錄音中繼線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전녹화기록 을 위해 超短波를 상대측 지역에 보내줌.</p> <p>10. 會談報道 會談報道는 각기 편리한대로 함. 會談에서 合意된 내용은 필요하면 쌍방 合意에 따라 공동으로 作成하여 발표할 수 있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1. 會談場 標識 및 施設</p> <p>① 會談場에는 어떠한 標識도 하지 않음.</p> <p>② 招請側은 會談場에 회답에 필요한 시설외 다른 시설들을 設置하지 않음.</p> <p>③ 招請側은 會談場과 行事場(숙소포함)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連絡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함.</p> <p>12. 身邊安全保障</p> <p>① 招請側은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인원들의 身邊安全을 보장하는 總理名義로 된 身邊安全保障覺書를 회답 5일전에 板門店에서 상대측에 넘겨줌.</p> <p>② 招請側은 상대측 인원들의 文書·通信·事務用 機材·사진 필름·錄音 및 녹화테이프·取材手帖·報道資料 및 기타 회답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不可侵을 보장함.</p> <p>13. 代表團 標識 및 證明書</p> <p>①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總理가 발행한 身分證明書を 지참함. 쌍방은 자기측 인원들을 表示할 수 있는 標識를 각기 편리한대로 함.</p> <p>② 記者는 記者腕章을 착용함.</p> <p>14. 南北往來節次</p> <p>① 雙方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人員들의 名單을 會談 5일 전에 상대측에 넘겨줌.</p> <p>② 名單에는 姓名·性別·代表團職位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함.</p> <p>③ 名單을 넘겨준 후 變動되는 사항은 먼저 直通電話로 통지하고 板門店을 통하여 文書로 전달함.</p> <p>④ 往來手段은 비행기·자동차·기차로 함.</p>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p>11. 會談場 標識 및 施設</p> <p>① 會談場에는 어떠한 標識도 하지 않음.</p> <p>② 招請側은 會談場에 회담에 필요한 시설의 다른 시설들을 設置하지 않음.</p> <p>③ 招請側은 會談場과 行事場(숙소포함)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連絡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함.</p> <p>12. 身邊安全保障</p> <p>① 招請側은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인원들의 身邊安全을 보장하는 總理名義로 된 身邊安全保障覺書를 회담 5일전에 板門店에서 상대측에 넘겨줌.</p> <p>② 招請側은 상대측 인원들의 文書·通信·事務用 機材·사진 필름·錄音 및 녹화테이프·取材手帖·報道資料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不可侵을 보장함.</p> <p>13. 代表團 標識 및 證明書</p> <p>①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總理가 발행한 身分證明書를 지참함. 쌍방은 자기측 인원들을 表示할 수 있는 標識를 각기 편리한대로 함.</p> <p>② 記者는 記者腕章을 낀.</p> <p>14. 北南來往節次</p> <p>① 雙方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人員들의 名單을 會談 5일 전에 상대측에 넘겨줌.</p> <p>② 名單에는 姓名·性別·代表團職位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함.</p> <p>③ 名單을 넘겨준 후 變動되는 사항은 먼저 直通電話로 통지하고 板門店을 통하여 文書로 전달함.</p> <p>④ 來往手段은 비행기·자동차·기차로 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비행기는 각기 자기측 飛行機를 利用하며 서울(김포공항) - 平壤(순안비행장)사이를 直行함.</p> <p>⑤ 會談을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陸路로 往來할 때 통과지점은 板門店으로 하며 초청측 지역에서 초청측의 자동차 또는 기차를 利用함.</p> <p>⑥ 초청측은 상대측으로 부터 넘겨받은 名單에 따라 身分을 對照確認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接受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方法으로 확인함.</p> <p>15. 記者의 取材活動</p> <p>① 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의 滯留期間 취재활동을 保障함.</p> <p>② 쌍방은 和解와 團合, 信賴와 理解를 도모하는 方向에서 보도의 正確性과 公正性을 기하도록 함.</p> <p>16. 滯留日程</p> <p>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日程은 3박 4일로 하며 쌍방이 合意하여 調整할 수 있음.</p> <p>초청측은 滯留日程을 회담 5일전에 상대측에 通知하며 이를 쌍방이 合意하여 확정함.</p> <p>17. 便宜提供</p> <p>① 초청측은 滯留期間 상대측 인원들의 宿食·交通·通信·醫療 및 기타 필요한 모든 便宜를 제공함.</p> <p>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동안 초청측의 案內와 秩序에 따름.</p> <p>③ 초청측은 상대측 代表團의 자기측 지역 滯留期間중 1일 2회 行낭운반을 保障함.</p> <p>18. 直通電話</p> <p>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平壤 사이의 直通電話線을 利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비행기는 각기 자기측 飛行機를 利用하며 平壤(순안비행장)-서울(김포비행장)사이를 直行함.</p> <p>⑤ 會談을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陸路로 來往할 때 통과지점은 板門店으로 하며 충청측 지역에서 충청측의 자동차 또는 기차를 利用함.</p> <p>⑥ 충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名單에 따라 身分을 對照確認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接受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方法으로 확인함.</p> <p>15. 記者의 取材活動</p> <p>① 충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의 滯留期間 취재활동을 保障함.</p> <p>② 쌍방은 和解와 團合, 信賴와 理解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正確性과 公正性을 기하도록 함.</p> <p>16. 滯留日程</p> <p>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日程은 3박 4일로 하며 쌍방이 合意하여 調節할 수 있음.</p> <p>초청측은 滯留日程을 회담 5일전에 상대측에 通知하며 이를 쌍방이 合意하여 확정함.</p> <p>17. 便宜提供</p> <p>① 충청측은 滯留期間 상대측 인원들의 宿食·交通·通信·醫療 및 기타 필요한 모든 便宜를 제공함.</p> <p>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동안 초청측의 案內와 秩序에 따름.</p> <p>③ 충청측은 상대측 代表團의 자기측 지역 滯留期間중 1일 2회 行낭운반을 保障함.</p> <p>18. 直通電話</p> <p>쌍방은 이미 가설된 平壤과 서울 사이의 直通電話線을 利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6 姜英勳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증설할 수 있음.</p> <p>19. 合意書 發效</p> <p>合意書는 쌍방이 署名하며 교환한 때로부터 效力을 가짐. 合意事項에 대한 廢棄 및 修正은 쌍방이 합의하여 할 수 있음.</p> <p>〈民族大交流 節次協議 위한 實務接觸 呼應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귀측이 同意한다면 언제라도 南北軍事當局者 實務接觸과 南北法務當局者 實務接觸을 열어 쌍방의 對戰車障礙物과 땅굴에 대한 共同調查問題와 南北交流를 촉진하기 위한 法的·制度的 改善問題를 論議할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임. ○ 나는 귀측이 民族大交流 提議에 호응함으로써 우리측이 제의한 7.30 民族大交流 實現節次를 협의하기 위한 雙方 當局間 實務接觸에 同意해 나올 것을 거듭 促求하는 바임.
<p>1990. 7. 26 洪性澈 國土統一院長官, 記者會見</p>	<p>〈汎民族大會 豫備會談 霧散經緯 說明 및 會談成事 위한 努力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側은 오늘 오전 連絡官 接觸에서 과거의 관례대로 상대측의 案內와 秩序에 따른다는 원칙에 同意하고 宿所·車輛·通信保障 등과 관련하여 우리측의 案內에 따르기로 合意하였음. ○ 그러나 北韓側은 이같은 合意를 외면하고 아무런 責任이 없는 全民聯의 案內에 따르겠으며 숙소문제까지도 「全民聯」측과 合意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더 이상의 連絡官接觸을 기피함으로써 汎民族大會 제2차 豫備會談은 霧散되고 말았음. ○ 우리는 북한측이 조건없이 午前 連絡官接觸의 합의에 따를 것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6 汎民族大會 北 側準備委員會 聲明</p>	<p>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증설할 수 있음.</p> <p>19. 合意書 發效</p> <p>合意書는 쌍방이 署名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效力을 가짐. 合 意事項에 대한 廢棄 및 修正은 쌍방이 同意하여 할 수 있음.</p> <p>〈汎民族大會에 58개 社會團體 參加不許 主張〉</p> <p>○ 南朝鮮 當局者들이 汎民族大會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릇된 처 사를 뒤우치지도 않고 民族의 초보적인 要求도 외면한 裁官 製 反統一團體들을 신성한 大會에 끼어 넣으려 하는 것은 言 語道斷임.</p> <p>○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역사적 汎民族大會를 아끼고 이 大會를 어떻게하나 祖國統一을 위한 舉族的 大行進의 획기적 전기로, 애국적인 民族民主統一勢力의 역사적 회합으로 되게 하려는 崇高한 立場으로부터 南朝鮮의 58개 官製 反統一團體들이 이 大會에 參加하려는 것을 絶대로 許容할 수 없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6~27 汎民族大會 제 2 차 豫備會談 合意書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 南韓·海外代 表 2者會談</p>	<p>을 바라며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밝혀둠.</p> <p>〈제 3차 豫備會談, 8. 6 平壤開催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 8. 6 南과北, 海外同胞 代表등 3者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제 3차 豫備會談을 갖기로 合意하였음. ○ 當局에 의해 南側代表의 판문점 통과가 거부돼 會議參席이 어려울 경우 海外同胞에게 권한을 委任하는 方式을 택함. ○ 제 1차 豫備會談(6. 2~6. 3 서베를린)에서 합의된 11개항에 同意하고, 汎民族大會를 8. 13~8. 17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함. ○ 參加團體 選定 및 規模는 과거 전력에 관계없이 향후 統一運動에 參與를 약속한 團體 및 個人으로 하며 推進本部別 參加人員은 50~330명 범위내에서 同數로 정할 것임.
<p>1990. 7. 27 國土統一院 代 辯人 論評</p>	<p>〈北韓側의 合意事項 翻覆 중지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제 있었던 連絡官接觸에서 北韓側은 과거의 慣例대로 우리측의 案內와 秩序에 따른다는 원칙에 同意하였으며 宿所·車輛·通信保障등에 관한 우리측 提議에도 아무런 異議를 제기하지 않았음. ○ 또한 北韓側은 우리측이 便宜提供 및 身邊安全保障 問題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政府代表와 合意해 달라고 한데 대해서도 이를 受容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그 이후 진행된 連絡官接觸에서부터 態度를 바꾸어 「全民聯」의 案內만 받겠다는 억지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6日字 聲明에서는 우리 當局의 案內를 받겠다고 合意한 일이 없다고 強辯하였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7 汎民族大會 北 側準備委員會, 公開書翰</p>	<p>〈제 3차 豫備會談, 7. 30 平壤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海外側 代表들이 서울에 와있는 실정에서 제1, 2차 豫備接觸 結果에 토대하여 시급히 3者が 마지막 接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제 3차 豫備會談 접촉을 7. 30~7. 31에 平壤에서 가질 것을 提議함. ○ 貴側 代表團(全民聯)과 貴 聯合을 통해 해외측 代表단이 곧 판문점을 거쳐 平壤을 訪問하도록 초청하는 바이며, 아울러 代表단의 身邊安全은 우리측 當局에서 保障하게 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7 國土統一院 代 辯人 論評</p>	<p>○ 北韓側이 진정으로 汎民族大會를 成事시킬 의사가 있다면 남북간의 合意事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구태의연한 態度를 중단해야 할것임.</p> <p>〈雙方 合意事項 遵守 促求〉</p> <p>○ 北韓側은 身邊安全과 便宜提供을 우리 정부당국이 보장하기로 쌍방간에 合意되어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全民聯」의 案內만 따르겠다는 억지주장을 하는가 하면 宿所問題까지도 「全民聯」측과 合意해야 한다고 했으며, 政府代表의 차량동승을 거부한데 이어 오후 4시경 더 이상의 連絡官接觸마저 거부한채 直通電話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고 말았음.</p> <p>○ 北韓側은 여전히 어제의 立場을 固守하면서도 11시30분경 案內問題와 관련하여 판문점과 서울, 서울과 판문점 사이는 當局이 안내하고 숙소와 회담장등에서의 안내는 「全民聯」측이 담당한다는 提議를 해왔음.</p> <p>○ 이것은 北韓側이 상대측의 案內와 秩序에 따른다는 原則을 받아들인 立場變化가 아니라 여전히 當局을 排除하겠다는 논리라고 할 것임.</p> <p>○ 우리는 北韓側이 아무런 태도변화 없이 오늘 또다시 板門店을 政治宣傳場化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南北間의 合意事項은 반드시 尊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強調해 두고자 함.</p>
<p>1990. 7. 28 「全民聯」 및 海 外僑胞代表 記</p>	<p>〈제 3차 豫備會談, 8.6 平壤開催 立場 再確認〉</p> <p>○ 제 3차 豫備會談은 8.6 平壤에서 開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者會見	확인 하며 政府의 不許로 판문점을 통한 訪北이 어려울 경우, 海外僑胞 代表團에 전권을 위임하여 그 決定에 따를 것임.
1990. 7. 30 姜英勳 國務總 理, 對北電通文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大交流 實現節次 協議에 호응 再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아무런 條件이나 制限없이 民族大交流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귀측이 진정으로 平和와 統一의 길에 同參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획기적인 提議를 받아들일 것으로 期待하였음.○ 그러나 귀측은 이러저러한 前提條件을 내거는가 하면 當局·政黨首腦 協商會議에서 自由往來問題를 논의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이의 實現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29 外交部 代辯人 聲明</p>	<p>〈修交 및 經協 위한 韓·蘇政府間 會談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問題에 관련이 있는 일부 나라들이 朝鮮의 分裂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責任을 느낄 대신 도리어 現 分裂狀態를 固定化·合法化 하려는 行동을 날로 노골화 하는 것을 목과 할 수 없음. 朝鮮의 北과 南이 單一議席에 의한 유엔共同加入 問題를 協議하기로 한 이상 그 누구도 이에 抵觸되는 行動을 하지 말아야 함. ○ 南朝鮮 當局者들은 北南高位級會談을 눈앞에 둔 이시각에도 우리 民族內部問題인 統一問題를 밖으로 들고 다니고 있음. 朝鮮問題에 관련이 있는 일부 나라들이 이것을 옳게 가려보려고 처신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두개 朝鮮의 인정과 그에 基礎한 關係樹立에 대하여 強調하는지 알 수 없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우리는 귀측의 그러한 態度가 부당한 것이기는 하나 民族大交流의 실현을 바라는 온 겨레의 期待에 副應하기 위하여 귀측이 提起한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協議할 수 있다는 前向的 입장을 밝힌 바 있음.</p> <p>○ 나는 귀측이 民族大交流의 實現을 위한 節次問題協議에 하루 속히 呼應해 나올 것을 거듭 促求하는 바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7. 30 汎民族大會 北 側準備委員會, 放送通知文</p>	<p>〈제 3차 豫備會談 8.6 平壤開催 同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貴聯合(全民聯)과 海外側에서도 우리와 見解를 같이 하고 제 3차 豫備接觸을 平壤에서 가지자고 한데 대해 歡迎하면서 사정을 고려하여 오는 8.6에 이 接觸을 가지자는 貴聯合의 意見에 同意를 표시하는 바임. ○ 南朝鮮當局이 새삼스럽게 各界各層을 들고나와 平壤 豫備接觸에 까지 끼어들려는데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默認할 수 없음.
<p>1990. 8. 1 汎民族大會 北 側準備委員會 委員長 윤기복, 對南電通文</p>	<p>〈平壤 豫備會談에 參加할 全民聯代表 身邊安全保障 擔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民聯」代表들이 板門店을 통과하여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면 汎民族大會 北側準備委員會가 主人이 되어 그들을 따듯이 맞이하고 안내할 것이며, 우리 當局은 그들의 身邊安全을 責任지고 保障할 것임. ○ 우리는 平壤에서 열리는 제 3차 豫備接觸에 참가하는 「全民聯」代表들을 위하여 8.6 아침 8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우리측 當局의 身邊安全擔保覺書를 귀측에 넘겨주게 될 것임을 통지하는 바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2 洪性澈 國土統 一院長官, 記者 會見</p>	<p>〈汎民族大會를 포함한 民族大交流에 관한 政府立場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 평양 3차 豫備會談은 「全民聯」 뿐만아니라 各界各層의 代表가 함께 참가하는 會談이 되어야 할 것임. ○ 民族大交流 期間中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身邊 安全保障과 無事歸還 保障을 북한측에 要請할 것이며, 北韓側 이 이를 수락하는 대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北韓訪問을 許容할 것임. ○ 政府는 8.13~8.17 사이의 民族大交流를 기필코 실천에 옮겨 나가겠다는 承정에서 이 기간동안에 北韓訪問을 희망하는 團體나 個人들로부터 8.4~8.8 사이에 訪北申請을 받기로 하였 음.
<p>1990. 8. 3 天主教正義具現 全國司祭團, 公 開書翰</p>	<p>〈司祭團 代表 訪北推進 意思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天主教 正義具現 全國司祭團은 8.15 統一念願 미사를 위한 神父들의 北韓 派遣을 추진코자 함.
<p>1990. 8. 3 民衆黨 創黨準 備委員會 共同 委員長, 記者會 見</p>	<p>〈民衆黨 代表 訪北意思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衆黨(가칭)은 30명의 訪北代表團을 民族大交流 期間인 8.13~8.17까지 북한에 보내 북한의 政黨·社會團體들과 統一 問題를 협의하겠음. ○ 民衆黨 북한방문 기간에 북한의 政黨·社會團體 관계자 및 政 府 當局者들과의 面談을 추진하여 南北平和統一問題를 협의하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2 林秀卿釋放鬪爭 朝鮮委員會 委 員長 려연구, 盧泰愚 大統領 앞 편지 (8.1 자) *방송공개</p>	<p>〈拘束者 慰問團 파견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15에 북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대표들이 판문점에 모여 통일을 위한 民族的 大祝祭를 거행하고 있는 때에 판문점을 넘어 돌아간 것이 죄로 되어 옥고를 겪고 있는 임수경학생을 찾아 따뜻한 문안을 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쌓아둔 회포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응당한 도리라고 생각함. ○ 우리위문단은 이 기회에 文奎鉉神父와 부모형제 그리고 文益 煥牧師와 가족들도 함께 위문하려고함. ○ 위문단은 林秀卿釋放鬪爭朝鮮委員會 委員長인 본인을 비롯하여 우리 단체의 성원들과 朝鮮學生委員會 成員들 그리고 임수경학생과 친숙하였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며 적당한 수의 取材記者團이 동행할 것임. ○ 방문기간은 8. 14부터 4박 5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4 姜英勳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는 한편 公業지역 및 농촌지역을 시찰, 北韓住民의 生活實態를 알아볼 계획임.</p> <p>〈汎民族大會에 各界各層 代表 참가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汎民族大會가 그 이름에 걸맞게 特定團體와 個人만이 아닌 各界各層의 民族 成員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大會로 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을 誹謗하거나 자극 하지말고 相互理解를 增進하여 南北關係 改善과 統一에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음. ○ 8.15 汎民族大會가 명실공히 民族和合 次元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참가를 희망하는 各界各層의 代表들이 광범위하게 參加하여 준비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임. ○ 귀측이 8.6 平壤 豫備會談 참가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團體代表들에 대해서만 身邊安全과 無事歸還을 保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 이 기회에 民族大交流期間中 北韓訪問을 희망하는 우리측 人員들에 대한 申請을 8.4부터 8일 까지 接受기로 하였음을 귀측에 알리면서 귀측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民族大交流 實現節次 協議를 위한 實務接觸에 귀측이 조속히 呼應해 나올 것을 기대하는 바임.
<p>1990. 8. 6 統一院 代辯人, 政府立場發表</p>	<p>〈拘束者 慰問團 방문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는 북한측이 「임수경釋放鬪爭朝鮮委員會」라는 任意단체를 내세워 國家元首에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고, 그것이 여의치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4 汎民族大會 北 側準備委員會 聲明</p>	<p>〈제 3차 豫備會談 南側代表 身邊安全保障 通報〉</p> <p>○ 제3차 豫備接觸 참가를 위해 平壤을 방문하게 될 南側의 豫備接觸 대표들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을 通過하는데는 아무런 절차도 필요없으며 어떤 條件도 필요없을 것임. 우리는 그들을 뜨거운 동포의 정으로 맞이할 것이며 그들의 身邊安全을 擔保할 것임.</p>
<p>1990. 8. 4 政務院總理 演 형목, 對南電通 文</p>	<p>〈南北 當局·政黨代表 實務接觸 호응촉구〉</p> <p>○ 귀측은 法務當局者 實務會談이나 軍事當局者 實務會談이나 하는 것들을 대치시켜 우리측이 제의한 7.27 「當局·政黨 首腦 協商會議」 소집을 위한 實務接觸에 나오지 않았으며 최근에 와서는 南北사이의 전면적인 來往은 고사하고 극히 부분적인 來往조차도 가로막아 나서고 있음.</p> <p>○ 南北 當局·政黨 首腦協商의 召集問題를 토의하기 위한 當局과 各政黨 代表들의 實務接觸이 열린다면 거기에서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協議할 수 있을 것임.</p> <p>○ 北南 當局·政黨代表 實務接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인정하면서 편리한 日字를 정할 것을 貴側에 일임하는 바임.</p>
<p>1990. 8. 6 林秀卿釋放鬭爭 朝鮮委員會 委</p>	<p>〈拘束者 慰問團 派遣通報〉</p> <p>○ 우리는 귀하가 7.20 특별발표에서 8.13~8.17 남조선을 일방적으로 開放하며, 이 기간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날 수</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않자 방송을 통해 이를 公開한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態度로서 遺憾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음.</p> <p>○ 이같은 北韓側의 비상식적인 態度와 缺禮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民族大交流기간중 우리측 지역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7. 20 特別發表」精神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환영하는 바임.</p> <p>○ 訪問期間 問題에 대해 북한측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제의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로서는 17일까지는 「民族大交流」期間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訪問日字는 13일에서 17일 사이로 하는 것이 適合하다고 생각함.</p> <p>○ 그러나 그들이 우리측 지역에 와서 實定法을 위반한 在所者를 面會하겠다는 것은 7. 20 特別發表의 基本精神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南北關係 改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함.</p> <p>○ 다만 그들이 우리측 지역을 訪問하여 在所者들의 家族이나 辯護人을 만나는 것은 無妨하다고 생각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貝長 려연구, 放送通知文</p>	<p>있게 하겠다고 한 조건에서 우리의 慰問團 파견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간주함.</p> <p>○ 나는 貴 當局이 우리 위문단 파견 提議를 더 이상 가로막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8. 14 우리 慰問團이 예정대로 남측 지역을 방문하기 위하여 오전 9시 板門店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임.</p>
<p>1990. 8. 6~ 7 汎 民 族 大 會 제 3 차 豫 備 會 談 合 意 書 (平壤 : 고려호텔) * 北 韓 · 海 外 代 表 2 者 會 談</p>	<p><8. 15 汎民族大會 細部計劃 發表></p> <p>○ 行事日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 1990. 8. 15 板門店 - 關聯行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개최 研究討論會(8. 14), 연환모임·「문화의 밤」(8. 16~8. 17) 행사에 南側代表 초청 • 남측개최 學術祭·文化祭(8. 13~8. 14)에 북측 및 해외 대표 파견 • 統一大行進(8. 13 백두산 출정식→8. 15 판문점출발→한라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0. 8. 8 姜英勳 國務總 理, 對北電通文	<p>〈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官 임명통보 및 通信·航空技術 實 務者接觸 제의〉</p> <p>○ 나는 南北高位級會談 우리측 代表團의 連絡業務를 金勇煥 책 임연락관이 수행하게 될 것임을 알리는 바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7 政務院總理 연 형묵, 對南電通 文</p>	<p style="text-align: center;">산)</p> <p>○ 참가규모 : 북·남·해외 각 지역별로 50~200명 정도</p> <p>* 其他事項은 6. 2~6. 3 개최 베를린 예비회담 채택 합의서와 同一</p> <p style="text-align: center;">〈拘束者 慰問團 身邊安全保障 要請〉</p> <p>○ 나는 귀하가 林秀卿釋放鬪爭朝鮮委員會 慰問團 일행의 남측지역 체류기간 그들의 身邊安全과 便宜保障에 대하여 아무 條件 없이 담보하리라고 믿으면서 공식절차대로 우리측 慰問團 一行에 대한 身邊安全擔保 措置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p>
<p>1990. 8. 7 政務院總理 연 형묵, 對南電通 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員 임명통보 및 通信·航空技術 實務者接觸 延期요청〉</p> <p>○ 나는 北南高位級會談 北側代表團 責任連絡員으로 최봉춘을 任命하였음을 알리는 바임.</p> <p>○ 제1차 北南高位級會談과 관련한 實務的 問題들은 責任連絡員 名單을 교환한 다음 그들이 필요한 實務者들을 同行하고 적절 한 날에 서로 만나 協議하면 될 것임.</p> <p>○ 우리는 雙方 責任連絡員을 비롯한 實務者들의 接觸을 다른 날 짜를 정하여 가질 것을 希望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9 徐基源 韓國放送公社社長, 公開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離散家族 찾기 南北共同放送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들이 放送을 통해 生死確認과 相逢 機會를 갖도록 할 것을 제의함. 그 方法으로 板門店에서 兩 放送社(한국방송공사·조선중앙방송)共同進行 또는 서울과 平壤에서 각각 衛星을 통한 交換放送을 하며 그 시기는 이번 8.15나 양측이 合意한 適當한 때에 실시할 것을 提議함. ○ 또한 兩 放送社가 각각 選定한 同數의 전문가들로 學術探査團을 구성, 南北韓의 동식물·대기·하천·지질 등 生態系의 主要분야를 탐사하고 이에 관한 방송프로제작을 위해 兩 放送社가 單一製作班을 만들 것을 제의함.
<p>1990. 8. 9 姜英勳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訪北申請者 명단전달 위한 연락관파견 再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下가 오늘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부당한 前提條件을 앞세워 訪北申請者 명단교환 자체마저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귀측의 自由往來와 開放 主張의 진실성에 대해 근본적인 疑問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분단 45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명분과 구실로도 더 이상 이들의 再會와 南北往來를 가로 막을 수 없으며 이들의 不幸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南北 쌍방당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임. ○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民族大交流 기간중 귀측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전체 名單을 귀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8.10 오후 3시, 판문점 中監委會議室에 연락관 2명을 내보낼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p>1990. 8. 9 政務院總理 演 형묵, 對南電通 文</p>	<p>〈訪北申請者 名單接受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그 무슨 名單交換에 대해 제의한 것은 汎民族大會의 개최를 반대하고 北南사이의 自由來往과 全面開放을 반대하는 자기의 진면모를 가리우고 輿論을 우롱하며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음. ○ 우리는 貴側이 이제라도 진실로 北南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하려는 입장에서 우리측 慰問團이 남조선에 나가 林秀卿학생과 文益煥목사, 文奎鉉신부를 직접 면회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민련」, 「전대협」 대표들이 汎民族大會에 參加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하며 北南사이의 來往을 가로막고 있는 國家保安法을 철폐한다면 貴下의 「訪問者名單 交換」提議를 즉시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바임.
<p>1990. 8. 9 祖國平和統一委 員會 委員長 허 담 談話</p>	<p>〈白基玩氏 平壤방문 歡迎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의 가칭 民衆黨 상임고문 白基玩 선생은 8.8 기자회견에서 金日成동지께서 지난해 新年辭에서 제시한 北南지도급인사들의 政治協商會議의 소집제안을 수락하고 당국의 民族交流 실시기간중에 평양을 방문할 意思를 밝혔다함. ○ 우리는 白基玩선생이 平壤을 방문한다면 그를 통일의 사절로 맞이하여 그와의 진지한 統一協商의 마당을 기꺼이 마련할 것이며, 평양방문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身邊安全을 보장할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10 國土統一院 代 辯人 論評</p>	<p>것임.</p> <p>〈訪北申請者 名單接受 拒否 유감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는 8. 13~8. 17 사이의 「民族大交流」를 기필코 實踐에 옮겨 나가겠다는 충정에서 지난 8. 4~8. 8까지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부터 訪北 申請을 받아왔음. ○ 그결과 전국에서 61,355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民族大交流 기간중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함으로써 離散家族들의 철육상봉과 南北往來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보여 주었음. ○ 정부는 이 소중한 방북희망자들의 명단을 8. 9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板門店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하기 위해 북한측 연청목總理 앞으로 電話通知文을 보낸 바 있음.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우리측이 이같은 提議와 努力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訪北申請者는 물론 온 겨레에게 커다란 失望을 안겨주고 말았음. ○ 우리의 民族大交流 제의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秋夕, 설날등 민족명절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이며,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열매를 맺음으로써 머지않아 南北韓同胞 누구나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함.
<p>1990. 8. 10 國土統一院 代 辯人 聲明</p>	<p>〈名單 교환 위한 쌍방 當局間 連絡官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우리 정부가 8. 13~8. 17 기간중에 남북지역을 往來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남북 當局이 편의제공과 신변안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10 祖國平和統一委員會書記局長 안병수, 對南電 通文</p>	<p>〈慰問團 在所者 面談 및 國家保安法 撤廢主張〉</p> <p>○ 우리는 이제라도 귀측이 진실로 래왕을 바라고 통일할 意思가 있다면 우리측 위문단이 예정대로 南側地域을 방문하고 林秀卿학생·文益煥목사·文奎鉉신부를 면회할 수 있게 하고 「전민련」·「전대협」대표들이 「8·15汎民族大會」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하며, 북남래왕과 교류의 차단물인 國家保安法을 철폐하는 것으로써 진짜 來往과 交流를 하려는 眞實성을 표시한다면 귀측의 제의를 즉시 고려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하는 바임.</p>
<p>1990. 8. 10 汎民族大會 北側準備委員會委員長 윤기복, 放送通知文</p>	<p>〈汎民族大會 행사관련 實務者接觸 제의〉</p> <p>○ 나는 제3차 豫備接觸 최종합의에 따라 평양과 서울에서 진행하게 되는 學術討論會, 文化行事와 그리고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라大行進을 남측지역에서 할 때 예견되는 행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8.11 오후 3시, 판문점 中監委會議室에서 양측 實務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p> <p>○ 나는 약속된 시간에 북측준비위원회 信任狀을 가진 2명의 실무자들을 板門店에 내보낼 것임.</p>
<p>1990. 8. 10 朝鮮學生委員會委員長 최현덕 談話</p>	<p>〈서총련소속 대학생 訪北협의 위한 實務接觸 제의〉</p> <p>○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大學生들이 지난 8일 8.15를 계기로 2천명의 대학생들이 平壤을 방문하여 우리와 통일염원</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이를 허용토록 한다는 民族大交流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북한측이 이들 團體들과 별도의 實務接觸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p> <p>○ 우리측이 접수한 訪北申請者 명단에는 「전민련」,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소속된 인원들과 「서총련」에 소속된 學生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는 바임.</p> <p>○ 우리는 民族大交流 선언 및 그 관련 後續措置들을 통해 이미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측 인원들에 대해 便宜提供과 身邊安全保障을 약속한 바 있고, 또 북측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申請을 받아놓고 있는 만큼 언제라도 名單交換과 신변안전보장 覺書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음.</p> <p>○ 우리는 북측이 選別的으로나마 民族大交流 기간중 우리측 인원들의 訪北을 수락한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북측인원들과의 名單을 교환하고 그들의 신변 안전보장 覺書를 교환하기 위해 쌍방 당국간에 連絡官 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p> <p>○ 連絡官 接觸은 8.11 오전 11시, 판문점 中監委會議室에서 갖는 것이 좋을 것임. 우리는 2명의 連絡官을 내보낼 것이며 북측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10</p> <p>朝鮮天主教人協會 中央委員會 委員長 姜재철 談話</p>	<p>大同祭를 가지기 위해 당국에 訪北申請을 냈다고 함.</p> <p>○ 우리는 「서총련」學友들의 방북 실현과 관련한 실무적 토의를 위하여 8. 11 오전 9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각기 3명의 代表들이 참가하는 實務接觸을 가질 것을 희망함.</p> <p>〈天主教 正義具現司祭團 代表 訪北협의 위한 실무접촉 提議〉</p> <p>○ 우리는 天主教 正義具現全國司祭團이 방북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 그들이 北半部를 방문하게 된다면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제반문제들을 接觸形式이나 節次에 구애됨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論議할 계획임.</p> <p>○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마주앉아 콩크리트장벽을 허물고, 國家 保安法을 철폐하며, 남조선에서 美軍을 철거시키고 자주적 平和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共同鬪爭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함.</p> <p>○ 朝鮮天主教人協會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天主教 正義具現全國司祭團대표들의 訪北實現과 평양방문 기간에 진행할 合同行事들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위해 8. 11 오전 11시에 3명의 대표들을 각각 판문점 中監委會議室에 내보내어 접촉을 가지자는 것을 제의함.</p>
<p>1990. 8. 11</p> <p>祖國平和統一委員會 代辯人 聲明</p>	<p>〈當局間 連絡官接觸 條件附 호응표명〉</p> <p>○ 統一院 代辯人이 8. 10 우리측 汎民族大會 準備委員會와 조선 학생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가 남조선 해당단체들에서 제기 하여온 交流와 來往問題를 협의하기 위하여 實務接觸을 가질 것을 제기한데 대하여 승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當局間에 그</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12 洪性澈 國土統 一院長官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特定團體 소속 訪北申請者 명단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이 民族大交流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政府는 어떻게 해서든 7. 20 特別發表의 정신을 살려 온 거래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비록 제한된 인원이라는 하지만 南北往來를 실현시키고자 함. ○ 政府는 현재 북한측이 선별적으로 招請意思를 밝혀 놓고있는 天主教 正義具現司祭團과 「전민련」등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 중 이미 訪北申請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8. 13~8. 17사이의 民族大交流 기간중 북한지역 방문을 실현시키고자 함. ○ 이에따라 나는 이들의 名單과 방북신청을 한 取材記者 전원의 名單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북한측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覺書를 접수하기 위해 쌍방 當局間에 連絡官接觸을 가질 것을 북한측에 提議함. ○ 우리는 동 連絡官接觸을 8. 13 오후 3시, 판문점 中監委會議室에서 갖기를 희망하며 2명의 連絡官을 내보내고자 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무슨 접촉을 가지자고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우리는 이에 깊은 遺憾을 표시함.</p> <p>○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남측지역을 방문하려는 우리측 慰問團을 받아들일 의사를 명백히 하고 북측지역을 방문하려는 남측 民間團體들의 자주적인 활동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다면 이들의 來往에 필요한 身邊安全擔保覺書를 교환하기 위해서 當局實務者 接觸에 나갈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13 姜英勳 國務總 理, 對北電通文</p>	<p>〈訪北申請者 명단전달 및 身邊安全保障覺書 접수 위한 連絡官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그간 귀측이 선별적으로 招請意思를 밝혀놓고 있는 天主教 正義具現司祭團과 「전민련」등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 중 8.13~8.17 사이의 民族大交流 기간에 귀측지역 방문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訪北을 실현시키고자 함. ○ 이에 따라 우리측은 이들의 명단과 訪北申請을 한 取材記者 전원의 명단을 귀측에 전달하고 귀측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 변안전보장 覺書를 접수하기 위해 쌍방 당국간에 連絡官接觸을 가질것을 제의하였음. ○ 우리는 동 연락관接觸을 8.13 오후 3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갖기를 희망하며 2명의 連絡官을 내보낼 것임. ○ 귀측은 이에 상응한 措置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우리측 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귀측 人員들의 명단을 함께 전달해주기 바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13 祖國平和統一委員會 書記局長 안병수 談話</p>	<p>〈當局 連絡官接觸 제의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民間團體 인사들의 방북과 관련하여 명단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원 접촉을 제기한 것은 그들이 민간단체들의 接觸과 交流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혼들어 보겠다는 것임. ○ 남조선당국은 民間團體들의 접촉과 來往에 까지 끼어들어서 남의 일을 대신하려 할 것이 아니라 當事者들 스스로가 만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고 신변안전문제나 관심을 돌리면 될 것임. ○ 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交流를 실현할 의사가 있다면 民衆黨 · 「서총련」 · 「전민련」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등 4개 단체 대표들의 訪北을 보장하는 동시에 白基玩선생의 평양방문과 남측추진본부 대표들의 汎民族大會 참가를 허락하는 公式立場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p>1990. 8. 13 汎民族大會 北側準備委員會 代辯人 談話</p>	<p>〈全民聯代表 訪北問題 協議 위한 實務者 파견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남측추진본부 代表들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구태여 남조선당국으로부터 그들의 名單을 넘겨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當事者들끼리 직접 만나서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면 모든 것이 더 명백하고 더 잘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함. ○ 우리는 「전민련」을 비롯한 남측추진본부 代表들의 방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8.14 오후 2시, 板門店 中감위원회실에 3명의 實務者를 파견할 것임. ○ 우리는 남측추진본부 代表들이 이 시간에 板門店에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시함.

1990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1990. 8. 13 朝鮮社會民主黨 代辯人 談話	<p>〈民衆黨 代表와의 實務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民衆黨 상임고문인 白基玩선생과 민중당 대표들의 평양방문과 관련한 實務問題를 협의하기 위하여 8.14 오후 4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민중당 대표들과 實務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 ○ 북반부의 政黨들은 民衆黨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共和國 당국과 협의하여 身邊安全을 보장할 것이며 통일의 使節로서 맞이할 것임.
1990. 8. 13 朝鮮學生委員會 代辯人 談話	<p>〈서총련 代表와의 實務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서총련」學友들과 만나 訪北問題와 관련한 실무절차를 시급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8.14 오전 9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서총련」대표들과 만나기 위하여 2명의 대표를 내보낼 것임. ○ 우리 當局에서는 「서총련」學友들이 평양에 들어오면 편의와 신변안전을 적극 保障할 것이라고 하면서 8.14 오후 6시 「서총련」을 비롯한 訪北團體 인사들의 신변안전담보覺書를 남조선당국에 넘겨 주기로 하였음.
1990. 8. 13 朝鮮天主教人協會 中央委員會 代辯人 談話	<p>〈天主教 正義具現司祭團 代表와의 實務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8.14 오전 11시, 天主教 正義具現全國司祭團측 대표들과 만나 그들의 訪北에서 나서는 實務問題를 협의하기 위하여 2명의 대표를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내보내기로 하였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14 國土統一院 代 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各團體別 實務接觸 主張 反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民族大交流 기간중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申請者명단 중에서 북한측이 초청한 民衆黨 30명, 天主教 正義具現司祭團 33명, 「전민련」관련자 176명 등과 이들을 동행 취재할 記者들의 명단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제 오후 板門店에 나갔으나 북한측의 連絡官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음. ○ 북한측은 우리측 國務總理가 보낸 電話通知文(8.13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각 단체별 談話를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當局間의 명단교환은 필요없고 해당되는 단체들간에 板門店에서 實務接觸이나 갖자고 주장했음. ○ 南北往來와 교류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있는 쌍방 當局間에 그 간 신변안전보장문제 등을 협의해 온 것이 관례이며, 南北關係의 현실로 보아서도 그것은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응당한 절차문제임. ○ 도대체 當局間의 명단교환조차 거부하는 북한측이 누구를 오라는 것이며, 누가 누구의 身邊安全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 우리는 북한측이 南北往來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實務接觸이라는 것을 내걸어 우리측 인사들의 그 어떤 訪北도 가로막아보겠다는 意圖를 노골화 함으로써 끝내 「民族大交流」를 무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13 軍事停戰委員會 朝·中側 首席 委員 회의용 談 話</p>	<p>〈汎民族大會 參加人員 판문점 북측지역 出入不許〉</p> <p>○ 우리는 汎民族大會의 성공적 개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인원들의 우리측 지역에 대한 出入을 통제하며 그러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安全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임.</p>
<p>1990. 8. 14 汎民族大會 北 側準備委員會· 朝鮮社會民主黨 ·朝鮮學生委員 會·朝鮮天主教 人協會 實務接 觸代表, 聯合聲 明</p>	<p>〈각 團體別 실무접촉 流産책임 轉嫁〉</p> <p>○ 남조선당국은 民間團體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不許하는 것이 政府의 방침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는 한편 이번 民間級交流가 실현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책동하고 있음.</p> <p>○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남조선사람들의 訪北을 실현시킬 意思가 있다면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투옥한 訪北人士들을 석방하고 國家保安法을 철폐해야 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15 盧泰愚 大統領, 제45주년 光復 節 慶祝辭</p>	<p>산시키려는 企圖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함.</p> <p>〈南北韓 軍備統制 協議 用意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지난 7.20 이번 광복절을 기해 남북이 休戰線을 열고 「民族大交流」를 실시하자고 했음. 그러나 북한 당국이 당치도 않은 理由와 條件을 붙여 남북동포간의 往來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임. ○ 오는 추석이든, 年末年始든 북한이 응하는 어느때에도 남북의 동포들이 제한없이 원하는 地域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태세를 갖출 것임. ○ 남북간의 軍事對決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相互信賴에 바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우리는 政治·軍事問題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제한없이 북한과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 ○ 나는 남북간의 武力使用 포기선언과 不可侵協定의 체결, 현재의 휴전협정을 平和協定으로 바꾸는 문제와 서울과 평양에 상호 常駐代表部를 설치하는 문제 등 모든 문제에 관해 남북의 책임있는 當局者들이 논의할 때가 왔다고 확신함. ○ 우리는 民族和合의 시대를 열기 위해 軍備統제도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19 汎民族大會 共 同運營委員會, 記者會見</p>	<p>〈祖國統一 汎民族聯合 結成 발표〉 ○ 共同議長團(14명) - 北側 : 허담, 윤기복, 장철, 려연구</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20 政府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代表團 名單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首席代表：姜英勳(國務總理) ○ 代 表：洪性澈(國土統一院長官) 代 表：鄭鎬根(合參議長) 代 表：李鎮禹(經濟企劃院 次官) 代 表：金宗輝(青瓦臺 外交安保補佐官) 代 表：李秉龍(國務總理 特別補佐官) 代 表：林東源(外交安保研究院長)
<p>1990. 8. 23 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官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style="text-align: center;">〈本會談 實務節次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往來手段：북측이 일기관계로 航空便이 아닌 陸路利用을 제의, 우리측이 이에 同意 ○ 通信手段：南北赤十字會談用 直通電話 18回線 利用 合意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8. 23</p> <p>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官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 : 4명 (未定) - 海外 : 정규명, 광동의, 김성, 이철재, 서만술, 이행우 ○ 事務局 本部 : 베를린(사무총장 : 구주지역대표 임민식) - 북미주, 구주, 일본, 소련, 중국, 조총련 등 해외 6개 지역에 「지역사무국」설치 ○ 代辯人 : 황석영 <p style="text-align: center;">〈本會談 實務節次 협의〉</p> <p>※ 左 同</p>
<p>1990. 8. 30</p> <p>로동신문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代表團 名單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長 : 연형묵 (政務院 總理) ○ 代表 : 김광진 (조선인민군 大將)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3 汎民族大會 推 進本部 公開書 翰</p>	<p style="text-align: center;">〈北京아시안게임에 南北共同應援團 파견提議〉</p> <p>○ 민족의 和解와 團합의 길을 열어가는 노력의 하나로 아시안게 임에서 汎民族大會 대표단을 중심으로 한 共同應援團을 구성 하고 북측과 海外同胞의 경우도 이에 상응하여 응원단을 파견 할 것을 제안함.</p>
<p>1990. 9. 4~7 제 1 차 南北高 位級會談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다음과 같은 基本合意書 및 方案 提示</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關係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일이전까지 상대방의 體制 인정·존중 ② 相互 비방·중상중지 및 상대방 內政에 대한 不干涉 ③ 상호 의견대립과 紛爭은 당국간 對話와 協商을 통해 평화적으 로 해결 ④ 相對方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중지 ⑤ 自由往來와 다각적인 交流·協力을 실현하고 사회개방과 민족 적 유대를 회복 ⑥ 軍事的 신뢰구축과 軍備減縮 실현 ⑦ 國際舞臺에서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利益과 自尊을 위해 공동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4~7 제 1 차 南北高 位級會談 (서울)</p>	<p>代表 :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書記局長) 代表 : 백남준 (정무원 참사실 室長) 代表 : 김정우 (대의경제사업부 副部長) 代表 : 최우진 (외교부 巡廻大使) 代表 : 김영철 (조선인민군 少將)</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칙 및 방안 제시 [會談 전과정에서 遵守해야 할 3개原則]</p> <p>① 7. 4 南北共同聲明에서 천명된 自主 · 平和統一 · 民族大團結의 3대원칙 재확인 및 준수 ② 一方의 이익보다 民族共同의 이익을 준수 ③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會談의 進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함.</p> <p>[政治的 대결상태 해소 방안]</p> <p>① 상호 비방 및 對決鼓吹 정치행사의 중지 ② 統一에 방해되는 法律的 · 制度的 장치 제거</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style="text-align: center;">으로 노력</p> <p>⑧ 現 휴전체제의 平和體制로 전환</p> <p style="text-align: center;">[다각적인 交流·協力實施 方案]</p> <p>① 離散家族의 자유방문과 再結合을 조속히 실현하고 60세이상 이산가족의 故鄉訪問 즉각 실현</p> <p>② 民族名節과 기념일 전후 民族大交流 실현 및 文化行事 교환 개최</p> <p>③ 各 分野別 남북동포간의 交流·協力 방안 협의·실현</p> <p>④ 交易門戶 개방 및 물자교류</p> <p>⑤ 資源 공동개발 및 合作투자, 經濟分野에서의 공동 대외진출 및 對外協力事業 추진</p> <p>⑥ 觀光資源 공동개발 및 관광사업 共同推進</p> <p>⑦ 남북간 鐵道·道路 복원 및 海路·空路 開設</p> <p>⑧ 郵便物 교환 및 통신·전화 개통</p> <p>⑨ 通行·通信·通商에 관한 합의서 채택</p> <p>⑩ 부총리급 經濟協力共同機構 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政治·軍事的 신뢰구축 方案]</p> <p>① 상호 체제인정 및 존중의 바탕위에서 상대방 指名攻擊, 비방·중상 등의 중지</p> <p>② 新聞·放送 및 출판물 상호 개방</p> <p>③ 서울·평양에 常駐連絡代表部 설치</p> <p>④ 軍人士 상호 방문 및 교류실시</p> <p>⑤ 軍事情報 상호 공개 및 교환</p> <p>⑥ 軍部隊 이동 및 機動訓練의 사전통보와 상대방 招請 참관</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③ 상대방을 소개하는 출판·思想의 자유 보장</p> <p>④ 南北을 갈라놓고 있는 물리적 障壁 제거</p> <p>⑤ 각 政黨·團體 및 각계각층 사람들의 자유래왕·접촉</p> <p>⑥ 국제정치무대에서 남북 共同進出·協力</p> <p>[軍事的 대결상태 해소방안]</p> <p>(1) 南北信賴造成</p> <p>① 軍事訓練과 연습의 制限</p> <p>② 非武裝地帶의 평화지대화</p> <p>③ 우발적 衝突 방지 위한 安全措置 강구</p> <p>(2) 南北 武力減縮</p> <p>④ 武力의 단계적 감축</p> <p>⑤ 군사장비 質的更新 중지</p> <p>⑥ 군축정형의 상호통보 및 檢證실시</p> <p>(3) 外國武力의 철수</p> <p>⑦ 조선반도의 非核地帶化</p> <p>⑧ 조선반도에서 外國軍撤收 공동노력</p> <p>(4) 軍縮과 그 이후의 平和保障</p> <p>⑨ 軍縮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조치 강구(쌍방 軍總參謀長級을 책임자로 하는 「南北軍事共同委員會」구성)</p> <p>○ 유엔가입, 구속자 석방,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를 緊急問題로 제기</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12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⑦ 한국의 國防部長官과 북한의 人民武力部長官間的 직통전화 설치 · 운영</p> <p>⑧ 非武裝地帶의 비무장화 실현 및 平和的 이용</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간의 軍備減縮 推進方向]</p> <p>① 공격형 戰力構造를 방어형 전력구조로 轉換</p> <p>② 상호 同數保有原則을 적용, 군사력 상호 均衡維持의 바탕위에 서 同數 均衡감축</p> <p>③ 상비전력 減縮에 상응하여 예비전력과 類似軍組織 함께 감축</p> <p>④ 合意事項의 이행보장을 위한 現場檢證과 監視 실시</p> <p>⑤ 쌍방 軍事力의 최종 유지수준은 統一國家의 군사력 소요를 감 안, 쌍방 協의하에 決定</p> <p style="text-align: center;">〈人道的 문제 이외의 書信, 당국간 교환 主張〉</p> <p>○ 우리 정부당국은 南北高位級會談이 열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귀측이 요청하고 있는 便紙傳達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불필요한 副作用만을 초 래하게 될 것이라는 憂慮를 표명하고 있음.</p> <p>○ 또한 나는 남북간에 政治的 論爭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電 話通知文이나 書信傳達은 하지 않도록 하자는 본인의 지난해</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11 汎民族大會 北 側準備委員會 委員長 윤기복,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對南書翰 전달예정 通報〉</p> <p>○ 나는 貴 推進本部(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앞으로 보내는 便紙를 傳達하기 위하여 9. 12 오후 3시,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에 2명의 連絡員을 파견할 것임.</p>
<p>1990. 9. 12 汎民族大會 北 側準備委員會 委員長 윤기복, 放送通知文</p>	<p style="text-align: center;">〈북경아시아경기대회 共同應援團 構成 동의표명〉</p> <p>○ 貴 推進本部가 오는 9. 22부터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 때에 북과 남의 인민들이 共同應援團 을 구성하여 應援을 같이할대 대한 새로운 발기를 한 것은 참으로 歡迎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함.</p> <p>○ 우리는 귀 추진본부의 提議에 贊同을 표시하면서 제11차 아시 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북남 선수들을 공동으로 應援하는 문</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13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4. 24자 電話通知文을 상기시키면서, 南北高位級會談이 進行되 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문제 이외의 서신은 책임있 는 當局間에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p> <p><제8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당국으로부터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쌍방당국이 각기 해당 적십자사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권고하 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 ○ 또한 제 1 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우리측이 제11차 남북적십자 本會談이 늦어도 금년 10월 하순에 열리기를 기대하고 60세 이상 이산가족들의 故鄉訪問과 제2차 故鄉訪問團 交換이 조속 히 실현되기를 희망한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함. ○ 제11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을 오는 10월 하순에 평양에서 개 최하는 문제와 제2차 故鄉訪問團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8차 남북적십자 實務代表接觸을 오는 9. 19 오전 10시, 판 문점「평화의 집」에서 갖기를 提議함. <p>* 북측은 9. 17 對南電通文을 통해 추후 적당한 시기에 통보 하겠다고 회답</p>
<p>1990. 9. 14 姜英勳 國務總 理, 對北電通文</p>	<p><유엔문제 협의 위한 南北代表接觸 受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열렸던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귀측의 단일의석하의 유엔공동가입주장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우리측 대표 1명과 수행원 2명이 9. 18 오전 10시, 板門 店 中監委會議室에 나갈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13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 文</p>	<p>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오는 15일 오전 10시, 板門店 中監委會 議室에서 汎民族大會 북측 준비위원회와 남측추진본부에서 각 기 선발한 3명의 대표들로 實務接觸을 가질 것을 提議하는 바임.</p> <p>〈水害관련 慰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최근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서울과 경기도, 南江原道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지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水災民들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음. ○ 나는 동포애와 人道主義 정신으로부터 큰물 피해를 입은 모든 수재민들에게 따뜻한 慰問을 보내며 아울러 하루빨리 큰물 피 해가 가셔지고 水災民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
<p>1990. 9. 14 政務院總理 연 형묵, 對南電通 文</p>	<p>〈유엔문제 協議 위한 實務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제1차 北南高位級會談에서 쌍방이 합의한데 따라 유엔에 하나의 議席으로 가입하는 문제를 協議하기 위한 北南代表 接 觸을 9. 18 오전 10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가지기를 희 망함.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18 유엔加入問題 관련 제1차 南 北韓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側의 단일의석하 유엔가입方案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非現實의이며 非合理的인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측 立場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설명
<p>1990. 9. 19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제8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거듭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혈육상봉을 갈망하는 1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하루속히 풀어주고 南北赤十字會談의再開를 권고키로 한 쌍방 政府當局間의 합의를 존중하는 立場에서 중단된 제8차 남북적십자 實務代表接觸을 9. 19에 가질 것을 提議하였음. ○ 그러나 귀측은 이와같은 우리측 제의에 대해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回答을 보내겠다고 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음. ○ 나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赤十字 本會談과 제2차 故鄉訪問團 교환사업이 더이상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되며 하루라도 빨리 성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임. ○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제8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오는 9. 24 오전 10시,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다시 提議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18 유엔加入問題 관련 제1차 南 北韓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이 接觸에 우리측에서는 대표 1명과 수원 2명이 나갈 것임.</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하나의 조선정책」을 앞세운 單一議席下의 유엔가입방안을 주장</p>
<p>1990. 9. 19 汎民族統一音樂 會 北側準備委 員長·朝鮮音樂 家同盟 委員長 김원균, 對南書 翰 * 9. 18자</p>	<p>〈韓國 文化藝術人17명 訪北 초청〉</p> <p>○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하여 10. 18부터 尹伊桑선생의 발기에 따라 汎民族統一音樂會가 성대히 막을 올리게 됨.</p> <p>○ 汎民族統一音樂會 북측준비위원회는 남조선 文化藝術界의 인사들을 평양에서 열리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다음과 같이 招請하는 바임.</p> <p>황병기(이화여대 음대교수), 오정숙(국립창극단 지도위원), 정화영(국립창극단 단원), 김정수(추계예술학교국악과 조교수), 홍종진(이화여대 음대 부교수), 김덕순(전국 시우단체 총연합회 회장), 오복녀(중앙대 음대강사), 김광숙(국립국악원 연주단원), 윤인숙(단국대 음대교수) 김덕수(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회장), 이광수(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운영위원), 강민석(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운영위원), 김운태(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회원), 노동은 (목원대 음대교수), 임연철(동아일보 편집국 문화부차장), 안정숙(한겨레신문사 기</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19 延世大·高麗大 總學生會, 記者 會見</p>	<p>〈延·高大 民族解放祭에 在北 延·高大同門 및 김일성대학 학생 초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고 민족해방제」(1990. 10. 10~10. 14) 개최기간동안 재북 연·고대 출신동문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초청 함. ○ 이와 관련 實務協議를 위해 1990. 9. 25 오전 10시, 판문점에 서 제1차 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조선학생위원회에 提議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21 南北高位級會談 北側代辯人 聲 明</p>	<p>자), 김경희 (기자)</p> <p>○ 우리는 汎民族統一音樂會에 참가할 남측 文藝人들과 기자들이 板門店을 통하여 平壤으로 오는 것이 편리하리라고 생각하면서 滯留기간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아울러 공화국 해당기관이 그들의 身邊安全을 전적으로 擔保하고 무사히 돌아가도록 할 것임을 알리는 바임.</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의 유엔單獨加入 노력에 대한 遺憾表明〉</p> <p>○ 지금 북과 남 사이에는 高位級會議이 열리고 판문점에서는 고 위급회담의 合意에 따라 유엔에 하나의 議席으로 가입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北南代表接觸이 進行되고 있음.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 當局者들이 대화의 막 뒤에서 유엔단독가입을 실현해보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統一對話에 관심이 없고 오직 두개조선 조작을 위한 유엔 單獨加入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p> <p>○ 우리는 남조선 當局者들의 이러한 처사가 대화 相對方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모처럼 마련된 北南高位級會談과 北南代表接</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24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朝鮮學生委 便紙접수 위한 赤十字連絡官 板門店 파견통보〉</p> <p>○ 나는 當局의 요청에 따라 귀측의 便紙를 接受하기 위하여 9. 24 오후 3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2명의 우리측 赤十字 連絡官을 내 보낼 것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24 朝鮮學生委員會 委員長 최현덕, 對南電通文</p>	<p>觸에 찬물을 끼얹는 그릇된 행동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깊은 우려와 遺憾을 표시함.</p> <p>〈朝鮮學生委員會 대표 板門店 派遣통보〉</p> <p>○ 나는 조선학생위원회가 延世大學校 총학생회와 高麗大學校 총학생회 앞으로 보내는 便紙를 傳達하기 위해 9. 24 오후 3시, 조선학생위원회 대표 2명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내보낼 것임.</p>
<p>1990. 9. 24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 文</p>	<p>〈남측 赤十字連絡官에게 朝鮮學生委員會의 편지 전달거부〉</p> <p>○ 조선학생위원회에 알아본데 의하면 자기들이 延世大와 高麗大 총학생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가기 위하여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 대표가 아닌 귀측 赤十字 連絡官이 나온다면 편지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함.</p> <p>○ 그러므로 부득이 다른 經路를 통하여 편지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봄.</p>
<p>1990. 9. 24 朝鮮學生委員會 對南公開書翰</p>	<p>〈延·高大 在北同門 및 김일성대학생 招請 환영〉</p> <p>○ 연세대 및 고려대 총학생회가 10. 10~10. 13 사이에 「延·高大民族解放祭」기간에 북반부에 있는 延·高出身 先輩들과 김일성종합대학 學友들을 초청한대 대해 흔쾌히 同意함.</p> <p>○ 朝鮮學生委員會는 延·高출신 선배 대표단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북반부 학생 代表들을 서울에 파견할 것이며, 「延·高 民族解放祭」기간에 통일문제 토론회와 친선축구 경기에도 參加하게 할 것임.</p> <p>○ 조선학생위원회는 實務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실무대표회담</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0. 5 유엔加入問題 관련 제2차 南 北韓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1차 접촉시 北側이 제시한 금년중 單一議席下 유엔 加入案의 비현실성 지적</p> <p>— 단일의석하 유엔가입은 유엔憲章 제 4 조의 加入要件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남북이 유엔에 함께 加入할 것을 촉구</p>
<p>1990. 10. 5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統一音樂會 관련 連絡官接觸 제의〉</p> <p>○ 10. 18 平壤에서 개최되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하는 우리측 音樂人 및 隨行記者 17명의 요청에 의하여 이들의 貴側지역 방문기간 중 身邊安全 및 無事歸還問題를 포함한 판문점 通過節次와 滯留日程 등을 協議하기 위하여 10. 8 오후 3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쌍방 連絡官接觸을 가질 것을 提議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9. 26 朝鮮學生委員會 代辯人 聲明</p>	<p>을 하자는 貴 團體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5명으로 구성된 우리측 實務會談 代表團을 9. 25 오전 11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파견할 것임.</p> <p>〈9. 25 南北學生 實務代表會談 霧散關聯 遺憾表明〉</p> <p>○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북남학생 實務代表會談과 관련한 편지전달을 방해하고 남조선 學生代表들이 판문점에 나오는 것 조차 차단한 것은 北南高位級會談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北南關係를 惡化시키는 처사로서 우리는 이에 遺憾을 표시함.</p>
<p>1990. 10. 5 유엔加入問題 관련 제2차 南 北韓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單一議席에 의한 유엔加入案 주장 고집</p> <p>— 남측의 유엔同時加入 또는 單獨加入 主張은 「두개의 조선 정책」, 「분열정책」 추구 증거</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0. 5 鄭東星 體育部 長官, 對北電通 文</p>	<p>〈南北統一蹴球大會관련 連絡官接觸 제의〉</p> <p>○ 1990. 10. 11 평양에서 개최되는 「南北統一蹴球大會」에 참가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체류일정을 포함한 諸般 實務問題 등을 協議하기 위하여 10. 8 오전 10시,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쌍방 連絡官接觸을 가질 것을 提議함.</p>
<p>1990. 10. 11 慶熙大·韓國外 國語大·漢陽大 학생회, 記者會 見</p>	<p>〈統一學術祭에 北韓大學生 초청〉</p> <p>○ 10월말에 열리는 「統一學術祭」에 金策工大 등 북한 대학생들을 초청하며, 실무문제 협의를 위한 實務會談을 10. 18 오후 2시, 板門店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0. 6 北韓國家體育委員會 委員長 金 允 勳, 對南電通文</p>	<p>〈南北統一蹴球大會 관련 連絡官接觸 동의〉</p> <p>○ 나는 10. 8 오전 10시, 북남통일축구경기와 相關한 實務問題를 협의하기 위해 우리측 連絡원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내보낼 것임.</p>
<p>1990. 10. 6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文</p>	<p>〈汎民族統一音樂會 관련 連絡官接觸 동의〉</p> <p>○ 나는 10. 18부터 平壤에서 열리는 汎民族統一音樂會에 남측 음악가들이 참가하는 것과 相關한 實務的 問題들을 협의하기 위해 10. 8 오후 3시, 우리측 連絡원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내보낼 것임.</p>
<p>1990. 10. 16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p>	<p>〈南北赤十字 제 8차 實務代表接觸 同意〉</p> <p>○ 지난해 쌍방은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가지고 제 2차 藝術團</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0. 16~19 제 2 차 南北高 位級會談 (平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 修正案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차 會談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 8개항의 근본취지를 再闡明하고, 북한측이 제기한 3개항의 會談原則을 우리측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前文에 수용·제시 ○ 「3通」協定方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通行에 관한 방안(10개항) - 南北通信에 관한 방안(9개항) - 南北經濟交流協力에 관한 방안(13개항) ○ 회담진전을 위해 2개分科委 설치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협의회 - 정치군사협의회 ○ 3개항의 當面解決課題 제시 및 北韓側의 태도 전환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北韓側이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對南革命路線을 포기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p>성호, 對南電通 文</p>	<p>및 故鄉訪問團을 교환하며 赤十字本會談을 재개하는데 기본적인 意見接近을 본 바 있음.</p> <p>○ 그러나 貴側이 아무런 문제로도 될 수 없는 우리측의 藝術公演內容을 가지고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근 1년 동안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은 중단되고 따라서 제 2차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교환사업도 실현되지 못하고 赤十字本會談은 재개의 길이 막혀져 있음.</p> <p>○ 우리는 최근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재개하려는 귀측의 태도에 유의하면서 중단상태에 있는 北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11. 15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再開할 것을 提議하는 바임.</p>
<p>1990. 10. 16~19 제 2 차 南北高 位級會談 (平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南北不可侵에 관한 宣言(草案)제시</p> <p>— 제 1 차會談에서 제기된 쌍방간의 기본적인 차이점 극복을 위한 見解를 밝히고, 「北南不可侵에 관한 宣言」을 채택·발표할 것을 提議</p> <p>[北南不可侵에 관한 宣言(草案)]</p> <p>7. 4共同聲明의 3원칙을 재확인·준수하고 상대방의 思想·制度를 인정·존중하며 상대방 內部問題에 不干涉할 것을 確약</p> <p>제 1 조 : 상대방에 대한 武力不使用 및 武力不侵害</p> <p>제 2 조 : 意見相異와 분쟁문제들을 對話와 協商을 통한 平和的 解決</p> <p>제 3 조 : 불가침의 境界線은 1953. 7. 27부 停戰協定에 규정된 軍事分界線으로 설정</p> <p>제 4 조 : 불가침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軍備競爭中止 및 武力의 단계적 減縮</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분단으로 惹起된 민족적 고통을 하루속히 덜어주기 위해서 북한측은 離散家族들의 故鄉訪問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협력</p> <p>－ 남북 同胞들이 다같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이 有無相通과 相互補完의 원칙에 따라 經濟交流과 協力を 활성화 하는데 적극 호응</p> <p>○ 「남북간의 和解와 協力を 위한 共同宣言」 채택 제의</p> <p>－ 북한측이 不可侵宣言(초안)을 제시해온 바, 이를 대폭 수용 하여 「남북간의 和解와 協力を 위한 共同宣言」을 채택할 것을 제의</p> <p>[南北間의 和解와 協力を 위한 共同宣言(案)]</p> <p>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改善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事項에 합의함.</p> <p>① 7. 4 共同聲明의 3원칙 재확인, 상대방 體制 認定·尊重, 內政不干涉</p> <p>② 經濟交流·協力 촉진과 人的交流·協力 실시</p> <p>③ 武力不使用 및 破壞·顛覆行爲 금지</p> <p>④ 紛爭의 평화적 해결</p> <p>⑤ 군사적 信賴構築과 軍備減縮 실현</p> <p>⑥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운영</p> <p>⑦ 誹謗·中傷 中止</p> <p>⑧ 국제무대에서의 競爭·對決中止와 상호협력 및 공동노력</p> <p>○ 쌍방 總理間 直通電話 設置·運營 제의</p>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p>1990. 10. 18 朝鮮學生委員會 대변인 談話</p>	<p>제 5 조 : 우발적 武力衝突과 擴大防止를 위해 軍事當局者間 直 通電話 설치·운영</p> <p>제 6 조 ; 동 선언은 雙方合意에 의해 修正·補充 가능</p> <p>제 7 조 : 동 선언은 발효에 필요한 節次를 거쳐 通告문을 교환 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폐기를 通告 하지 않는 한 통일실현시까지 效力 유지</p> <p>○ 基本問題 討議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事前協議 問題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妥의안건을 「政治的 對決狀態 解消를 위한 方案」,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를 위한 方案」,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하기 위한 方案」으로 구분 - 討議順次 문제는 정치 軍사적 對決상태 해소방안과 협력교 류 실현방안을 並行討議 - 合意와 실천방법은 「일괄합의」, 「동시집행」의 원칙에 입각 하여 「북남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고 다방면 적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데 대하여」에 대한 包括的 合意 書를 작성·채택한 후 동시집행 <p>○ 1차會談時 제기한 「3개항 긴급과제」를 다시 제기</p> <p>〈統一學術祭관련 學生實務會談代表 판문점 파견통보〉</p> <p>○ 조선학생위원회는 北의 대학생들을 招請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板門店에서 實務會談을 가지자는 한양대·경희대·외국어대 총학생회 提議에 호응하여 5명으로 구성된 북측 學生實務會談</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0. 20 慶熙大·韓國外 國語大·漢陽大 學生會, 記者會 見</p>	<p>〈統一學術祭 개최관련 南北學生實務會談 제의〉</p> <p>○ 10. 24 오전 11시, 板門店에서 南北學生實務會談을 가질 것을 北韓의 조선학생위원회측에 제의함.</p>
<p>1990. 10. 24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統一學術祭 관련 南北學生接觸 承認申請 불허통보〉</p> <p>○ 우리 政府當局은 우리측 경희대·외국어대·한양대 일부 학생들이 북측 학생들과 함께 개최하려는 學術討論會가 상호이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유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행중인 南北對話나 여타 부분의 南北交流推進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接觸 承認申請을 불허하였음.</p> <p>○ 나는 우리 政府當局의 요청에 따라 上記 사실을 貴側에 통보하니 이를 貴側 朝鮮學生委員會에게 알려주기 바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0. 23 朝鮮學生委員會, 對南電通文</p>	<p>代表들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보낼 것임.</p> <p>○ 회담 時日은 10. 20 午前 11時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봄.</p> <p>〈統一學術祭 개최 위한 南北學生實務會談 동의〉</p> <p>○ 우리는 南朝鮮의 경희대 · 외국어대 · 한양대들로 구성된 「통일학술제」에 우리 대학생들을 招請하는 문제를 討議하기 위한 實務會談을 가질데 대하여 제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음.</p> <p>○ 우리는 10. 24 오전 11시, 5명으로 구성된 實務會談 代表團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내보낼 것임.</p> <p>○ 會談에서는 「통일학술제」행사를 나라의 統一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는 大祝祭로 거행하기 위한 문제들과 우리 북반부 大學生들의 祝典參加와 관련한 實務的 問題들을 協議하게 되기를 희망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0. 25 鄭東星 體育部 長官 · 김유순 北韓國家體育委 員長, 共同合意 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體育會談 開催 合意〉</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合意文 內容]</p> <p>① 제1차 南北體育會談은 1990. 11. 29 오전 10시, 板門店 「統一閣」에서 개최함.</p> <p>② 會談代表團의 構成은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單一팀 構成 · 參加를 위한 南北體育會談 代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代表團 名單은 추후 발표함.</p> <p>③ 會談議題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경기대회, 제3회 삼지연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기타 主要 國際競技大會에 쌍방이 單一팀을 구성하여 參加하는 문제로 함.</p> <p>④ 南北統一蹴球大會의 定例化 문제와 기타 南北體育交流 문제는 위의 南北體育會談에서 협의 · 결정함.</p>
<p>1990. 10. 31 汎民族大會 共同推進本部,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개최관련 3者會談 제의〉</p> <p>○ 11. 12 판문점에서 「汎民族大會」의 개최문제를 論議하기 위해 「推進本部」측과 북한측 · 해외동포측이 함께 참가하는 3者會談을 가질 것을 제의함.</p>
<p>1990. 10. 31 「全教組」,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 개최 提議〉</p> <p>○ 1991. 8. 15 광복절을 맞아 北韓教師들을 초청, 민족동질성과 통일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0. 25 鄭東星 體育部 長官・召兪全 北韓國家體育委 員長, 共同合意 文</p>	<p>〈南北體育會談 開催合意〉</p> <p>※ 左 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1. 1 姜英勳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차 南北高位級會談 개최일자 확인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高位級會談 쌍방 代表團은 지난번 平壤에서 개최된 제 2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제 3차 南北高位級會談을 1990. 12. 11~12. 14, 3박 4일간 서울에서 갖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음. ○ 나는 쌍방이 暫定合意한 이 날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1990. 12. 11~12. 14 사이에 제 3차 南北高位級會談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確認하는 바임.
<p>1990. 11. 5 金相浹 大韓赤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차 實務代表接觸, 11. 8 개최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第 2次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의 조속한 실현과 이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實務代表接觸 날짜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見地에서 나는 第 8次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11. 8 오전 10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가질 것을 提議함.
<p>1990. 11. 6 韓國藝術文化團體 總聯合會(會長 姜善泳)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藝術文化交流을 위한 接觸提議 및 窓口一元化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 가능한 남과 북의 藝術文化交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韓國藝總 會員 10개 단체와 49개 全國藝總 市·道支會 支部는 앞으로 모든 예술문화의 교류 및 이를 위한 북측과의 접촉은 韓國藝總 및 10개 會員 團體와의 協議體를 통하여 교류의 窓口가 一元化 되어야함을 關係當局과 全藝術人들에게 촉구하는 바임. ○ 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서 南北藝術文化交流가 남과 북의 상호가능한 일부터 모색하기 위한 준비모임을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1990. 12월중 板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1. 6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 文</p>	<p>〈第 8 次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11.8 개최동의〉</p> <p>○ 우리는 귀측이 中斷되었던 北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재개할 데 대한 우리의 提議에 긍정적인 答변을 보내온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11.8에 北南赤十字 實務代表團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파견할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1. 8 第8次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門店이나 第3國에서 南北藝術文化交流를 위한 접촉을 가질 것을 提議함.</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離散家族 故鄉訪問 문제를 우선적으로 協議·解決 할 것을 제의 ○ 革命歌劇 공연주장을 철회하고 民族歌劇이나 순수한 民族傳統 歌舞 같은 것으로 변경할 것을 促求 ○ 제11차 赤十字本會談 개최일자를 故鄉訪問團 交換實現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이 정할 것을 제의
<p>1990. 11. 9 유엔加入問題 관련 第3次 南 北韓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一議席下의 유엔가입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더 이상 同 問題와 관련한 實務代表接觸이 불필요함을 강조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1. 8 第 8 次 南北赤 十字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혁명가극」 공연에 대해 남측의 同意를 요구하면서 從來의 입장을 固守</p>
<p>1990. 11. 9 유엔加入問題관 련 第 3 次 南北 韓 實務代表接 觸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單一議席下의 유엔加入案을 유엔에 공동으로 제출하여 표결에 부치자고 제의</p>
<p>1990. 11. 12 南北高位級會談 北側 代表團長 연형묵, 對南電 通文</p>	<p>〈第 3 次 高位級會談 개최일자 同意 및 豫備會談 개최 提議〉</p> <p>○ 제 3 차 會談의 성과를 위하여 쌍방 代表들의 豫備會談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豫備會談을 11. 16 오전 10 시, 板門店 「통일각」에서 가지며 여기에는 南北高位級會談代表 2명과 責任連絡員, 그밖에 隨員 2명을 참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1. 14 서울傳統音樂演奏團 黃秉冀 代表, 對北書翰 * 11. 12字</p>	<p style="text-align: center;">〈90送年 統一傳統音樂會에 北韓음악가 초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이 北韓 음악가들을 招請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기간 : 1990. 12. 9~12. 15 - 공연횟수 : 2회 정도 - 총인원 : 30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는 초청자 부담 ○ 귀측 인원이 板門店을 통해 왕래할 것을 바라며, 편의제공·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함.
<p>1990. 11. 20 姜英勳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차 南北高位級會談 實務代表接觸 대표명단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 11. 21부터 개최되는 제 3차 南北高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에 참가할 우리측 代表名單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表 : 李乘龍(남북고위급회담 대표) 代表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代表 : 金勇煥(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1. 14 朝鮮文學藝術總 同盟 代辯人 談 話</p>	<p>○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實務的인 節次問題를 토의하기 위한 쌍방 責任連絡員 接觸을 11. 15 오후 3시, 板門店 「통일각」에 서 가질 것을 提議하는 바임.</p> <p>〈南北文化藝術交流 窓口 一元化 철회 주장〉</p> <p>○ 우리는 남조선 「藝總」이 북남문화예술 교류에 관심이 있다면 부당한 窓口 一元化 주장을 철회해야 하며, 자주적인 民間對 話와 交流를 주장하는 남조선의 모든 文化藝術團體들과 함께 우리와 마주앉아 文化藝術分野에서의 協力과 交流問題를 토의 해야 한다고 인정함.</p>
<p>1990. 11. 20 南北高位級會談 北側 代表團長 연형묵, 對南電 通文</p>	<p>〈제 3차 南北高位級會談 實務代表接觸 대표명단 通報〉</p> <p>○ 제 3차 北南高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에 우리측 대표로 北南高位級會談 北側 代表團의 백남준, 최우진 대표들 과 최봉춘 책임연락원이 隨員 2명과 함께 나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p>
<p>1990. 11. 21 朝鮮音樂家同盟 委員長 김원균, 對南書翰</p>	<p>〈90送年 統一傳統音樂會 관련 豫備接觸 제의〉</p> <p>○ 나는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90送年統一傳統音樂會」에 대한 선생(黃秉冀)의 발기를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招請에 기꺼 이 호응하는 바이며, 우리 藝術人들의 인원을 50명 정도로 하</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1. 21 제 3 차 南北高 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제 1 차 實 務代表接觸 (板門店「統一 閣」)</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 채택 제의 - 不可侵宣言 문제와 交流協力問題는 상기 基本合意書를 채택 한 후 「分科委」를 통해 협의・결정</p>
<p>1990. 11. 24 서울傳統音樂演 奏團 黃秉冀 代 表, 對北電通文</p>	<p>〈90送年 統一傳統音樂會 實務問題協議 제의〉</p> <p>○ 오는 11. 26 오전 10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90송년 통 일전통음악회」의 실무적 문제들을 協議하기 위한 接觸은 양 측에서 각기 위임한 連絡官들로 하여금 進行시키는 것이 편 리하리라 생각함.</p> <p>○ 이번 音樂會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귀측에서 參加하는 演 奏團의 名單과 人的事項과 演奏曲目을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 시어 音樂會 준비가 순조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람.</p>
<p>1990. 11. 27 金鍾烈 大韓올 림픽委員會 委</p>	<p>〈南北體育會談 우리측 代表團 名單등보〉</p> <p>○ 11. 29부터 개최되는 南北體育會談에 참가할 우리측 代表團 名單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1. 21</p> <p>제 3 차 南北高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제 1 차 實務代表接觸 (板門店 「統一閣」)</p>	<p>여 주었으면 하는 意見을 제기함.</p> <p>○ 나는 우리 藝術人들의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참가와 관련한 實務的 問題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3명으로 되는 豫備接觸을 11. 26 오전 10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가졌으면 함.</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다음 3가지를 일괄채택할 것을 주장</p> <p>① 北南高位級會談 공동성명</p> <p>② 北南不可侵에 관한 선언</p> <p>③ 북남협력·교류에 관한 宣言</p>
<p>1990. 11. 27</p> <p>北韓올림픽委員會 委員長 김유</p>	<p>〈南北體育會談 北側代表團 名單통보〉</p> <p>○ 北南體育會談에 참가할 우리측 代表團 名單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員長, 對北電通 文</p>	<p>— 首席代表: 張忠植(대한올림픽위원회 副委員長) — 代 表: 李學來(대한올림픽위원회 常任委員) 代 表: 任台淳(대한올림픽위원회 委員) 代 表: 金思興(대한올림픽위원회 委員) 代 表: 朴秀蒼(대한올림픽위원회 委員)</p>
<p>1990. 11. 27 제 3 차 南北高 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제 2 차 實 務代表接觸 (板門店 「평화 의 집」)</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案)」을 채택한 후 이를 토대로 「交流協力分科委」와 「政治軍事分科委」를 발족하여 교류협력과 政治 · 軍事的 對決상태 해소를 위한 합의 또는 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강조.</p>
<p>1990. 11. 29 제 1 차 南北體 育會談 (板門店 「統一 閣」)</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남북체육회담의 議題를 ① 남북통일축구대회의 定例化를 비롯한 남북체육교류 실현문제 ② 國際競技大會 남북단일팀 構成 · 參加 문제로 할 것을 제의, 이와 관련한 구체적 合意書(案) 제시</p> <p>① 南北統一蹴球大會의 정례개최에 관한 合意書(案)</p> <p>②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남북단일팀 구성 · 참가에 관한 合意書(案)</p> <p>* 북경아시아경기대회 單一팀構成 · 參加에 관한 쌍방간의 합의내용을 準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순, 對南電通文</p> <p>1990. 11. 27</p> <p>제 3 차 南北高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제 2 차 實務代表接觸 (板門店 「평화의 집」)</p>	<p>— 團 長 : 김형진 (북한올림픽위원회 副委員長)</p> <p>— 副團長 : 장 응 (북한올림픽위원회 書記長)</p> <p>代 表 : 김정식 (북한올림픽위원회 委員)</p> <p>代 表 : 김상부 (북한올림픽위원회 委員)</p> <p>代 表 : 김영석 (북한올림픽위원회 委員)</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南北高位級會談 共同聲明」은 그 趣旨만 살리고 남북 쌍방이 각각 우선시하는 「南北不可侵에 관한 宣言」과 「南北交流에 관한 宣言」의 두개 文件을 채택하자는 折衷案을 제시</p>
<p>1990. 11. 29</p> <p>제 1 차 南北體育會談 (板門店 「통일각」)</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유일팀구성문제 토의에 관한 3原則 제시</p> <p>① 북남대결을 피하고 민족적 和解와 團合, 統一促進에 기여</p> <p>② 앞으로 진행되는 主要 國際競技(서울·평양개최 포함)에 유일팀으로 참가</p> <p>③ 唯一팀 出戰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으며 祖國統一時까지 계속</p> <p>○ 북경아세아경기대회 단일팀構成·參加에 관한 기본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총괄적인 「北南唯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案)」과 함께 이에 따른 다음과 같은 合意書草案 제시</p> <p>① 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北南唯一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서(초안)</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2. 1 제 3 차 南北高 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제 3 차 實 務代表接觸 (板門店「統一 閣」)</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南北關係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가 채택된 기초위에서 交 流·協力問題와 不可侵問題를 협의· 해결해야 하며, 關係개선 의 意志도 없는 상태에서 不可侵問題를 먼저 해결할 수 없 다는 점을 강조</p> <p>- 제 2 차 接觸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基本合意書(案)의 내용 에 북측 주장을 일부 受容한 修正案을 제시, 북측의 呼應을 촉구</p>

出 處	北 韓 提 議 內 容
<p>1990. 12. 1 제 3 차 南北高 位級會談 준비 를 위한 제 3 차 實務代表接觸 (板門店 「통일 각」)</p>	<p>② 제25차 올림픽경기대회 아세아지역 축구예선에 北南唯一팀 으로 參加하기 위한 合意書(초안)</p> <p>③ 제 6 차 世界青年蹴球選手權大會에 北남유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서(초안)</p> <p>④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탁구연맹, 국제축구연맹 및 아세아 축구연맹에 보내는 便紙(초안)</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先 不可侵宣言 채택」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基本合意書」에 同意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p> <p>- 남측 修正案은 내용면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分裂 指向의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상고착적·段 階論的이라고 비난</p>
<p>1990. 12. 10 南北體育會談 北側 代表團長 김형진, 對南電 通文</p>	<p>〈제 2 차 南北體育會談 조속 開催促求〉</p> <p>○ 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가 4달 앞으로 迫頭해 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쌍방은 會談時日을 늦잡지 말아야 함.</p> <p>○ 우리는 제 2 차 北南體育會談의 개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 認定하면서 다음 회담날짜를 오는 12.20로 정할 것을 귀 측에 다시 提議함.</p>
<p>1990. 12. 12 北韓赤十字會</p>	<p>〈全教組 앞 對南便紙 전달계획 通報〉</p> <p>○ 나는 요청에 따라 조선교육문화일군직업동맹 委員長이 貴側</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12. 11~14 제 3 차 南北高 位級會談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 채택의 必要性 · 正當性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正常的인 남북관계의 정상화 - 高位級會談의 議題인 交流協力 實施와 對決狀態 解消를 다 같이 협의 · 해결하기 위한 土臺로서의 기본 「틀」 마련 - 남북관계 기본「틀」을 정립한 기초위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고 實效性 있는 不可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 <p>○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修正案)」제시</p> <p style="text-align: center;">[前 文]</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7.4 共同聲明의 統一 3原則 재확인 ② 민족공동의 利益과 民族和解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대화추진 ③ 긴장상태 緩和와 교류협력을 통한 信賴構築 ④ 相互信賴構築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平和統一 성취를 위한 共同努力 傾注 <p style="text-align: center;">[基本 事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일시까지 相對方의 체제존중, 內部問題 불간섭, 紛爭問題의 평화적 해결, 誹謗 · 中傷行爲 중지 ② 신문 · 라디오 · TV 및 出版物의 상호 開放과 交流實施 ③ 經濟 · 人的交流 協力 實施 및 이를 위한 通行 · 通信 · 經濟 交流와 協力에 관한 합의서 채택 ④ 離散家族들의 서신거래 및 상봉 · 방문실시와 再結合 추진 ⑤ 軍備競爭止揚,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軍備減縮 실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委員長代理 리성호, 對南電通文</p> <p>1990. 12. 11~14 제 3 차 南北高位級會談 (서울)</p>	<p>全國教職員勞動組合 위원장에게 보내는 便紙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0. 12. 14 오후 3시에 2명의 連絡員을 板門店 中監委會 議室에 내보내니 이에 상응한 措置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會談에 대한 3가지 見解 표명</p> <p>① 나라의 평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認識轉換 필요</p> <p>② 統一問題를 해결하는데서 外勢의 간섭을 許容하거나 의존하는 자세 배격</p> <p>③ 착실한 會談을 위해서 信義있고 眞實한 대화자세 필요</p> <p>○ 「北南不可侵과 和解協力에 관한 宣言(草案)」제시</p> <p>[前 文]</p> <p>① 7. 4 共同聲明에서 밝힌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祖國統一 3大原則 재확인</p> <p>②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除去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p> <p>[內 容]</p> <p>① 相對方의 사상과 제도의 認定·尊重, 내부문제 불간섭, 意見相異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대방에 대한 誹謗·中傷 中止</p> <p>② 武力不使用 및 不可侵, 이를 담보하기 위해 軍備競爭 중지 · 군사적 신뢰조성· 단계적 軍縮實現</p> <p>③ 불가침의 境界線은 1953. 7. 27부의 軍事分界線으로 하며 비무장지대를 平和地帶化</p> <p>④ 우발적인 武力衝突과 그 확대방지를 위해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운영</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⑥ 不可侵에 관한 合意書 채택</p> <p>⑦ 현 休戰體制의 평화체제 전환과 국제적 平和保障裝置 마련</p> <p>⑧ 국제무대에서의 相互 協力</p> <p>⑨ 合意書 發效後 1개월 이내에 交流協力分科委와 政治軍事分科委 설치</p> <p>⑩ 각기 發效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 通告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p> <p>○ 不可侵의 實效性 保障을 위한 방안 제시</p> <p>① 쌍방간에 不可侵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實踐意志의 뒷받침이 필요</p> <p>② 상대방 體制를 부정하고 破壞·顛覆시키려는 정책이나 태도 拋棄 필요</p> <p>③ 不可侵의 履行을 보장하는 확고한 保障裝置(남북간의 군사 정보 개방, 군사력의 불균형 시정, 감시와 검증, 국제적 보장장치) 講究 필요</p> <p>○ 政治軍事分科委員會에서 협의할 「南北不可侵에 관한 方案」 제시</p> <p>① 武力不使用 및 침략행위 금지</p> <p>② 의견대립 및 분쟁의 當局間對話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p> <p>③ 不可侵의 領域은 1953. 7. 27 停戰協定에 따라 관할해 온 領域으로 규정</p> <p>④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政策路線 拋棄 및 전복·교란 행위 금지</p> <p>⑤ 군사적 대결 및 군비경쟁 상태의 解消와 不可侵保障을 위한 조치 강구</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⑤ 各계인사·동포들간의 자유로운 來往과 接觸실현</p> <p>⑥ 經濟協力과 物資交流 實現, 과학·기술·교육 등 각 分野에 서의 성과와 經驗의 교환 및 협력</p> <p>⑦ 交通·遞信網 연결</p> <p>⑧ 국제무대에서 競爭과 對決中止, 대외적 協力과 共同進出</p> <p>⑨ 동 선언의 이행 및 담보에 관한 對策討議를 위해 本會談 테두리안에서 分科委員會 설치</p> <p>⑩ 동 선언은 署名·交換後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廢棄를 통고하지 않는 한 통일시까지 效力持續</p> <p>[署 名]</p> <p>• 쌍방 國號 및 總理呼稱 사용</p> <p>○ 3개 緊急問題 先決後 基本問題 討議 主張</p> <p>① 유엔加入問題 : 남측이 유엔單獨加入을 강행하는 것은 統一 의 이념에 背馳되며 會談倫理에도 배치</p> <p>② 訪北人士 釋放問題 : 방북인사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 는 것과 汎民族大會 남측추진본부 대표들의 구속은 對話에 얹은 조성</p> <p>③ 팀스피리트訓練 中止問題 : 훈련중지에 대한 어떠한 措置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훈련을 계속하겠다고 公表한 것은 유감</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情報 교환 및 軍人士 상호 방문 · 교류 실시 - 軍部隊 기동훈련 · 移動의 사전통보 및 參觀團 교환 - 軍사당국자간 直通電話 설치 · 운영 - 남북간 군사력 不均衡 시정 - 군사정전협정 준수, 비무장지대의 緩衝地帶化 · 평화적 이용 - 現場檢證團과 常駐監視團 交換 · 운영 ⑥ 南北軍事共同委員會 구성 · 운영 ⑦ 불가침에 관한 국제적 保障裝置 강구 ⑧ 既締結한 兩者 및 多者間 조약 · 협정에 無影響 <p>○ 쌍방 提案중 의견이 접근되고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合意 · 實踐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方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91. 1. 1, 0時를 기해 남북간의 상호 비방 · 중상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定人士들에 대한 指名攻擊行爲 중지 - 軍事分界線上에서의 擴聲器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비방 · 중상 중지 - 상대방 지역에 대한 傳單撒布 금지 ② 南北離散家族問題의 우선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음력설을 기해 제 2차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團 교환 실시 - 南北赤十字會談 조속 재개 ③ 南北 經濟交流 · 協力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互惠精神과 상호보완적 견지에서 필요한 物資 直交易 - 海外資源 개발사업의 共同推進 등 經濟協力事業 추진 - 설악산 · 금강산을 비롯한 觀光資源 공동 개발 ④ 軍事的 信賴構築措置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高位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설치 · 운영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2. 13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 일정규모 이상의 軍事訓練 事前通報</p> <p>⑤ 南北總理間 직통전화 設置·運營</p> <p style="text-align: center;">〈全教組앞 對南便紙 接受拒否 통보〉</p> <p>○ 나는 南北間에 불필요한 副作用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惹起시킬 素地가 있는 편지를 교환하는 것은 南北關係 改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政府의 입장에 따라 12.12자 電 話通知文에서 貴側이 전달을 요구한 편지를 接受하지 않을 것 임을 알리는 바임.</p>
<p>1990. 12. 14 盧泰愚 大統領 ·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 모 스크바 宣言</p>	<p style="text-align: center;">〈韓·蘇, 韓半島 平和定着 노력 결의〉</p> <p>○ 盧泰愚 大統領과 고르바초프 大統領은 韓半島의 평화가 東北 아시아와 세계의 平和를 위하여 중요하다는데 認識을 같이하 고 韓半島의 통일이 한국민의 염원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南北 韓間의 總理會談을 포함한 南北接觸의 확대를 환영하고 보다 더 公正하고 人本的이며 平和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國際秩 序의 수립을 굳게 다짐</p> <p>○ 양국 大統領은 한·소관계의 발전이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平和와 안보의 강화에 기여하고 이 지역에서 진행중인 變化에 부응하는 것이며 아시아에서 대결적 사고방식과 冷戰의 종식 을 가속화하고 地域協力에 기여하며 南北韓의 統一을 위한 緊 張緩和과 信賴構築을 促進시킬 것임을 확신</p> <p>○ 소련은 南北韓間에 정치적·군사적 대결의 終熄과 全韓國民의 意思에 따라 平和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韓國問題의 公正 하고 公평한 해결을 위한 生産的인 南北對話의 지속을 지지</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2. 14 朝鮮教育文化일 군職業同盟 委 員長 최금순, 放送通知文</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 개최문제 협의용의 表明〉</p> <p>○ 우리는 얼마전에 貴 組織(全教組)이 1991. 8. 13~8. 15 서울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 教育者들이 참가하는 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와 관련한 實務的 問題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와 만날 意思를 표시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음.</p> <p>○ 우리는 貴團體가 발기한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가 민족의 團合과 나라의 統一을 지향하는 북과 남, 海外同胞교육자들의 뜻과 힘을 합치는 중대한 契機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언제 어느때 어떤 장소에서든지 貴 團體 대표들과 기꺼이 만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바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0. 12. 18 南北體育會談 張忠植 首席代 表, 對北電通文</p>	<p>〈제 2차 南北體育會談 개최일자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으로서는 귀측이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單一팀 構成·參加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緊急한 문제로 보면서 온 겨레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겨준 統一蹴球大會를 定例化하는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움. ○ 나는 제 2차 會談에서 아무런 成果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온 겨레에게 또다시 실망만을 주게 될 것이므로 상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상과 같은 見地에서 나는 지난번 會談에서 우리측이 提案한 대로 제 2차 會談의 날짜를 내년 1. 15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1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 1 盧泰愚 大統領 新年辭</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韓 관계에 一大 轉機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周邊情勢의 급속한 변화속에 南北韓 관계가 큰 轉機를 맞는 해가 될 것임. ○ 이 세계의 秩序가 바뀌고 동유럽과 소련이 새로운 나라로 바뀌고 있는 狀況에서 北韓만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음. ○ 모스크바와 北京으로 가는 큰 길이 열린 이제 平壤으로 가는 길만이 닫혀 있을 수는 없음. ○ 우리는 이 큰 變化를 슬기롭게 이끌어 韓半島에 平和와 統一의 날을 앞당길 것임.
<p>1991. 1. 8 盧泰愚 大統領, 年頭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韓 유엔同時加入에 호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와 周邊國家들이 변화하고 있는 狀況에서 결국 北韓도 내 부족한 한계로 現實路線으로 전환할 것이며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南北頂上會談은 오래전부터 金日成 주석에게 제안한 것임. 남북간에 쌓이고 쌓인 不信도 南北頂上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對話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금년에는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추진하겠지만 北韓이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라도 먼저 加入하고 北韓의 가입을 支援할 것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 1 金日成 新年辭</p>	<p>〈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소집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當局은 不可侵宣言之를 채택하는데 주저없이 응해 나서야 하며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도 中止하여야 할 것임. ○ 朝鮮半島 平和問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은 하루빨리 우리와 平和協定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자기 軍隊와 核武器를 철수해야 할 것임. ○ 祖國統一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原則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聯邦制 方式으로 실현되어야 함. ○ 祖國統一 방도에 대한 全民族的 合意를 이룩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으로 북과 남의 當局과 政黨·團體 代表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를 소집할 것을 제의함.
<p>1991. 1. 8 政務院總理 연형묵, 對南電通文</p>	<p>〈當局 및 政黨·團體代表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공화국 정부·정당·단체대표 聯合會議의 위임에 따라 남조선 當局과 각 政黨 首腦들과 團體 代表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2명의 연락원을 1.9 오후 3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내보낼 것임.
<p>1991. 1. 8 南北體育會談 北側代表團長 김형진, 對南電通文</p>	<p>〈제 2차 南北體育會談 개최일자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쌍방은 거래의 염원에 맞게 하루빨리 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를 비롯한 중요 國際競技들에 북과 남이 하나의 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부터 解決하여야 함. ○ 우리 代表團은 오는 1.15 오전 10시, 귀족지역 「평화의 집」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 9 盧在鳳 國務總 理署理, 對北電 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對南 便紙攻勢관련 유감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먼저 貴側이 이른바 「聯合會議」 이름을 빌어 또다시 우리 내부의 各界各層을 대상으로 편지공세를 전개하려는데 대해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함. ○ 우리측이 누차 이에 대한 立場을 밝힌 바 있지만, 貴側이 제기하는 「政治協商會議」가 남북관계의 현실을 度外視한 우리측에 대한 敵對的 革命策略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임. ○ 統一方案은 어디까지나 合法的으로 국민의 代表機關이며 責任과 權能을 가진 쌍방 當局間에 민족전체의 의사를 토대로 協議・解決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이 實效性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임. ○ 나는 貴側이 올해부터는 더이상 쓸데없는 便紙攻勢로 모처럼 마련된 남북간의 對話와 交流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緊張을 조성하는 행동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勸告하는 바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 9 政府·政黨·團體代表聯合會議, 對南便紙 * 방송공개</p>	<p>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임.</p> <p>〈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소집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國統一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制度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實情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原則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政府에 기초한 聯邦制 方式으로 실현되어야 함. ○ 조국통일 方途를 확정하기 위하여 올해 8. 15 46들을 계기로 북과 남의 當局과 政黨·團體 代表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提議하는 바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時 期 : 1991. 8. 15경 - 場 所 : 서울 또는 平壤 - 參席範圍 : 當局者와 민간인, 여당과 야당, 在野를 막론하고 다수와 소수를 차별함이 없이 南北同數의 대표 및 海外同胞 대표 - 豫備接觸 : 남북 各黨·各派·各異한 급의 대표들, 정치인들 사이의 雙務的, 多務的 접촉과 대화 필요
<p>1991. 1. 12 政務院 代辯人 談話</p>	<p>〈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拒否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當局者들이 대화를 통하여 統一方途를 확정하자고 하는 우리의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소집제안을 걸고 革命策略 發想이니 뭐니 하고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 수 없음. ○ 國務總理 署理로 된 사람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電話通知文을 보내오면서 전례없이 비난의 度數를 높혀가며 우리를 걸고 드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 15 제 2 차 南北體 育會談 (板門店 「평화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討議順序 제시</p> <p>첫째,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및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 手權大會 단일팀 구성 · 참가 문제</p> <p>둘째, 南北統一蹴球大會 定例化 문제</p> <p>셋째, 전반적인 南北體育交流 · 協力과 國際競技大會 단일팀 構 成 · 參加에 관한 문제</p> <p>○ 제 41 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南北單一팀 構成 · 參加에 관한 合意書(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選拔 : 選拔戰을 통하여 선발 - 選手訓練 : 남북을 往來하며 실시 - 選手團 團長 : 選拔된 선수의 數가 많은 측에서 말되, 選手 의 수가 같을 경우 단일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 · 결정 <p>○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남북단일팀 구성 · 참가에 관한 合意書(안) 제시</p>
<p>1991. 1. 16 國際議會聯盟 大韓民國 議員</p>	<p style="text-align: center;">〈國際議會聯盟 제85차 總會관련 書翰 전달통보〉</p> <p>○ 나는 平壤에서 개최되는 國際議會聯盟 제85차 總會와 관련하</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 15 제 2 차 南北體 育會談 (板門店 「평화 의 집」)</p>	<p>는 것은 常識에 어긋나는 무례한 것이 아닐 수 없음.</p> <p>○ 우리는 남조선 當局者의 이번 電話通知文이 對話相對方을 부 질없이 자극하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故意的으로 惡化시키고 나아가서 당면한 北南對話들마저 유산시킬 것을 노린 對決宣 言·對話拋棄宣言으로 밖에 달리는 볼 수 없음.</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會談議題를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대회시 南北體育長官間 共 同合意文의 내용대로 할 것을 주장</p> <p>— 통일축구 定例化問題에 대해서는 주요 國際競技大會의 유일 팀 구성·참가문제를 협의·해결한 다음에 論議</p> <p>○ 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북남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合 意書(案) 제시</p> <p>— 選手選拔 : 유일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선발</p> <p>— 選手訓練 : 북과 남에서 각기 실시하다가 大會現地에서 綜合 訓練 실시</p> <p>— 選手團 團長 : 共同團長制</p> <p>* 제 6 회 世界青年蹴球選手權大會 문제는 卓球問題 타결후 협의</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團 朴浚圭 會 長, 對北電通文	여 貴下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1. 1. 17 오 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보낼 것임.
1991. 1. 30 제 3 차 南北體 育會談 (板門店 「통일 각」)	〈主要 提議 · 主張 內容〉 ○ 選手選拔問題 -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참가선수는 단일팀 共同推進機 構에서 협의 · 선발 -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參加選手는 公開評價戰(서 울 · 평양)을 기초로 단일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 · 선발 ○ 選手訓練問題 -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모두 서울 과 平壤에서 1회씩 強化訓練 실시 ○ 選手團 團長問題 -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 大會 團長을 남북이 각각 하나씩 分擔 ○ 단일팀 實務委員會 구성 · 운영에 관한 合意書(案) 제시 - 제41회 世界卓球선수권대회 單一팀實務委員會 구성 · 운영에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 17 北韓 의회그룹 위원장 양형 섭, 對南電通文</p>	<p>〈對北便紙 접수延期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며칠전 귀측 總理署理가 우리측 政務院總理의 편지를 받아가 는 것을 거부한 사실은 참으로 책임있는 當局者로서 무례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귀측의 便紙를 넘겨받는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로서는 가 까운 時期에 받아들 날짜를 귀측에 따로 알릴 것임을 通知하 는 바임.
<p>1991. 1. 30 제3차 南北體 育會談 (板門店 「통일 각」)</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選拔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팀 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 · 선발 ○ 選手訓練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에서 각기 실시하다가 大會現地에서 종합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往來訓練은 “선수들에게 정신적 ·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는 이유로 拒否 ○ 選手團 團長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團長制 ○ 탁구유일팀實務委員會 구성 및 운영에 관한 合意書(초안), 國 際卓球聯盟에 보낼 便紙에 관한 合意書(초안) 제시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관한 合意書(案)</p> <p>—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單一팀實務委員會 구성 · 운영에 관한 合意書(案)</p> <p>— 기타 國際올림픽委員會, 國際卓球聯盟, 國際 및 아시아蹴球聯盟에 보낼 便紙에 관한 合意書(案)</p>
<p>1991. 2. 8</p> <p>南北體育會談 張忠植 수석대 표, 對北電通文</p>	<p>〈제 4 차 體育會談 개최일자 提議〉</p> <p>○ 우리측은 어떻게 해서든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및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단일팀 구성 · 참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측의 立場을 충분히 고려한 전진적인 方案을 제시하기로 하였음.</p> <p>○ 南北體育會談의 성사를 위한 우리측의 진지한 立場을 貴側에 상기시키면서 第 4 次會談을 오는 2.12 오전 10시, 板門店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提議함.</p>
<p>1991. 2. 8</p> <p>朴浚圭 國際議 會聯盟 大韓民 國 議員團會長, 對北書翰 * 1. 17자</p>	<p>〈제85차 IPU 總會에 우리측 議員多數 참가희망〉</p> <p>○ 제85차 國際議會聯盟 총회가 平壤에서 열리게 되는데 대하여 大韓民國 議員團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함.</p> <p>○ 이번 제85차 平壤總會가 온 세계에 南北韓間의 友好關係를 과시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종래보다 많은 大韓民國의 國</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7 北韓 의회그루 빠 委員長 양형 섭, 對南電通文</p>	<p>〈IPU 관련 對北書翰 接受日字 통보〉</p> <p>○ 貴下(朴浚圭 국회의장)가 제85차 國際議會同盟 총회와 관련 하여 보내겠다는 편지를 넘겨받기 위하여 1991. 2. 8 오전 10 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2명의 連絡員을 내보낼 것임.</p>
<p>1991. 2. 8 勞動黨·社會民 主黨·天道教 靑友黨 공동명 의 對南便紙 * 2.6字</p>	<p>〈平民黨·民主黨·民衆黨 대표 平壤招請〉</p> <p>○ 지난 1. 8 소집된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代表들의 聯合會 議에서는 올해 8. 15를 계기로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를 가질 것을 말기하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提案을 담은 편지를 귀 政黨들에 보낸 바 있음.</p> <p>○ 북남 政黨代表들 사이의 접촉에서는 민족공동의 統一方途를 논의하게 될 것이며 平和統一을 위한 모든 정당들의 意見을 폭넓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임.</p> <p>○ 남조선의 平和民主黨·民主黨·民衆黨 代表들을 평양에 정중 히 초청하는 바이며, 평양방문 時日은 2월도 좋고, 3월도 좋 고, 아무때나 편리한 時期를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8 제152회 臨時國 會 제11차 本會 議 決議文</p>	<p>會議員과 隨行員 및 記者가 參석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우리 측 代表團이 板門店을 통해 왕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임.</p> <p>〈南北離散家族問題 조속해결 促求〉</p> <p>○ 大韓民國 國會는 南北離散家族들의 再會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그들의 生死만이라도 확인하는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착 수하도록 쌍방 議會가 해당 赤十字社에 적극 勸告할 것을 北韓 最高人民會議에 제의함.</p> <p>○ 大韓民國 國會는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의 조속한 再開등을 위해 쌍방 議會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와 支援을 다할 것 을 북한 最高人民會議에 촉구함.</p>
<p>1991. 2. 11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拉北漁船 송환 협조요청〉</p> <p>○ 우리측 關係當局에 의하면 지난 2.5 午後 4명의 우리측 船員 과 12명의 中國人이 乘船한 韓·中합작의 중국선적 원양트롤 어선 「006 남해어호」가 西海 백령도 해상에서 漁撈作業을 하 던중 귀측 警備艇에 의해 被拉되었다고 함.</p> <p>○ 본인은 「006 남해어호」가 순수한 民間漁船인 점을 감안하여 貴 赤十字가 赤十字人道主義 정신과 同胞愛에 입각하여 乘船 漁夫들이 하루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과 漁船의 送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망함.</p>
<p>1991. 2. 12 제4 차 南北</p>	<p>〈合意事項〉</p> <p>[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11 南北體育會談 北側代表團長 김형진, 對南電 通文</p>	<p>〈제 4 차 南北體育會談 2.12 개최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時日의 긴박성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그리고 유일팀 구성·참가의 基本趣旨에 비추어 볼 때 卓球 唯一팀 選手訓練은 轉地訓練으로 하고 유일팀 團長은 共同團長制로 하는 路 밖에 없다고 인정함. ○ 우리는 귀측이 제 4 차 北南體育會談에 나와서는 우리의 提案을 받아들여리라는 期待를 표시하면서 오는 2.12에 제 4 차 會談을 위하여 板門店 「평화의 집」에 나갈 것임을 通知하는 바임.
<p>1991. 2. 12 제 4 차 南北</p>	<p>〈合意事項〉</p> <p>[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북남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體育會談 (板門店 「평화 의 집」)</p>	<p>合意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수단 呼稱 우리말로 「코리아」, 英語로는 「KOREA」 (약자 : KOR) 2. 선수단 團旗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나. 지도에는 韓半島와 濟州島를 상징적으로 그려넣고 獨島·馬羅島·馬鞍島 등 기타 섬들은 省略 3. 선수단 團歌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 4. 選手選拔 單一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선발 5. 選手團 構成 가. 1991년 3월 초순까지 완료 나. 국제탁구연맹 規則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組織委員會의 관계규정에 따름. 다. 團長은 북측에서 말씀. 라. 기타 任員構成은 단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6. 選手訓練 가. 大會現地에서 실시 나. 訓練에 참가할 단일팀의 規模·訓練期間·場所·方法·經費 등은 단일팀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 다. 訓練은 선수단이 構成된 때로부터 大會 參加時까지 실시 7. 選手團 經費 남북이 共同負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단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8. 單一팀 共同推進機構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體育會談 (板門店 「평화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수단 名稱 우리말로 「코리아」, 英語로는 「KOREA」 (약자 : KOR) 2. 선수단 기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地圖 2) 地圖에는 조선반도와 제주도를 象徴적으로 그려넣고 독도·마라도·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省略 3. 선수단 노래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 4. 選手選拔 유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5. 選手團 構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91년 3월 초순까지 완료 2) 國際卓球聯盟 규칙과 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 組織委員會 관계규정에 따름. 3) 團長은 북측에서 맡음. 4) 기타 役員구성은 유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6. 選手訓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大會現地에서 실시 2) 訓練에 참가할 유일팀의 規模·訓練期間·場所·方法·費用 등은 유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3) 訓練은 유일팀이 구성된 때로부터 大會參加時까지 실시 7. 選手團 費用 북과 남이 共同負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8. 유일팀 共同推進機構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가. 단일팀 構成 및 參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協議·推 進하기 위하여 「卓球單一팀 實務委員會」를 구성·운영</p> <p>나. 實務委員會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基本合意書 署名 日로부터 10일 이내에 構成</p> <p>다. 實務委員會는 쌍방 代表 각기 5명씩으로 구성하며 남과 북 이 각각 1명씩의 共同委員長을 둠.</p> <p>라. 實務委員會 會議는 필요시 수시로 板門店에서 개최</p> <p>마. 實務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p> <p style="padding-left: 2em;">(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em;">(2) 선수단 構成 및 管理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em;">(3) 선수단 團服 및 參加에 따른 裝備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2em;">(4) 기타 단일팀 構成 및 參加에 따른 諸般事項</p> <p>바.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p> <p>9. 本 合意書는 서명일로부터 效力을 발생</p> <p style="text-align: center;">[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單一팀實務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合意書]</p> <p>1. 機 能</p> <p>가. 實務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협의·결정</p> <p style="padding-left: 2em;">(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4em;">(가) 協議에 의한 선수선발</p> <p style="padding-left: 4em;">(나) 훈련참가 人員數(선수·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p> <p style="padding-left: 4em;">(다) 選手訓練 때의 수송·숙식·의료 등 제반 便宜事項</p> <p style="padding-left: 4em;">(라) 선수훈련과 관련한 行政·醫療 및 技術要員 등 지원인 원에 관한 사항</p>

出 處	北 韓
	<p>1) 유일팀 構成 및 參加문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協議 · 推進하기 위하여 「卓球唯一팀 實務委員會」를 구성· 운영</p> <p>2) 실무위원회는 유일팀구성· 참가에 대한 基本合意書 서명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構成</p> <p>3) 실무위원회는 쌍방 代表 각기 5명씩으로 구성하며 북과 남 이 각각 1명씩의 共同委員長을 둠.</p> <p>4) 실무위원회 會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板門店에서 개최 함.</p> <p>5)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p> <p>(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p> <p>(2) 선수단 構成 및 管理에 관한 사항</p> <p>(3) 선수단 團服 및 大會參加에 따르는 裝備에 관한 사항</p> <p>(4) 기타 유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르는 諸般事項</p> <p>6) 실무위원회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는 별도로 작성</p> <p>9. 효 력</p> <p>本 合意書는 署名日로부터 效力을 발생</p> <p>[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唯一팀實務委員會 構成· 運營에 관한 合意書]</p> <p>1. 機 能</p> <p>1) 實務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결정</p> <p>(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p> <p>① 協議에 의한 선수선발</p> <p>② 훈련참가 人員數(선수· 책임지도원· 지도원)에 관한 사항</p> <p>③ 選手訓練때의 수송· 숙식· 의료 등 諸般 便宜事項</p> <p>④ 선수훈련과 行政· 醫療 및 技術人員 등 보장인원에 관</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2) 選手團構成 및 管理에 관한 사항</p> <p>(가) 選手團長 및 任員(감독·코치)選定에 관한 사항</p> <p>(나) 行政要員(총무·섭외·공보 등), 醫療要員 등 선정에 관한 사항</p> <p>(다) 參加申請書 제출에 관한 사항</p> <p>(예) 참가신청서 제출후 선수단의 問題發生時 해결방안 講究에 관한 사항</p> <p>(애) 선수단 結團式과 解團式의 시기·장소 및 구체적 方法에 관한 사항</p> <p>(배) 선수단의 出發·歸還과 相關한 手続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p> <p>(3) 선수단 團服 및 참가에 필요한 裝備에 관한 사항</p> <p>(4) 대회 개최 기간중 열리는 각종 會議參加에 관한 사항</p> <p>(5) 기타 단일팀구성 및 참가에 따른 諸般事項</p> <p>나. 實務委員會는 단일팀 선수단 구성이 완료되고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선수단참가와 相關한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 組織委員會와의 각종 連絡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p> <p>다. 實務委員會는 그 대외적 機能과 相關하여 쌍방 卓球協會가 제41회 世界탁구선수권대회 組織委員會·국제탁구연맹 등 국제체육기구 및 다른 나라 卓球協會와 갖는 接觸 또는 連絡 등의 고유한 權限에 參與할 수 없음.</p> <p>2. 構 成</p> <p>가. 實務委員會는 쌍방 각기 共同委員長 1명, 委員4명으로 구성</p> <p>나. 쌍방은 實務委員會 委員名單을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한·사항</p> <p>(2) 선수단 構成 및 管理에 관한 사항</p> <p>① 선수단 團長 및 役員(책임지도원·지도원) 선정에 관한 사항</p> <p>② 行政役員(총무·섭외·공보 등), 醫療役員 등 選定에 관한 사항</p> <p>③ 參加申請書 제출에 관한 사항</p> <p>④ 참가신청서 제출후 선수단의 問題發生時 해결방안 講究에 관한 사항</p> <p>⑤ 선수단 結團式과 解團式의 시기·장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p> <p>⑥ 선수단의 出發·歸還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p> <p>(3) 선수단 團服 및 대회참가에 필요한 裝備에 관한 사항</p> <p>(4) 대회개최 기간중 열리는 각종 大會參加에 관한 사항</p> <p>(5) 기타 유일팀구성 및 참가에 따른 諸般事項</p> <p>2) 實務委員會는 유일팀 선수단 구성이 완료되고 參加申請書를 제출한 이후에는 선수단참가와 관련한 제41차 世界卓球선수권대회 組織委員會와의 각종 連絡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p> <p>3) 實務委員會는 그 대외적 機能과 관련하여 쌍방 탁구협회가 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 組織委員會·國際卓球聯盟 등 국제기구 및 다른나라 卓球協會와 갖는 接觸 또는 連絡 등의 고유한 權限에 관여할 수 없음.</p> <p>2. 構 成</p> <p>1) 實務委員會는 쌍방 각기 共同委員長 1명, 委員 4명으로 구</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通報</p> <p>다. 實務委員會 委員은 사정에 따라 交替할 수 있음.</p> <p>3. 運 營</p> <p>가. 實務委員會는 탁구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合意書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構成하며, 구성 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大會終了후 쌍방간에 단일팀구성·참가와 관련한 諸般事項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함.</p> <p>나. 實務委員會 회의는 板門店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가며 수시로 開催</p> <p>다. 會議는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하며, 합의방식은 남북 쌍방 합의제로 함.</p> <p>라. 쌍방은 합의에 따라 關係專門家를 회의에 陪席시킬 수 있음.</p> <p>마. 쌍방 合意內容은 각기 2통씩 文書로 작성하며, 쌍방 공동 위원장이 서명한 文書를 1통씩 교환</p> <p>바. 會議結果의 報道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合意內容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發表</p> <p>4.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하여 본 合意書에 포함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함.</p> <p>5. 본 합의서는 署名日로부터 효력을 발생</p> <p> </p> <p>[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p> <p>1. 선수단 呼稱</p> <p>우리말로 「코리아」, 英語로는 「KOREA」 (약자 : KOR)</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성</p> <p>2) 쌍방은 實務委員會 委員名單을 본 합의서의 效力發生日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p> <p>3) 實務委員會 委員은 사정에 따라 交替할 수 있음.</p> <p>3. 運 營</p> <p>1) 實務委員會는 탁구유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合意書의 效力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構成하며 구성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大會終了후 쌍방간에 유일팀구성·참가와 相關한 諸 般事項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p> <p>2) 實務委員會 회의는 板門店 북측지역 「통일각」과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수시로 開催</p> <p>3) 회의는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하며 합의방식은 북남 쌍방합의 제로 함.</p> <p>4) 쌍방은 합의에 따라 關係專門家를 회의에 陪席시킬 수 있음.</p> <p>5) 쌍방 合意內容은 각기 2통씩 文書로 작성하며 쌍방 共同委員長이 서명한 문서는 1통씩 교환</p> <p>6) 會議結果의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합의가 있을 경우 合意內容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p> <p>4. 유일팀구성·참가와 相關하여 본 合意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合意하여 정함.</p> <p>5. 본 합의서는 署名日로부터 效力을 발생</p> <p>[제 6 차 世界青年蹴球選手權大會 北南唯一팀 構成·參加에 關한 合意書]</p> <p>1. 선수단 名稱</p> <p>우리말로 「코리아」, 英語로는 「KOREA」 (약자: KOR)</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2. 선수단 團旗</p> <p>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p> <p>나. 地圖에는 韓半島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 넣고 독도·마라도·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省略</p> <p>3. 선수단 團歌</p> <p>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p> <p>4. 選手選拔</p> <p>가. 評價戰을 기초로 하여 단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p> <p>나. 評價戰은 1991. 4월말부터 5월초 사이에 완료하며 公開的으로 실시</p> <p>다. 評價戰은 서울과 평양 등 南北의 地域에서 각 1회씩 실시함을 원칙</p> <p>라. 평가전 開催經費는 單一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p> <p>5. 選手團 構成</p> <p>가. 늦어도 1991. 5월초까지 완료</p> <p>나. 국제축구연맹 規則과 제 6 회 世界青少年蹴球選手權大會 조 직위원회의 關係規程에 따름.</p> <p>다. 團長은 남측에서 맡음.</p> <p>라. 기타 任員構成은 단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p> <p>6. 選手訓練</p> <p>가. 南北을 왕래하며 1회씩 번갈아 실시</p> <p>나. 訓練에 참가할 쌍방 선수단의 規模·訓練期間·場所·方法·經費 등은 단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p> <p>다. 선수단이 構成된 때로부터 大會參加時까지 실시</p> <p>7. 선수단 經費</p> <p>남북이 共同負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단일팀</p>

出 處	北 韓
	<p>2. 선수단 기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地圖 2) 地圖에는 조선반도와 제주도를 象徴的으로 그려넣고 독도·마라도·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省略 <p>3. 선수단 노래</p> <p>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p> <p>4. 選手選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評價戰을 기초로 하여 유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2) 評價戰은 1991. 4월말부터 5월초 사이에 완료하며 公開的으로 실시 3) 評價戰은 平壤과 서울 등 북남의 地域에서 각기 1회씩 실시함을 原則 4) 평가전 開催費用은 유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p>5. 選手團 構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늦어도 5월초까지 완료 2) 국제축구연맹 規則과 제 6 차 世界青年蹴球選手權大會 규정에 따름. 3) 團長은 남측에서 맡음. 4) 기타 역원구성은 유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p>6. 選手訓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남을 來往하며 1회씩 번갈아 실시 2) 訓練에 참가할 쌍방 선수단의 規模·訓練期間·場所·方法·費用 등은 유일팀共同推進機構에서 협의·결정 3) 선수단이 構成된 때로부터 大會參加時까지 실시 <p>7. 선수단 費用</p> <p>북남이 共同負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유일팀</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p> <p>(가) 評價戰을 기초로 協議에 의한 選手選拔</p> <p>(나) 훈련참가 人員數(선수·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p> <p>(다) 選手訓練때의 수송·숙식·의료·통신등 제반 便宜事項</p> <p>(라) 選手訓練과 관련한 행정·의료 및 기술요원 등 支援要員에 관한 사항</p> <p>(마) 선수훈련때의 記者團 交換에 관한 사항</p> <p>(바) 評價戰과 선수훈련때의 選手團 및 關係者의 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p> <p>(2) 선수단 構成 및 管理에 관한 사항</p> <p>(가) 選手團長 및 任員(감독·코치)選定에 관한 사항</p> <p>(나) 行政要員(총무·섭외·공보등), 醫療要員 등 選定에 관한 사항</p> <p>(다) 단일팀으로의 大會參加 확인통보 및 選手名單 제출에 관한 사항</p> <p>(라) 단일팀으로의 大會參加 확인통보후 選手團의 문제발생시 解決方案 강구에 관한 사항</p> <p>(마) 선수단 結團式과 解團式의 時期·場所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p> <p>(바) 선수단의 出發·歸還과 관련된 輸送 및 經路 등에 관한 사항</p> <p>(3) 선수단 構成·參加와 관련된 선수 및 관계인원의 南北往來와 관련한 사항</p> <p>(4) 선수단 團服 및 참가에 필요한 裝備에 관한 사항</p> <p>(5) 대회개최 기간중 열리는 각종 會議參加에 관한 사항</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사항</p> <p>① 評價戰을 기초로 協議에 의한 선수선발</p> <p>② 훈련참가 人員數(선수·책임지도원·지도원)에 관한 사항</p> <p>③ 選手訓練 때의 수송·숙식·의료·통신 등 제반 便宜 事項</p> <p>④ 選手訓練과 관련한 행정·의료 및 기술인원등 保障人員에 관한 사항</p> <p>⑤ 선수훈련 때의 記者團 교환에 관한 사항</p> <p>⑥ 評價戰과 선수훈련 때의 選手團 및 關係者의 활동보장에 관한 사항</p> <p>(2)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관한 사항</p> <p>① 選手團 團長 및 役員(책임지도원·지도원) 選定에 관한 사항</p> <p>② 行政役員(총무·섭외·공보 등), 醫療役員 등 選定에 관한 사항</p> <p>③ 유일팀으로의 大會參加 확인통보 및 選手名單 제출에 관한 사항</p> <p>④ 유일팀으로의 大會參加 확인통보후 선수단의 문제발생시 解決方案 강구에 관한 사항</p> <p>⑤ 선수단 結團式과 解團式의 시기·장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p> <p>⑥ 선수단의 出發·歸還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p> <p>(3) 選手團 構成·參加에 관련된 選手 및 關係人員의 北南來往과 관련한 사항</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6) 其他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諸般事項</p> <p>나. 實務委員會는 단일팀의 참가확인을 한 이후에는 選手團 參加와 관련한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각종 連絡 등 對外的 機能 수행</p> <p>다. 實務委員會는 그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쌍방 蹴球協會가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조직위원회, 國際蹴球聯盟 등 國際體育機構 및 다른나라 蹴球協會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 등의 고유한 權限에 干涉할 수 없음.</p> <p>2. 構 成</p> <p>가. 實務委員會는 쌍방 각기 共同委員長 1명, 委員 4명으로 구성</p> <p>나. 쌍방은 實務委員會 委員名單을 본 합의서의 效力發生日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p> <p>다. 實務委員會 委員은 사정에 따라 交替할 수 있음.</p> <p>3. 運 營</p> <p>가. 실무위원회는 蹴球單一팀 構成·參加에 대한 合意書의 效力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성하며, 구성 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大會終了후 쌍방간에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諸般事項이 완료될 때까지 存續</p> <p>나. 실무위원회 會議는 板門店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가며 수시로 開催</p> <p>다. 會議는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하며, 합의방식은 남북 쌍방 합의제로 함.</p> <p>라. 쌍방은 합의에 따라 關係專門家를 회의에 陪席시킬 수 있음.</p> <p>마. 쌍방 合意內容은 각기 2통씩 文書로 작성하며, 쌍방 共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4) 선수단 團服 및 대회참가에 필요한 裝備에 관한 사항</p> <p>(5) 대회개최 기간중 열리는 각종 會議參加에 관한 사항</p> <p>(6) 其他 유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諸般事項</p> <p>2) 實務委員會는 유일팀의 참가확인을 한 이후에는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제 6 차 世界青年蹴球選手權大會 조직위원회와의 각종 連絡 등 對外的 機能을 수행</p> <p>3) 實務委員會는 그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쌍방 蹴球協會가 제 6 차 世界青年蹴球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축구연맹 등 국제체육기구 및 다른나라 蹴球協會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 등의 고유한 權限에 관여할 수 없음.</p> <p>2. 構 成</p> <p>1) 實務委員會는 쌍방 각기 共同委員長 1명, 委員 4명으로 구성</p> <p>2) 쌍방은 실무위원회 委員名單을 본 합의서의 效力發生日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p> <p>3) 실무위원회 위원은 事情에 따라 交替할 수 있음.</p> <p>3. 運 營</p> <p>1) 實務委員會는 축구유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合意書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구성즉시 업무를 시작하고 大會終了後 쌍방간에 유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諸般事項이 완료될 때까지 存續</p> <p>2) 실무위원회 會議는 板門店 북측지역 「통일각」과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수시로 開催</p> <p>3) 회의는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하며 합의방식은 북남 쌍방 합의제로 함.</p> <p>4) 쌍방은 합의에 따라 關係專門家를 회의에 陪席시킬 수 있</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13 朴浚圭 國會議 長, 對北電通文</p>	<p>委員長이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p> <p>바. 회의결과의 報道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合意가 있 을 경우 合意內容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發表</p> <p>4.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하여 본 合意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合意하여 정함.</p> <p>5. 본 합의서는 署名日로터 효력발생</p> <p>[國際올림픽委員會, 國際卓球聯盟, 국제 및 아시아蹴球聯盟에 보낼 편지에 관한 合意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올림픽委員會 委員長 앞 書翰 - 國際卓球聯盟 회장 앞 書翰 - 國際蹴球聯盟 회장 앞 書翰 - 아시아蹴球聯盟 회장 앞 書翰 <p>〈對北便紙 전달계획 통보〉</p> <p>○ 나는 貴下(양형섭 상설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 기 위해 1991. 2. 19 오후 3시, 2명의 連絡官을 板門店 中監 委會談室에 보낼 것임.</p> <p>* 북측은 2. 18 對南電通文을 통해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연 락하겠다”고 통보</p>
<p>1991. 2. 18 金鍾烈 大韓올 림픽委員會 委 員長, 對北電通 文</p>	<p>〈卓球·蹴球實務委員會 위원명단 통보〉</p> <p>○ 1991. 2. 12 개최된 제 4 차 南北體育會談에서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라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와 제 6 회 世界靑少年 蹴球選手權大會 단일팀實務委員會에 참가할 우리측 委員名單</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18 北韓올림픽委員 長 김유순, 對 南電通文</p>	<p>음.</p> <p>5) 쌍방 合意內容은 각기 2통씩 文書로 작성하며 쌍방 共同委員長이 서명한 文서를 1통씩 교환</p> <p>6) 회의결과 的 報 道는 각기 刊 理한대로 하며 쌍방 合意가 있을 경우 合意內容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發表</p> <p>4. 唯一팀構成・參加와 關 連하여 본 合意書에 포 含되지 않은 사 項에 對해서는 쌍방이 合意하여 訂 合.</p> <p>5. 본 合意書는 署 名日로부터 效 力을 發 生</p> <p>[國際올림픽委員會, 國際卓球聯盟, 國 際 및 아세아蹴球聯盟에 보낼 函 件에 關 한 合意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올림픽委員會 委員長 앞 서한 - 國際卓球聯盟 會 長 앞 서한 - 國際蹴球聯盟 會 長 앞 서한 - 아세아蹴球聯盟 會 長 앞 서한 <p>〈卓球・蹴球實務委員會 委員명단 通 報〉</p> <p>○ 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북남유일팀實務委員會와 제6차 世界青年蹴球선수권대회 북남유일팀實務委員會 우리측 명단을 다음과 같이 通 報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18 統一院 代辯人 성명</p>	<p>을 다음과 같이 각각 알리는 바임.</p> <p style="text-align: center;">〔卓球實務委員會 名單〕</p> <p>— 委員長：朴聖仁(대한탁구협회 副會長)</p> <p>— 委 員：金昌濟(대한탁구협회 專務理事)</p> <p style="padding-left: 2em;">委 員：朴秀蒼(대한올림픽위원회 委員 겸 대한탁구협회 이사)</p> <p style="padding-left: 2em;">委 員：朴道天(대한탁구협회 理事)</p> <p style="padding-left: 2em;">委 員：方光一(대한탁구협회 理事)</p> <p style="text-align: center;">〔蹴球實務委員會 名單〕</p> <p>— 委員長：吳完建(대한올림픽위원회 委員 겸 대한축구협회 副會長)</p> <p>— 委 員：柳寅甲(대한축구협회 專務理事)</p> <p style="padding-left: 2em;">委 員：任台淳(대한올림픽위원회 委員 겸 대한축구협회 理事)</p> <p style="padding-left: 2em;">委 員：李樂元(대한축구협회 理事)</p> <p style="padding-left: 2em;">委 員：吳志哲(대한축구협회 理事)</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 합의일자에 개최 촉구〉</p> <p>○ 北韓側이 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을 개최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宣言한 것은 북한측이 南北高位級會談을 여전히 統一戰線 차원의 對南戰略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p> <p>○ 우리는 북한측이 조속히 會談席上으로 돌아와 평화와 통일 그리고 民族和解를 갈망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에 충실히 보답하는데 同參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p>

出 處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18 南北高位級會談 북측대표단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卓球實務委員會 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委員長 : 장웅(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장) - 委 員 : 김상부(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li style="padding-left: 2em;">委 員 : 김희진(북한탁구협회 서기장) <li style="padding-left: 2em;">委 員 : 김영삼(북한탁구협회 위원) <li style="padding-left: 2em;">委 員 : 박시남(북한탁구협회 위원) <p style="text-align: center;">[蹴球實務委員會 名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委員長 : 김세진(북한올림픽위원회 委員) - 委 員 : 김정식(북한올림픽위원회 委員) <li style="padding-left: 2em;">委 員 : 리명성(북한축구협회 副委員長) <li style="padding-left: 2em;">委 員 : 김광호(북한축구협회 常務委員) <li style="padding-left: 2em;">委 員 : 윤윤홍(북한축구협회 委員)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차 南北高位級會談 無期延期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은 灣戰爭을 계기로 있지도 않은 南侵威脅의 구실밑에 우리를 걸고 남조선 전역에 非常戰時體制를 선포한 데 이어 극히 도발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계획까지 發表하였음. ○ 오는 2. 25에 가지기로 되어있는 제 4 차 北南高位級會談을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만든 責任은 전적으로 대결과 전쟁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南朝鮮當局者들에게 있음.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21 제41회 世界卓 球選手權大會 卓球單一팀 實 務委員會 제1 차會議 (板門店「통일 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結團式 및 解團式 時期·場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結團式은 轉地訓練 출발직전 서울 또는 平壤 - 解團式은 귀환직후 平壤 또는 서울 ○ 선수단 出發·歸還관련 輸送 및 經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出發은 結단식을 거행한 處 - 歸還은 解단식을 거행할 處
<p>1991. 2. 22 제6회 世界靑 少年蹴球選手權 大會 蹴球單一 팀實務委員會 제1차會議 (板門店「평화 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評價戰 日時·場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28일, 平壤 - 5월 5일, 서울 ○ 評價戰時 記者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取材記者團 50명, TV中繼要員 20명(總 70명) ○ 強化訓練時 지원인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 各기 15명(총 30명)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20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성호, 對南電 通文</p>	<p>〈被拉漁船의 승선인원 人的事項 通報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送還을 요구하는 船舶(남해어 006호)에 대하여 알아 본데 의하면 이 배는 지난 5일 우리측 海軍警備艇에 단속되어 지금 該當機關의 조치를 받고 있음. ○ 乘船人員 가운데 귀측의 인원이 있다면 그들의 身元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人的事項을 우리측의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만큼 빠른 時日안에 알려주기 바람.
<p>1991. 2. 21 제41회 世界卓 球選手權大會 탁구단일팀 實 務委員會 제1 차 會議 (板門店 「통일 각」)</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團 結團式 및 解團式 시기·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단식·해단식은 大會現地에서 거행 ○ 선수단 出發·歸還 관련 수송 및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출발 및 귀환
<p>1991. 2. 22 제6회 世界靑 少年蹴球選手權 大會 蹴球單一 팀實務委員會 제1차 會議 (板門店 「평화 의 집」)</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評價戰 일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2일, 서울 - 5월 7일, 平壤 ○ 評價戰時 記者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取材記者團 20명 ○ 強化訓練時 지원인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합쳐서 15명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22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被拉漁夫 인적사항 通報〉</p> <p>○ 나는 貴下의 2. 20자 電話通知文과 관련하여 「006 남해어호」에 승선한 우리측 漁夫들의 人的事項을 알립.</p> <p>* 內容 省略</p>
<p>1991. 2. 26 제 6 회 世界靑 少年蹴球選手權 大會 蹴球單一 팀實務委員會 제 2 차 會議 (板門店 「통일 각」)</p>	<p>〈合意事項〉</p> <p>○ 評價戰</p> <p>— 日時 및 場所 : 1991. 5. 4(토), 서울 1991. 5. 8(수), 平壤</p> <p>— 方式 : 南北 각기 18명씩의 選手가 참가하여 南北選手 9명씩 으로 구성된 2개의 混成팀간에 실시</p> <p>— 審判 : 주최측의 國際審判</p> <p>— TV實況中繼 : 주최측이 相對側에서 요구하는 方式으로 畫面 · 音聲 제공</p> <p>— 往來人員 규모 : 選手 18명, 任員 7명, 실무위원회 委員 5명, 支援人員 15명, 取材記者團 25명(총70명)</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25</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 文</p>	<p>〈被拉漁船 및 漁夫 중국송환 通報〉</p> <p>○ 우리측 該當機關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지난 2.5 단속된 船舶 (남해어 006호)은 貴側 한두수산주식회사와 합영하는 中國 國籍의 선박으로서 우리측 領海에 불법침입하였다는 것이 확 인되었음.</p> <p>○ 該當機關에서는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관대히 용서하여 貴側 선원들을 포함한 船舶을 2.25에 中國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 음.</p>
<p>1991. 2. 26</p> <p>제 6 회 世界靑 少年蹴球選手權 大會 蹴球單一 팀實務委員會 제 2 차 會議 (板門店 「통일 각」)</p>	<p>〈合意事項〉</p> <p>※ 左 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評價戰 實施前 各々 2일간(서울 : 5. 2~5. 3 平壤 : 5. 6~5. 7)合同訓練 實施</p> <p>○ 選手選拔 南北 各기 9명씩(동수), 1991. 5. 8까지 選拔完了</p> <p>○ 強化訓練</p> <p>— 日程 : 平壤(5. 10~5. 14), 서울(5. 16~5. 20), 프랑스 툴롱 轉地訓練(5. 22~5. 26), 툴롱 國際靑少年蹴球大會 참가(5. 27~6. 4), 포르투갈 現地適應訓練(6. 6~6. 13) 실시</p> <p>— 參加人員 : 남북 各기 36명(총7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 18명(남북 各9), 團長 1명(남), 副團長 1명(북) 監督 1명(북), 코치 1명(남), 總務 2명(남북 各 1), 涉外 2명(남북 各1), 公報 2명(남북 各 1), 醫療 2명(남북 各1), 協會理事 8명(남북 各4), 專門家 6명(남북 各3), 通信 4명(남북 各2), 連絡 4명(남북 各2), 隨行員 8명(남북 各4), 攝影 2명(남북 各1), 記者 10명(남북 各5) <p>— 便宜提供 : 서울·平壤 強化訓練時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보장, 프랑스 轉地訓練 및 포르투갈 현지 適應訓練時는 쌍방 蹴球協會간 별도 협의·결정</p> <p>○ 選手團 構成 및 管理</p> <p>— 選手團은 남북 各 31명씩 都合 62명의 人員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18명(남북 各9) • 임원 30명(남북 各15) 團長 1명(남), 副團長 1명(북), 監督 1명(북), 코치 1명(남), 總務 2명(남북 各1), 公報 2명(남북 各1), 涉外 2명(남북 各1), 醫療 2명(남북 各1), 通譯 2명(남북 各1), 撮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影 2명(남북 각1), 協會理事 8명(남북 각4), 專門家 6명 (남북 각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支援人員 14명(남북 각7) - 선수단 관리는 團長 책임, 단장 不在時 副團長이 代理 - 單一팀 構成후 선발된 선수가 大會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우 該當協會에서 선발·보충 * 大會 公式登錄 인원 : 선수 18명, 임원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 단장 1명, 코치 1명, 총무 1명, 의료 1명 • 북측 : 부단장 1명, 총무 1명, 감독 1명 <p>○ 參加節次 履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一팀 參加事實 통보 : 1991. 2. 8까지 蹴球協會 會長 공동 명의로 FIFA와 AFC에 각각 통보 - 參加申請書 제출 : 남북 쌍방 蹴球協會 共同名義로 작성, 1991. 2. 28까지 FIFA와 AFC에 각기 발송 - 選手名單 제출 : 1991. 6. 4 이전에 남북 쌍방 蹴球協會 共同名義로 제출 協議·決定 <p>○ 結·解團式 및 輸送 經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結團式 : 南北往來 強化訓練 종료직후 서울에서 실시 - 解團式 : 선수단 歸還후 평양에서 실시 - 結·解團式 方法 : 주최측에서 정하되 細部事項은 쌍방간 協議·決定 - 輸送經路 : 선수단은 空路로 서울출발, 空路로 平壤 귀환(解團式후 남측 선수는 板門店을 통해 서울 귀환) <p>○ 選手 및 關係人員 남북왕래 關聯事項</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1. 2. 27 제41회 世界卓 球 選手權大會 卓球單一팀 實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往來節次·携帶品 소지등은 慣例에 따르고, 체육기간중 招 請側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기타 南北往來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板門店 쌍방 赤十字 連絡官간 협의·결정 ○ 團旗·團歌·團服·運動服·運動用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旗·團服 : 北側에서 준비 - 團歌·運動服·運動用品 : 南側에서 준비 • 유니폼 및 스타킹 색깔은 赤色과 흰색으로 함. • 評價戰時 트레이닝복과 競技服은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준비 • 團服·運動服 및 각종 裝備에는 단일팀 團旗 標識의에 다 른 표시는 할 수 없음. (단, 트레이닝복 가슴에는 단일팀 단기標識 밑에 우리말로 「코리아」를, 등에는 영어로 「KOREA」를 새겨 넣음.)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組編成 추첨참가 : 1991. 3. 15 포르투갈 조편성 추첨회의에 쌍방 蹴球協會 대표 각 1명씩 참석 - 大會期間중 會議 참가 : 會議性格에 따라 現地에서 쌍방의 合意로 필요한 대표가 참가 - 選手團 問題發生時 해결 : 선발선수 有故時의 充員問題를 제 외한 여타 문제발생시 단일팀 實 務委員會에서 협의·해결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選拔 : 쌍방 協議에 의해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卓球聯盟으로부터 쌍방 卓球協會에 배정된 인원을 쌍방 이 각기 選拔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2. 27 제41회 世界卓 球選手權大會 卓球單一팀實務</p>	<p>〈合意事項〉 ※ 左 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委員會 제 2 차 會議 (板門店 「평화 의 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탁구연맹 랭킹 규정에 의한 資格獲得 選手는 自動出戰 ○ 選手團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手團 規模는 남북 쌍방 각기 28명씩 都合 56명으로 構成 하되 團長은 북측, 總監督은 남측에서 맡음. • 단장 1명(북), 고문 4명(남북 각2), 총감독 1명(남), 실무 위원 6명(남북 각3), 감독 2명(남자: 북, 여자: 남), 코치 4명(남북 각2), 남자선수 12명(남북 각6), 여자선수 10명(남북 각5), 협회이사 2명(남북 각1), 전문가 2명(남북 각1), 총무 2명(남북 각1), 섭외 2명(남북 각1), 공보 2명(남북 각1), 통역 2명(남북 각1), 의료 2명(남북 각1), 촬영 2명(남북 각1) * 제41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公式招請된 國際審判은 단 일팀 선수단 구성에서 除外 - 結·解團式은 실시하지 않음(大會現地에서 공동환영식으로 代替) - 參加申請書 제출후 선발된 選手가 負傷·疾病 등의 사유로 대회참가 불가능시 該當協會에서 선발·충원 ○ 參加申請書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팀實務委員會에서 選手名單 확정 즉시 쌍방 共同委員長 명의로 작성 - 發送時限 : 늦어도 3. 15이전 발송 - 發送方式 : 남북 각기 발송 ○ 選手訓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간 : 1991. 3. 26~4. 23 - 훈련장소 : 大會現地(日本) - 南北共通事案에 소요되는 제반 經費는 공동부담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委員會 제 2 차 會議 (板門店 「평화 의 집」)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訓練場所 및 諸般便宜 문제는 단일팀實務委員會 공동위원장 명의로 大會組織委員會에 협조요청 ○ 團旗·團歌·團服·運動服·運動用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旗·團服 : 北側에서 준비 - 團歌·運動服 : 南側에서 준비 - 기타 탁구채·고무등 個人持參 用具는 각자 확보하고 공·고무풀·수건 등 共同使用 用具는 공동 구입 * 團服·운동복 및 각종 裝備에는 단일팀 團旗 標識외에 다른 표시는 할 수 없음. (단, 트레이닝복 가슴에는 단일팀團旗 標識밑에 우리말로 「코리아」, 등에는 英語로 「KOREA」를 새겨 넣음)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表者會議, 對陣表 작성회의등 대회기간중 개최되는 會議 參加는 회의성격에 따라 現地에서 쌍방의 合意로 필요한 代表 또는 대표단 구성·참가 - 선발선수 有故時의 충원문제를 제외한 여타 문제발생시 단일팀實務委員會에서 협의·해결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3. 5 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리 성호, 對南電通 文</p>	<p style="text-align: center;">〈社會團體 對南便紙 전달예정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職業總同盟 중앙위 · 農業勤勞者同盟 중앙위 ·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들의 要請에 따라 남조선에 보내는 편지를 넘겨주기 위 하여 1991. 3. 7 오전 10시,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 2명의 연 락원을 내보낼 것임. ○ 이 기회에 귀측 國際議會同盟 의원단 회장이 우리측 의회 그 루빠 委員長에게 보내려고 하는 편지도 받을 것임.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3. 6 金相浹 大韓赤 十字社 總裁,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對南便紙 접수거부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間에 불필요한 副作用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論爭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便紙를 교환하는 것은 南北關係改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의거한 우리 政府의 요청에 따라 귀측 편지를 接受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바임. ○ 아울러 지난 2.8 國際議會聯盟 우리측 議員團 會長이 貴側 의회그루빠 委員長에게 서한을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측 會長은 귀측 의회그루빠 위원장의 回答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바임.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3. 7 朝鮮職業總同盟 委員長 원동구, 「全勞協」委員長 앞 書翰(3. 6字) * 방송공개</p>	<p>〈남북 勞働者代表 접촉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앞에 밀려오는 새전쟁 위험을 시급히 막아야 하며 북과 남 勞働者代表들은 이를 위해 서로 만나 難局을 타개하기 위한 對策을 협의해야 함. ○ 北南 勞働者代表들의 접촉은 5.1절을 계기로 가지도록 하며, 접촉장소는 板門店이나 평양, 그 밖의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환영할 것임.
<p>1991. 3. 7 朝鮮農業勤勞者 同盟 委員長 박 수동, 「全農盟」 議長 앞 書翰 (3. 6字) * 방송공개</p>	<p>〈全農盟과의 접촉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이 外勢와 야합하여 팀스피리트 軍事訓練을 강행함으로써 北南關係는 침예한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情勢는 전쟁, 핵전쟁의 위험한 局面으로 치닫고 있음. ○ 조성된 事態는 온 거래와 북과 남 農民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난국을 타개할 方途를 시급히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農勤盟」은 남조선 「全農盟」과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1991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3. 7 朝鮮學生委員會 委員長 최현덕, 「全大協」, 「全 靑協」議長 앞 書翰(3.6字) * 방송공개</p>	<p>○ 接觸時日是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접촉장소는 平壤이나 서울이 무방하며 우리는 구체적 接觸時日과 場所問題는 귀측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임.</p> <p>〈全大協·全靑協과의 접촉제의〉</p> <p>○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이 틴스피리트 軍事訓練을 강행하여 情勢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北南關係를 전례없이 악화시키는 사태는 靑年學徒들이 힘을 합쳐 平和統一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음.</p> <p>○ 우리는 북과 남 靑年學生들의 만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만남의 시각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만남의 時期와 場所는 어느때 어디라도 좋으며 그것을 귀 단체의 意思에 맡기고자 함.</p>
<p>1991. 3. 20 朝鮮 文學藝術 總同盟 委員長 백인준, 韓國民 族藝術人總聯合 議長 앞 書翰 * 방송공개</p>	<p>〈民藝總과의 접촉제의〉</p> <p>○ 남조선의 韓國民族藝術人總聯合 대표들과 빠른 시일안에 만날 것을 제의하는 바이며, 우리들의 接觸과 對話에서는 민족을 戰爭의 재난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統一方途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나누며 民族文化藝術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p> <p>○ 接觸時日是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구체적인 時期와 場所문제에 대해서는 귀측의 意見에 따를 것임.</p>
<p>1991. 3. 20 朝鮮教育文化일</p>	<p>〈全教組와의 접촉제의〉</p> <p>○ 조선교육문화일군직업동맹 中央委와 남조선의 全國教職員勞動</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군 職業同盟 委 員長 최금순, 全國教職員勞動 組合 委員長 앞 書翰 * 방송공개</p>	<p>組合 사이에 接觸과 對話를 가질 것을 제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들의 만남과 統一對話에서는 민족공동의 統一方途를 협의하며, 이미 貴團體가 발기한 바 있는 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 개최문제와 北南教育者들 사이에 자주적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하는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接觸時日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時日과 場所問題에 대해서는 貴단체에 一任하는 바임.
<p>1991. 3. 20 朝鮮民主女性同 盟 서기장 강점 숙, 韓國婦人會 및 韓國女性團 體聯合 회장 앞 書翰 * 방송공개</p>	<p><韓國婦人會 등과의 接觸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반부 女性代表들과 남조선의 韓國婦人會·韓國女性團體聯合 대표들 사이에 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 ○ 우리들의 만남과 대화에서는 祖國을 평화적으로 統一하는데 나서는 긴절한 問題들과 함께 투옥된 愛國女性들·民主人士·統一志士들의 석방문제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韓國婦人會가 이미 제기한 바 있는 南北女性 土俗飲食競演大會 나 工藝品展示會의 개최와 같은 문제들도 같이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接觸時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接觸場所는 평양이나 그 밖의 貴단체가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歡迎할 것임.
<p>1991. 3. 27 北韓 의회그루 파 委員長 양형 섭, 對南電通文</p>	<p><IPU 平壤總會에 國會議員등 초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에서 열리는 國際議會同盟 제85차 總會에 귀측에서는 代表로서 國會議員 8명과 諮問委員 2명이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貴側의 희망을 고려하여 제정된 인원수 보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3. 30 朴浚圭 國際議 會聯盟 大韓民 國議員團 會長,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85차 IPU 平壤總會에 참석할 代表團名單 통보〉</p> <p>○ 국제의회연맹 제85차 平壤總會에 참석할 우리측 대표단의 規模는 귀측의 意見을 존중하여 國會議員 12명과 隨行員, 記者를 합하여 25名으로 代表團을 구성하였음. 그 名單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p>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團 名單]</p> <p>— 國會議員 蔡汝植(고문), 朴英淑(고문), 朴定洙(단장), 金鎔采, 金顯煜, 都英心, 朴寬用, 鄭在文(이사), 金元基, 趙世衡, 趙淳昇(이사), 金光一</p> <p>— 議會事務總長協會 會議 代表 朴相文(國會事務總長)</p> <p>— 隨行員 이재도(국회국장), 葉鴻철(국회 전문위원), 姜장석(국회과장), 朴태조(국회 자료심의관), 崔황섭(국회 전문위원), 윤인선(국회 통역관), 朴원화(외무부 과장), 張영섭(연합통신</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다 國會議員을 더 늘리고 거기에 隨行員들과 약간명의 記者 등을 포함하여 총 25명 규모의 人員을 파견하여도 異議가 없을 것임.</p> <p>○ 귀측 代表團의 來往 通道와 관련하여서는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으로 긴장되어 있는 現 北南關係를 고려할 때 板門店 通道를 原則적으로 허용할 수 없지만 귀측 代表團을 특별로 板門店을 통하여 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음.</p> <p>○ 귀측 國會議員들과 隨行員들의 名單을 알려주기 바람.</p>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第 2 卷
〈1988~1991. 3〉

1990年 3月 10日 初版 發行
1991年 5月 20日 1次增補版 發行

發行處：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非 賣 品〉

